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nurse-trees story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nurse-trees story







산림청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nurse-trees story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nurse-trees story

산림청

책을 펴내며

고층 빌딩 가득한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 시외로 나가면 마을 어귀나 언덕에 크고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 우람한 모습에서 보통 몇 백 년은 살아 왔을 거라 어름 짐작이 되는 노거수들. 마을에서는 이러한 나무를 귀하게 여겨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거나 푯말을 세워 보호하기도 하고, 또 기울어진 나뭇가지를 받치거나 썩어 동공이 생긴 부분에 외과수술을 하는 등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 하고 있다.

예부터 이런 크고 오래된 나무는 영험하다 하여 새끼줄을 두르거나 오색 천을 걸어 놓고는 소원을 빌었다. 마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구이자 아이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던 놀이터, 여인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소통의 공간,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던 시원한 그늘이 모두 이 나무와 함께 했다. 그렇다 보니 아예 그 옆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어 마을 주민의 '화합의 장'을 만들기도 한다. 이렇듯 나무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와 같았고, 그 속에 역사 · 전설 그리고 신비로운 설화와 같은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숨어 있다.

역사적인 고사 또는 유래가 있어 이름난 나무(명목, 名木), 전설이 있는 보배로운 나무(보목, 寶木), 성황당에 있는 나무(당산목, 堂山木), 향교 · 서당 · 정자 등에 심은 나무(정자목, 亭子木) 뿐만 아니라, 해안과 마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심은 나무, 기괴한 형상의 관상가치가 있는 나무, 명승고적의 정취 및 경관 유지에 필요한 나무 등 형태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보존 및 증식의 가치가 있는 나무를 산림청에서는 지난 1980년부터 「(구)산림법」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오랜 세월을 살아온 보호수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나무는 그 수령이 2,000살로 추정된다. 광활한 영토의 고구려, 문화의 중심지 백제와 삼국통일을 이룬 신라가 있던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을 거쳐 오늘날 현대까지 살아오면서 이 나무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보고, 듣고 담아 왔을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보호수의 역사적 가치, 전설, 설화를 아는 이들이 줄어들면서 그 속에 깃든 이야기 또한 점점 사라지고 있어 아쉬움이 컸다.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는 단지 크고 오래된 것만이 아닌 인간의 생애보다 몇 곱절은 살아온 보호수들의 이야기를 꺼내 기록으로 남기고,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는 그 동안의 문헌, 관리기관의 기록과 함께 직접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들은 전설이나 설화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전국의 보호수 1만4천여 그루 중 100본을 우선 선정하여 제작한 것이다. 이 책을 계기로 보호수가 국민의 관심을 받아 2권, 3권 시리즈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우리 전통의 보호수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그 이야기와 함께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6년 12월

산림청장 신원섭

차례

발간사 4
일러두기 9

제1장 수도권

01 은행나무 서울 도봉구 방학동 546 ····· 22
02 회화나무 서울 중구 정동길 21 ····· 24
03 측백나무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3-175 ····· 26
04 느티나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산177 ····· 28
05 향나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48-7 ····· 30
06 은행나무 인천 강화군 교동면 무학리 542 ····· 32
07 느티나무 인천 강화군 교동면 교동서로257번길 42-1 ····· 34
08 소나무 인천 강화군 선원면 강화동로 924 ····· 36
09 은행나무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213-1 ····· 38
10 향나무 경기 시흥시 하중동 185-5 ····· 40
11 은행나무 경기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396 ····· 42
12 은행나무 경기 양주시 남면 삼육사로327번길 109-14 ····· 44
13 느티나무 경기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482-13 ····· 46
14 은행나무 경기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264 ····· 48
15 음나무 경기 안성시 대덕면 죽촌길 173-2 ····· 50
16 은행나무 경기 하남시 항동 127-2 ····· 52
17 느티나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47-3 ····· 54
18 은행나무 경기 이천시 백사면 송말1리 435-4 ····· 56

제2장 강원지역

19 은행나무 강원 삼척시 가곡면 오저리 205 ····· 60
20 회화나무 강원 강릉시 죽헌동 71 ····· 62
21 느릅나무 강원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362 ····· 64
22 무궁화 강원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1969-4 ····· 66
23 느티나무 강원 원주시 행구동 777 ····· 68
24 느릅나무 강원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16번길5-9 ····· 70
25 느티나무 강원 정선군 정선읍 수미길 3 ····· 72
26 소나무 강원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산152 ····· 74
27 느티나무 강원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41-1 ····· 76
28 느릅나무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766-7 ····· 78
29 은행나무 강원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 80
30 느릅나무 강원 정선군 남면 유평리 149-1 ····· 82

제3장 충청지역

31 느티나무 대전 유성구 봉산동 297 ····· 86
32 느티나무 대전 서구 복수동 898 ····· 88
33 느티나무 세종 전의면 다방리 3 ····· 90
34 느티나무 충북 보은군 마로면 원정리 87 ····· 92
35 느티나무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괴산로공림길 104 ····· 94
36 말채나무 충북 괴산군 사리면 모래재로샘내골길 29 ····· 96
37 소나무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201 ····· 98
38 느티나무 충북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212-1 ····· 100
39 느릅나무 충북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775-5 ····· 102
40 느티나무 충북 진천군 백곡면 석현리 산28 ····· 104
41 소나무 충남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254 ····· 106
42 은행나무 충남 당진시 서문2길 28 ····· 108
43 느티나무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141-8 ····· 110
44 비자나무 충남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 산20 ····· 112
45 느티나무 충남 예산군 대흥면 중리길 35-11 ····· 114
46 은행나무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577-1 ····· 116
47 은행나무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속말1길 61-61 ····· 118
48 소나무 충남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34-3 ····· 120
49 은행나무 충남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353-1 ····· 122
50 느티나무 충남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803 ····· 124
51 은행나무 충남 금산군 추부면 신평길 12-14 ····· 126

제4장 전라지역

52 왕버들 광주 남구 구만산길 31 ····· 130
53 왕버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170 ····· 132
54 회화나무 전북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1246 ····· 134
55 소나무 전북 남원시 주천면 덕치리 산6 ····· 136
56 느티나무 전북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 138
57 은행나무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178-1 ····· 140
58 소나무 전북 진안군 주천면 도촌길 32 ····· 142
59 산수유 전남 구례군 산동면 계천리 199-1 ····· 144
60 느티나무 전남 영암군 서호면 엄길리 539 ····· 146
61 은행나무 전남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597 ····· 148
62 느티나무 전남 여수시 오림동 422-2 ····· 150
63 곰솔 전남 영암군 덕진면 덕진리 261 ····· 152
64 느티나무 전남 강진군 군동면 화산리 652-1 ····· 154
65 느티나무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 ····· 156
66 곰솔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4212 ····· 158
67 느티나무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935 ····· 160

68 | 느티나무 | 전남 |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 162
69 | 느티나무 | 전남 |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 208 ····· 164

제5장 경상지역

70 | 느티나무 | 부산 |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294 ····· 168
71 | 회화나무 | 부산 | 사하구 괴정동 1244-5 ····· 170
72 | 느티나무 | 대구 | 북구 연경동 879 ····· 172
73 | 은행나무 | 대구 | 북구 매천로37길 29-12 ····· 174
74 | 회화나무 | 울산 | 중구 우정동 276-43 ····· 176
75 | 느티나무 | 경북 | 경주시 내남면 부지1리 714 ····· 178
76 | 은행나무 | 경북 |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 431 ····· 180
77 | 느티나무 | 경북 | 안동시 풍천면 하회종가길 62 ····· 182
78 | 이팝나무 | 경북 | 청도군 풍각면 덕양리 1803 ····· 184
79 | 은행나무 | 경북 |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98 ····· 186
80 | 향나무 | 경북 |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34 ····· 188
81 | 후박나무 | 경북 | 울릉군 서면 남양리 143-1 ····· 190
82 | 은행나무 | 경북 | 성주군 초전면 봉정리 536 ····· 192
83 | 왕버들 | 경북 | 구미시 장천면 금산리 626 ····· 194
84 | 팽나무 | 경북 |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367-1 ····· 196
85 | 느티나무 | 경북 | 포항시 신광면 마북리 91-1 ····· 198
86 | 소나무 | 경북 | 울진군 금강송면 대광천길 60-1 ····· 200
87 | 느티나무 | 경남 | 양산시 북부동 327-2 ····· 202
88 | 시무나무 | 경남 |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541-2 ····· 204
89 | 느티나무 | 경남 |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662 ····· 206
90 | 은행나무 | 경남 | 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1049 ····· 208
91 | 감나무 | 경남 |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262 ····· 210
92 | 느티나무 | 경남 | 하동군 화개면 목압길 104 ····· 212
93 | 푸조나무 | 경남 |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34 ····· 214
94 | 노간주나무 | 경남 | 합천군 봉산면 권빈리 산204 ····· 216
95 | 굴참나무 | 경남 |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산1 ····· 218

제6장 제주지역

96 | 팽나무 | 제주 | 서귀포시 중문동 1689 ····· 222
97 | 후박나무 | 제주 | 서귀포시 태평로439번길 17 ····· 224
98 | 녹나무 | 제주 | 제주시 관덕로 33 ····· 226
99 | 팽나무 | 제주 | 서귀포시 하원로 45 ····· 228
100 | 팽나무 | 제주 |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666 ····· 230

참고문헌 ····· 232

일러두기

1. 본 서적에 수록한 보호수는 전국의 보호수 중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보호수 위주로 100개소 선정하였다.

2. 보호수 100개소의 배열은 전국을 권역으로 나누어 수도권, 강원지역, 충청지역, 전라지역, 경상지역, 제주지역의 순으로 하였다.

3. 권역 내의 개소(또는 보호수종) 배열은 무작위로 하였으며, 가능하면 동일 수종의 연속을 피하였다.

4. 보호수 이야기는 수고(높이), 흉고둘레 등의 개체 정보를 축약하고, 문화 · 역사 · 전설 · 설화 등의 스토리텔링 위주로 간결하게 밝혔다.

5. 보호수 이야기는 현지 주민의 인터뷰, 안내판, 해당기관의 채록 자료, 문헌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6. 보호수 위치정보는 지번명 주소 및 GPS 좌표의 도분(DM) 단위를 기본으로 하였다. GPS 좌표 탐색을 위한 시스템은‘ Magellan explorist ’ 기기 및 핸드폰 ‘ GPS Status ’ 를 기본으로 하여 지도좌표 검색사이트(http://joseph.woobi.co.kr)에서 보호수 위치좌표를 확인하여 오차범위를 최소화하였다.

7. 보호수 소재지 중 도로명이 확정되지 않은 곳은 지번명으로 표기하였으며, 찾아가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인접한 도로명을 표기하였다.

8. 보호수의 수령, 높이(수고), 흉고둘레는 거의 대부분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는 자료에 기준하였으나 기관자료와 실측자료의 오차범위가 15% 이상일 경우에 실측자료를 사용하였다.

보호수

1. 대한민국 보호수 정의

보호수는 번식이나 풍치 보존 및 학술 참고를 위하여 보호하는 나무이다. 즉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중에서 보존 및 증식의 가치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지정 목적은 생물 수종의 유전자와 종 또는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 및 관리이다.

구분	유형	정의
일반	노목(老木)	노생장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늙은 나무
	거목(巨木)	굵고 큰 나무
	희귀목(稀貴木)	매우 드물고 귀한 나무
세부	명목(名木)	어떤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 등의 유래가 있어 이름난 나무이거나 성현, 왕족, 위인들이 심은 것으로 알려진 훌륭한 나무
	보목(寶木)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이 있는 보배로운 나무
	당산목(堂山木)	제를 지내는 성황당, 산신당, 산수당에 있는 나무
	정자목(亭子木)	향교, 서당, 서원, 사정, 별장, 정자 등에 심은 나무
	호안목(護岸木)	해안, 강안, 제방을 보호할 목적으로 심은 나무
	기형목(畸型木)	나무의 모양이 정상이 아닌 기괴한 형상의 관상가치가 있는 나무
	풍치목(風致木)	풍치, 방풍, 방호의 효과 및 명승고적의 정취 또는 경관유지에 필요한 나무

2. 보호수의 보전 및 관리 근거

보호수의 보전 및 관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조례안을 마련하여 보호수의 지정, 보호,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보호수의 지정권자는 지방산림청장 및 시·도지사(산림보호법 제13조)이다.

보호수는 산림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 관리, 해제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 제13조(보호수의 지정 · 관리)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보호수가 자라고 있는 토지의 매수 또는 교환 등에 관하여는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 중 보호수의 해제기준(산림보호법 11조)은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시설, 농로시설, 산업단지, 산업시설, 군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등이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보호수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3. 대한민국 보호수 현황

2016년 대한민국 전체 보호수는 13,801본이다. 이는 산림청 지정의 보호수 24본과 시도 지정의 보호수 13,777본을 합한 것이다.

산림청 지정의 보호수는 북부지방산림청이 11본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남부지방산림청 6본, 서부지방산림청 5본, 중부지방산림청 2본이다.

그리고 시도 지정의 보호수는 전남이 4,051본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북 2,013본, 충남 1,800본, 충북 1,219본, 경기도 1,078본, 경남 909본, 강원 713본, 전북 637본, 대구 306본, 부산 224본, 서울 216본, 제주도 162본, 대전 125본, 인천 113본, 광주 77본, 세종, 70본, 울산 64본으로 나타났다.

[표] 2016년 대한민국 전체 보호수 현황 (단위 : 본)

구분	산림청	시도	합계
본수	24	13,777	13,801

수종별 보호수는 느티나무가 7,216본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소나무 1,634본, 팽나무 1,343본, 은행나무 782본, 버드나무 5078본, 회화나무 371본, 향나무 229본이며, 그 밖의 느릅나무, 녹나무, 말채나무, 이팝나무 등이 1,718본이다.

[표] 2016년 대한민국 전체 보호수 현황 (단위 : 본)

구분	느티나무	팽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버드나무	향나무	기타	합계
산림청	1	-	13	-	-	1	1	8	24
시도	7,215	1,343	1,621	782	371	507	228	1,710	13,777
합계	7,216	1,343	1,634	782	371	508	229	1,718	13,801

4. 대한민국 보호수 100선

선정 과정

대한민국 보호수의 100선은 선행과정, 선별과정, 조사과정, 평가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선행과정에서는 노목, 거목, 희귀목, 명목 등을 기준으로 전체 보호수 10% 내외의 1,000본을 선정한 후 500본, 250본 순으로 점차 줄여나간 다음에 보호수 150본을 우선 선정하였다.

선별과정에서는 150본을 각각의 해당 기관으로 보내어 의견을 받았는데, 이때 해당기관은 지역의 판단에 따라 일부의 수종을 취소함과 동시에 일부의 종을 추가로 추천하였다.

조사과정에서는 선별과정에서 가감된 139(161본)개소를 현지답사로 조사하였으며, 이때에 사진자료를 획득하였다.

평가과정에서는 139(161본)개소 후보 중 연구팀 자체 평가표 평가 및 외부자문위원 회의 등을 통하여 100개소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보호수 100선은 지역(행정구역 도단위) 및 보호수별(노목, 거목, 희귀목) 적정 안배를 기본원칙으로 정하였으나

최종평가 과정에서 점수가 약간 낮더라도 예외로 특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몇 수종이 100선에 포함되었다. 예컨대 대한민국 상징성이 있는 무궁화(강릉 유등리) 및 학자의 나무로 알려진 회화나무(순창 괴정리)가 시골에서 고목으로 보존된 경우 등이다.

보호수의 권역별 및 수종별 100선

권역별 보호수는 수도권 18본(개소), 강원지역 12본, 경상지역 26본, 제주지역 5본, 충청지역 21본, 전라지역 18본이다. 100선의 보호수종은 모두 25종이며, 느티나무가 33본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은행나무(22본), 소나무(7본), 느릅나무, 회화나무(각 5본), 팽나무(4본), 향나무, 왕버들(각 3본), 곰솔, 후박나무(각 2본), 감나무, 노간주나무, 녹나무, 말채나무, 금강소나무, 반송(다행송), 무궁화, 푸조나무, 굴참나무, 비자나무, 산수유, 시무나무, 음나무, 이팝나무, 측백나무(각 1본)이다.

[표] 대한민국 보호수 100 선 현황

구분	수도권	강원지역	경상지역	제주지역	충청지역	전라지역	합계
개체수(본)	18	12	26	5	21	18	100

[표] 대한민국 보호수 100선의 수종별 현황

수종명	본	수종명	본	수종명	본	수종명	본	수종명	본
느티나무	33	팽나무	4	감나무	1	반송(다행송)	1	산수유	1
은행나무	22	향나무	3	노간주나무	1	무궁화	1	시무나무	1
소나무	7	왕버들	3	녹나무	1	푸조나무	1	음나무	1
회화나무	5	곰솔	2	말채나무	1	굴참나무	1	이팝나무	1
느릅나무	5	후박나무	2	금강소나무	1	비자나무	1	측백나무	1

5. 보호수 100선 수종해설

느티나무



느릅나무과의 교목이다. 높이 25m 정도이다. 나무껍질은 회갈색이다. 잎은 어긋난다. 잎몸은 장타원형이며 길이 13cm, 너비 5cm로서 잎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꽃은 4~5월에 핀다. 열매는 가을에 갈흑색으로 익는다. 어린잎은 먹을 수 있다. 가로수로 이용되며, 그늘을 넓게 만들므로 흔히 마을의 정자목으로 많이 심었다. 양반은 느티나무로 지은 집에서 느티나무 가구를 이용하며 살다가 느티나무 관에 실려 저승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감나무



감나무과의 교목이다. 잎은 어긋난다. 잎몸은 달걀꼴 또는 광타원형이며 길이 7~17cm, 너비 4~10cm로서 잎가장자리가 밋밋하다. 꽃은 양성화 또는 잡성화이며 5~6월에 핀다. 열매는 난원형이며 10월에 황홍색으로 익는다. 덜 익은 열매에 타닌 성분이 많아 떫다. 열매를 식용하는데, 홍시 등으로 생식하거나 곶감 등으로 만들어 먹는다. 풋감으로는 감물을 만들어 방습제, 방부제, 염료로 사용한다. 민간에서는 유산방지에 감꼭지를 이용한다.

곰솔



소나무과의 교목이다. 높이 30m 정도이다. 나무껍질은 어두운 갈색이며 갈라진다. 잎은 2개씩 묶어난다. 잎몸은 바늘잎이며 진한 녹색이다. 꽃은 5월에 핀다. 열매는 50~60개의 작은 실편으로 이루어졌으며 길이 4~6cm, 너비 3~4cm이다. 열매는 다음해 9월에 익는다. 주로 중부 이남의 바닷가에서 자란다. 한자로 해송(海松), 흑송(黑松)이라 쓴다. 소나무와 다른 점은 잎이 길고 굵으며 진한 녹색이고 겨울눈이 흰빛이다.

굴참나무



참나무과의 교목이다. 높이 25m 정도이다. 나무껍질은 코르크질이 두껍게 발달하였다. 잎은 어긋난다. 잎몸은 타원형이며 잎뒷면에 털이 빽빽이 나서 회백색으로 보인다. 잎자루는 길이 3cm 정도이다. 꽃은 5월에 핀다. 수꽃차례는 새 가지 아래에 달리고, 암꽃차례는 위쪽의 잎겨드랑이에 달린다. 열매는 타원형이며 다음해 9~10월에 익는다. 산기슭에 자란다. 껍질의 코르크는 병마개로 쓰고, 열매는 먹거나 약용으로 이용한다.

금강소나무



소나무과의 교목이다. 소나무의 한 품종이다. 높이 25m 정도이다. 줄기가 굽지 않고 곧게 자라며 붉은빛이고 마디가 긴 것이 특징이다. 잎은 2개씩 묶어난다. 잎몸은 바늘모양이고, 끝이 뾰족하다. 암수한그루이다. 꽃은 5월에 핀다. 열매는 난형이며 길이 4~5cm, 너비 3~3.5cm로서 황갈색을 띠며, 각 실편에 5~6mm의 타원형 종자가 들어 있다. 종자에 날개가 있다. 한자로 금강송(金剛松)이라 쓴다. 주로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 자란다.

노간주나무



측백나무과의 교목이다. 높이 10m 정도이다. 잎은 바늘잎이며 3개가 돌려난다. 잎몸은 단면이 세모모양이고 길이 12~20mm로서 잎끝이 뾰족하고, 겉면 가운데에 흰빛의 좁은 홈이 있다. 꽃은 단성화이고 5월에 녹갈색으로 핀다. 열매는 둥그스름하며 지름 7~8mm로서 다음해 10월에 흑갈색으로 익는다. 한자로 노가자(老柯子), 두송(杜松), 노송(老松)이라 쓴다. 산기슭의 양지쪽이고 석회암 지대에 잘 자란다. 배나무 옆에 심지 않은 나무이다.

녹나무

녹나무과의 교목이다. 높이 20m 정도이다. 나무껍질은 갈흑색이며 깊게 파인다. 잎은 어긋나며 자르면 향기가 있다. 잎몸은 달걀꼴이고 길이 6~10cm, 너비 3~6cm로서 잎가장자리가 물결모양이다. 3잎줄이 갈라지는 사이에 2개의 샘점이 있다. 꽃은 5월에 누런빛으로 핀다. 열매는 둥글고 지름 8mm이며 10~11월에 검은빛으로 익는다. 장뇌(樟腦)가 함유되어 있다. 조각재, 가구재, 사찰의 목어(木魚)를 만들 때 사용한다. 제주도의 상징나무이다.



느릅나무



느릅나무과의 교목이다. 높이 20m, 지름 70cm 정도이다. 잎은 어긋난다. 잎몸은 타원형이며 길이 4~8cm로서 잎가장자리에 날카로운 톱니가 있다. 잎밑은 일그러진 둥근 모양이다. 꽃은 3월에 잎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많고, 적자색이다. 열매는 납작한 도란형 또는 타원형이며 4~5월에 익는다. 한자로 분유(枌楡), 가유(家楡)라 쓴다. 목재는 가구와 땔감으로 쓰며, 껍질은 약으로 이용한다. 정자목으로 심기도 하였다. 어린잎은 차로 달여 먹는다.

말채나무

층층나무과의 교목이다. 높이 10m 정도이다. 나무껍질은 흑갈색이며 그물같이 갈라진다. 잎은 마주난다. 잎몸은 광란형 또는 타원형이며 길이 5~8cm, 너비 3~5cm로서 잎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측맥은 4~5쌍이다. 잎자루는 길이 1~3cm이다. 꽃은 5~6월에 흰빛으로 핀다. 열매는 둥그스름하고 9~10월에 검은빛으로 익는다. 정원수로 심는다. 꽃은 밀원 역할을 한다. 열매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껍질은 이뇨제 및 지사제로 약용한다.



무궁화



아욱과의 관목이다. 높이 3m 정도이다. 줄기는 곧으며, 가지가 갈라진다. 잎은 어긋난다. 잎몸은 달걀꼴이이고 3갈래로 얕게 갈라지며 잎가장자리에 거친 톱니가 있다. 잎앞뒷면은 털이 있다. 꽃은 8~10월에 적자색, 백색 등으로 핀다. 수술은 많다. 열매는 둥근 난형이며 익으면 5갈래진다. 한자로 무궁화(無窮花), 목근(木槿)이라 쓴다. 한반도에 자생하지 않는다. 어린잎은 나물로 먹는다. 잎과 꽃을 차로 만들어 마신다. 대한민국의 국화(나라꽃)이다.

반송

소나무과의 관목 또는 아교목이다. 높이 3~6m이다. 줄기는 밑동에서 여러 개가 갈라진다. 잎은 2개씩 묶어난다. 잎몸은 바늘모양이고, 끝이 뾰족하다. 암수한그루이다. 꽃은 5월에 핀다. 열매는 난형이며 길이 4~5cm, 너비 3~3.5cm로서 황갈색을 띠며, 각 실편에 5~6mm의 타원형 종자가 들어 있다. 종자에 날개가 있다. 한자로 반송(盤松), 다행송(多行松), 만지송(萬枝松)이라 쓴다. 줄기가 지표면부터 여러 갈래지는 다행송과 구별하기도 한다.



비자나무



주목과의 교목이다. 높이 25m 정도이다. 나무껍질은 회갈색이며 오래되면 얕게 갈라져서 떨어진다. 잎은 바늘잎이고 깃꼴처럼 2줄로 배열한다. 잎몸은 길이 25mm, 너비 3mm 정도이고 끝이 뾰족하다. 잎은 6~7년 만에 떨어진다. 꽃은 단성화이며 4월에 핀다. 열매는 타원형이며 다음해 9~10월에 익는다. 종자는 타원형이고 다갈색이며 껍질이 딱딱하다. 가지를 꺾어 집에 두면 액운이 없어진다는 속설이 있다. 기생충을 구제하고 기침을 멎게 한다.

산수유

층층나무과의 아교목이다. 높이 7m 정도이다. 나무껍질이 벗겨진다. 잎은 마주난다. 잎몸은 달걀꼴 또는 타원형이고 길이 4~12cm, 너비 2.5~6cm로서 잎가장자리는 밋밋하다. 꽃은 3~4월에 잎보다 먼저 나와 노란빛으로 핀다. 열매는 장타원형이며 8월에 붉은빛으로 익는다. 한자로 산수유(山茱萸)라 쓴다. 열매는 약용한다. 간과 신장을 튼튼히 하고 원기와 혈을 보하며, 혈압을 내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다. 공원수로 심고 있다.



소나무



소나무과의 교목이다. 높이 25m 정도이다. 잎은 2개씩 묶어난다. 잎몸은 바늘 모양이고, 끝이 뾰족하다. 암수한그루이다. 꽃은 5월에 핀다. 열매는 난형이며 길이 4~5cm, 너비 3~3.5cm로서 황갈색을 띠며, 각 실편에 타원형 종자가 들어 있다. 종자에 날개가 있다. 적송(赤松), 육송(陸松)이라 쓴다.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이다. 한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이다. 송순, 송화, 송엽, 송진 등은 약용한다. 오래 사는 나무 중의 하나이다.

시무나무



느릅나무과의 교목이다. 어린가지에 길이 1.5~10cm의 가시와 함께 잔털이 있다. 잎은 어긋난다. 잎몸은 타원형이고 길이 3~6cm, 너비비 1~1.5cm로서 잎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암수한그루이다. 꽃은 잡성화이며 5월에 누런빛으로 핀다. 열매는 편평한 반월형이며 10월에 익는다. 한자로 지유(地楡), 자유(紫楡)라 쓴다. 옛날 20리마다 심어 이정표로 삼았다 하여 스무나무라 부르던 이름이 시무나무로 변하였다는 속설이 있다.

왕버들



버드나무과의 교목이다. 높이 20m 정도이다. 나무껍질은 회갈색이고 깊게 갈라진다. 잎은 어긋난다. 잎몸은 장타원형이며 턱잎이 있고, 어릴 때에 붉은빛이 돈다. 암수딴그루이다. 꽃은 4월에 핀다. 수꽃차례는 위를 향하며, 암꽃차례는 위로 비스듬히 선다. 각각의 열매는 달걀꼴이며 5~6월에 익는다. 키가 크고 잎도 버드나무에 비하여 넓기 때문에 왕버들의 이름이 생겼다. 습지나 냇가에서 자란다. 개천 마을의 정자목처럼 자라는 것이 많다.

은행나무



은행나무과의 교목이다. 높이 30m까지 자란다. 껍질은 회색이 돌고 골이 패어 있다. 잎은 긴 가지에서 어긋나며 갈라지고, 짧은 가지에서 모여나며 잎가장자리가 대체로 밋밋하다. 잎몸은 부채모양이다. 가을에 노랗게 물든 단풍이 아름답다. 암수딴그루이다. 꽃은 5월에 핀다. 암꽃은 3mm 내외이고, 수꽃은 꼬리꽃차례로 달린다. 열매는 10월에 익는다. 열매는 은행(銀杏)이라 한다. 절의 뜰에 심었다. 오래 사는 나무로 유명하다.

음나무



두릅나무과의 교목이다. 나무껍질은 회갈색 또는 흑갈색이고, 가지는 가시가 있다. 잎은 어긋난다. 잎몸은 길이와 너비가 각각 10~30cm이며, 5~9개로 깊게 갈라진다. 잎조각은 달걀꼴 또는 타원형이며, 잎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꽃은 7~8월에 황록색으로 핀다. 열매는 가을에 검은빛으로 익는다. 새순은 식용하며,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하거나 술을 담근다. 농촌에서는 잡귀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음나무 가지를 대문에 꽂아 두는 풍습이 있었다.

이팝나무



물푸레나무과의 교목이다. 높이 20m 정도이다. 가지는 회갈색이다. 잎은 마주난다. 잎몸은 타원형 또는 달걀꼴이며 길이 3~15cm, 너비 2.5~6cm로서 잎가장자리는 밋밋하지만 어릴 때에 톱니가 있다. 꽃은 5~6월에 흰빛으로 핀다. 열매는 9~10월에 검은빛으로 익는다. 이름은 입하(立夏) 무렵에 꽃이 피므로 입하가 이팝으로 변음하였거나 흰 꽃이 쌀밥을 연상시키므로 이팝나무가 되었다. 어린잎은 차를 끓여 먹는다. 가로수로 많이 심고 있다.

측백나무



측백나무과의 교목이다. 높이 25m 정도이다. 잎은 비늘잎이며 어긋나게 달린다. 잎앞면과 잎뒷면이 비슷하다. 꽃은 4월에 핀다. 수꽃은 전년 가지의 끝에 1개씩 달리고, 암꽃은 6개의 밑씨가 있다. 열매는 둥그스름하며 9~10월에 익는다. 한자로 측백(側柏)이라 쓴다. 예로부터 신선이 되는 나무로 귀하게 대접받았다. 흔히 송백(松柏)은 소나무를 백수의 으뜸으로 삼아'공(公)'이고, 측백나무는'백(伯)'이라 하여 소나무 다음 가는 작위로 비유되었다.

팽나무



느릅나무과의 교목이다. 높이 20m, 지름 1m 정도이다. 나무껍질이 회갈색이다. 잎은 어긋난다. 잎몸은 타원형이고 길이 4~11cm, 너비 3~5cm로서 잎가장자리의 위쪽에 톱니가 있다. 꽃은 잡성화이며 5월에 핀다. 열매는 둥글고 지름 7~8mm로서 10월에 황적색으로 익는다. 과육은 달고 먹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자나무 중 느티나무 다음으로 많이 심어져 있다. 옛 사람들은 마을의 큰 팽나무를 신목(神木)으로 여겨 숭배하기도 하였다.

푸조나무



느릅나무과의 교목이다. 높이 20m 정도이다. 나무껍질은 회갈색이다. 잎은 어긋난다. 잎몸은 달걀꼴 또는 타원형이며 털이 있고 거칠며 잎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암수한그루이다. 꽃은 5월에 녹색으로 피며, 수꽃은 가지의 아래쪽에 달리고, 암꽃은 위쪽에 달린다. 열매는 둥그스름하며 10월에 검은빛으로 익는다. 열매는 단맛이 있다. 공원수나 풍치수로 심으며 특히 바람에 잘 견디어 방풍림에 적당하다. 한반도에서는 주로 남쪽 지방에 자란다.

향나무



측백나무과의 교목이다. 높이 15~25m이다. 식물체는 향기를 낸다. 나무껍질은 회갈색 또는 적갈색이다. 잎은 흔히 어린 가지의 바늘잎과 묵은 가지의 비늘잎이 달린다. 암수딴그루이다. 꽃은 4월에 핀다. 수꽃은 가지 끝에 달리며 타원형이고, 암꽃은 가지 끝이나 잎겨드랑이에서 달리며 동그랗다. 열매는 다음해 10월에 익는다. 관상용, 약용, 향료용, 조각재 등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울릉도에 2,000년이 넘은 것이 있을 정도로 오래 산다.

회화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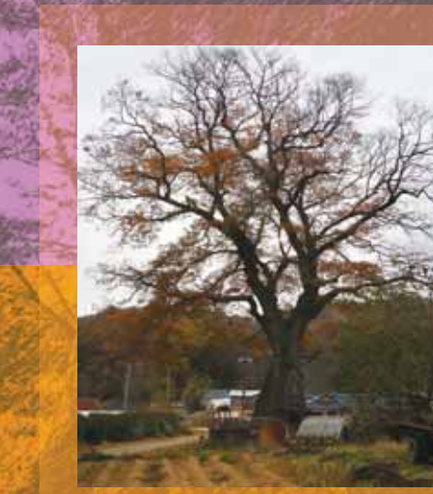
콩과의 교목이다. 높이는 25m에 달하고, 소지는 녹색이며 자르면 냄새가 난다. 잎몸은 어긋나고 15~40개의 작은잎으로 구성된 깃꼴겹잎이다. 꽃은 여름에 황백색으로 핀다. 열매는 잘록한 꼬투리이며, 길이 5~8cm이다. 중국 원산이며, 북경의 가로수로 많다. 괴목(槐木) 등으로 쓴다. 학자수(學者樹, Chinese Scholar Tree)라 하여 선비가 살던 집이나 무덤 주위에 심었다. 또한 집안의 평안과 잡귀신을 막기 위하여 대문 앞에 심기도 하였다.

후박나무



녹나무과의 교목이다. 높이 20m, 지름 1m 정도이다. 나무껍질은 회색 또는 회갈색이다. 잎은 어긋난다. 잎몸은 위쪽이 넓은 타원형이고 잎가장자리가 밋밋하다. 꽃은 5~6월에 황록색으로 피며, 잎겨드랑이에 무리로 달린다. 꽃덮이는 6개이다. 열매는 둥그스름하며 다음해 여름에 흑자색으로 익는다. 한반도의 남쪽 지방에 자란다. 흑비둘기가 둥지를 트는 나무이다. 나무껍질은 건위제, 치습제로 쓴다. 울릉도 호박엿을 만들 때에 넣기도 하였다.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서로257번길 느티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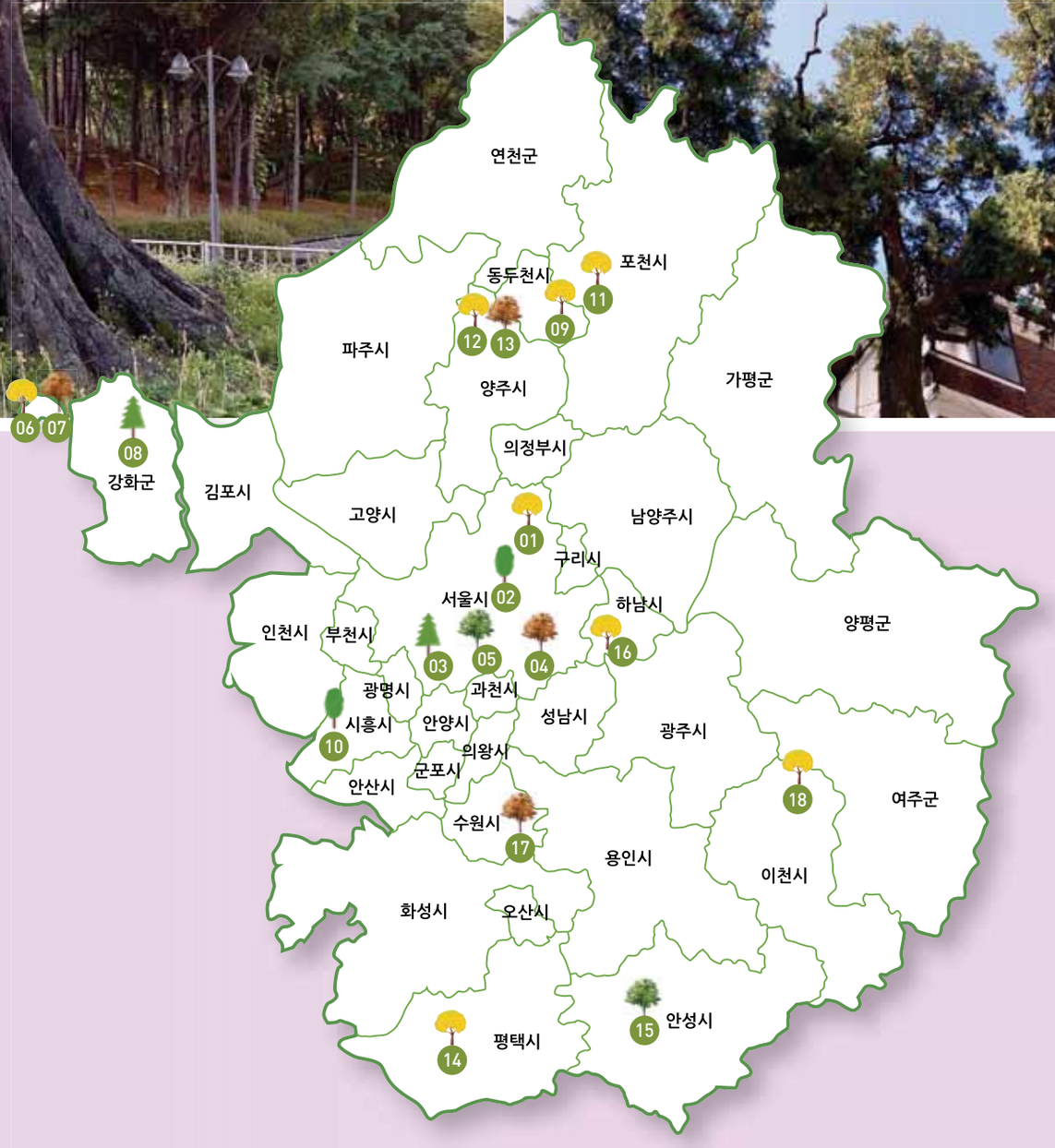




수도권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동두천시 / 시흥시 / 포천시 / 양주시 / 평택시 / 안성시 / 하남시 / 수원시 / 이천시

01	은행나무	서울	도봉구 방학동 546 ····· 22
02	회화나무	서울	중구 정동길 21 ····· 24
03	측백나무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3-175 ····· 26
04	느티나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산177 ····· 28
05	향나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48-7 ····· 30
06	은행나무	인천	강화군 교동면 무학리 542 ····· 32
07	느티나무	인천	강화군 교동면 교동서로257번길 42-1 ····· 34
08	소나무	인천	강화군 선원면 강화동로 924 ····· 36
09	은행나무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213-1 ····· 38
10	향나무	경기	시흥시 하중동 185-5 ····· 40
11	은행나무	경기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396 ····· 42
12	은행나무	경기	양주시 남면 삼육사로327번길109-14 ····· 44
13	느티나무	경기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482-13 ····· 46
14	은행나무	경기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264 ····· 48
15	음나무	경기	안성시 대덕면 죽촌길 173-2 ····· 50
16	은행나무	경기	하남시 항동 127-2 ····· 52
17	느티나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47-3 ····· 54
18	은행나무	경기	이천시 백사면 송말1리 435-4 ····· 56





은행나무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546
37° 39.649′ N / 127° 01.378′ E

- 지정번호 : 서10-1
- 지정연월일 : 1968.2.26
- 수고 : 25m
- 관리기관 : 서울시청
- 수령 : 830년
- 흉고둘레 : 10.7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은행나무는 1990년대 초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주민들은 1995년에 이 은행나무의 공동, 마른 가지 등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2007년에는 주변의 주거지 빌라 한 동을 철거하여 최소한의 생육 공간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지지대를 만들어 힘없는 가지를 군데군데 받쳤다. 병충해로 썩어 들어간 부분은 잘라 내었다.

현재 생육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의 제1호 보호수는 은행나무이다. 1968년 2월 26일에 지정되었다. 도봉구 방학동의 연산군 묘 옆에 있다. 서북쪽으로 원당 샘이 있고, 북쪽의 연산군 묘, 남쪽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 작은 공원에 있다. 이 은행나무는 수령 830년 정도이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노거수이고 보호수이다. 줄기 및 가지의 자람이 좋아서 수형이 아름답다.

이 은행나무는 큰 가지 아래에 여인의 젖꼭지 같기도 하고 남성의 성기 같기도 한 '유주(乳柱)'가 신기한 모양으로 돌출되어 있다. 유주를 내민 이 은행나무에 치성을 드리면 산모는 젖이 잘 돌고, 자식을 낳지 못한 여인은 아들딸을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때문에 종종 여인들이 이 은행나무를 찾아가 치성을 드린다.

이 은행나무는 6·25한국전쟁 등 지금에 이르는 질곡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 본 산증인이자 파수꾼이다. 그리고 신령스러운 나무라서 그런지 나라의 큰 일이 있거나 재난이 있을 때에 종종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기 1년 전인 1978년에도 불이 났다.

주변 사람들은 이 은행나무의 영험한 힘과 능력을 믿고, 해마다 정월대보름이 되면 이 은행나무 아래에서 제를 지낸다. 제례는 원당골(예전 방학동의 중심 마을)에 오래 전부터 살아온 파평 윤씨(坡平尹氏) 집안이 주축이 되어 동네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제사 풍습은 산업화가 진행되고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맥이 끊겼다가 1990년대 말이 되어 다시 되살아났다.

그러나 이제는 영물에 대한 제사의 성격에서 벗어나 어르신의 경로잔치를 겸한 동네잔치 성격으로 틀이 변하였다. 이 은행나무는 원당골의 터줏대감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듯이 현재도 방학동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은행나무는 수나무이다. 이 은행나무의 동남쪽 200m 지점에 암나무의 은행나무가 있었다. 먼저 고사한 암나무와 함께 '부부 은행나무'라 불렸다. 두 나무는 몇 백 년을 서로 마주보며 사랑을 속삭여 왔다. 암나무는 1990년대 초 인근의 아파트 건립 당시 벌목되었다.

태그 | 서울시, 방학동, 연산군묘, 노거수, 유주, 신목, 동제, 은행나무, 보호수









회화나무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
37° 34.014′ N / 126° 58.249′ E

- 지정번호 : 서2-3
- 지정연월일 : 1976.11.17
- 수고 : 17m
- 관리기관 : 서울시청
- 수령 : 520년
- 흉고둘레 : 5.2m

| 어떻게 살았을까?

정동은 19세기 후반 개화기에 외국의 공사관과 서구식 교육기관 등이 집중된 근대사의 중심지이었다. 이곳에 캐나다 대사관이 있다. 그리고 그 곁에 회화나무가 있다. 2003년 캐나다 대사관 신축 당시의 이 회화나무는 수세가 매우 약한 상태이었다. 이에 캐나다 대사관은 보호 방안을 수립하였다.
대사관은 건물 설계 외에도 도로 포장으로 인하여 손상된 뿌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여러 환경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회화나무의 가지와 껍질을 치료하는 등 많은 정성을 기울였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회화나무는 최고의 길상목으로 꼽는 나무이다. 회화나무를 집안에 심으면 가문이 번창하고 큰 학자 또는 큰 인물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들이 태어나면 회화나무를 심고, 선비나무로 부르는 이유가 그것이다. 회화나무는 매우 귀하고 신성하게 여겨 궁궐, 양반집, 서원, 절에 심었다. 서울시 중구 정동도 원래 궁터이었다.

캐나다 대사관이 위치한 정동의 길은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다. 특히 덕수궁길이 유명하다. 이 길은 덕수궁의 대한문에서 서대문 쪽으로 경향신문사까지 이어지는 꼬불꼬불한 곡선의 길이다. 문화와 역사가 서려있는 녹음의 길이다.

이 길에 오래 된 회화나무가 있다. 보호수이다. 이 회화나무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야기가 전한다.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이 회화나무 바로 옆에 캐나다 대사관이 있다. 2003년 캐나다 대사관을 신축할 당시에 이 회화나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건축 과정이 진행되었다.

캐나다 대사관 신축 당시의 이 회화나무는 죽기 직전이라 할 만큼 좋지 않았다. 당시의 대사관 건물은 죽어가는 회화나무였으니 베어내고 넓게 지을 수도 있었다. 대사관 건물은 이 회화나무의 뿌리 부분을 고려하여 나무가 사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이 회화나무의 뿌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대사관 건물을 뒤로 물러서 건축하였다. 대사관 건물은 굴곡진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이 회화나무는 세심한 관리 끝에 싱그러운 모습을 되찾아 대사관의 자랑이 되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2007년 12월에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재단이 주는 녹색 특별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정동의 역사와 오래도록 함께 한 회화나무는 캐나다의 산과 숲을 형상화한 대사관 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정동의 길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

태그 | 서울시, 정동, 정릉, 캐나다 대사관, 덕수궁길, 회화나무, 보호수









측백나무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3-175
37° 29.174′ N / 126° 52.991′ E

- 지정번호 : 서 17-2
- 지정연월일 : 2004.12.27
- 수고 : 15m
- 관리기관 : 서울시청
- 수령 : 511년
- 흉고둘레 : 2.5

| 어떻게 살았을까?

가리봉동의 측백나무는 예전에 2그루가 20m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한 그루는 8.15광복 전후 태풍이 닥쳤을 때에 자연의 힘을 버텨내지 못하고 꺾였다. 현재 남아 있는 측백나무는 다세대주택으로 둘러싸인 입지 환경 때문에 뿌리가 뻗어나갈 공간이 부족하고, 썩은 가지가 발생하였다. 또한 동네의 기원제를 지낼 장소의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해당기관에서는 측백나무의 생육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측백나무 정자마당'을 조성하였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서울에서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나무가 있다. 빨간 벽돌의 주택가 사이에서 사면초가 형상으로 갇혀 있는 나무이다. 이 나무는 너무 좁은 골목에 있어 생육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곳에 위치하고 있다.

가리봉동(2동)의 꽉 막힌 공간에서 하늘 높이 홀로 서 있는 측백나무이다. 수령 511년이 넘은 고목이다. 2004년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 측백나무는 구전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 측백나무에 큰 뱀이 살고 있다는 설과 나무를 훼손하면 재앙이 온다는 설이다. 서양에서 뱀은 '악마의 사자'라고 하여 멀리하지만 한반도에서는 수호신처럼 여기고 있다. 구렁이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용이 되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측백나무 속에 뱀이 살면서 나무와 마을을 지켜주는 것으로 믿고 있다. 지금은 좀처럼 이 측백나무 주변에서 뱀을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이 뱀이 자주 나타났다.

이 측백나무는 신목으로 받들었던 나무이다. 이곳에서 오래도록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릴 때에 이 측백나무 주변에서 소꿉친구들과 만나 재미있게 놀았다. 그러면서도 신성시한 나무라는 전설 때문에 무서워서 접근할 때 조심하였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가지를 함부로 꺾지도 않았다.

지금 이 측백나무는 가지를 훼손하면 재앙을 내릴 만큼의 풍성한 모습에다가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옹이 사이사이가 충전 처리로 메워져있다. 주택 사이의 좁은 길에 있어서 가지를 많이 쳐냈다.

주민들은 6.25한국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정월대보름 때에 이 측백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냈다. 마을을 보호하는 신목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측백나무제는 2003년부터 매년 10월에 가리봉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주민들의 무사안녕을 비는 기원제를 겸한 축제 형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기원함은 물론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주거나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제례행사 후에는 주민 한마음 축제도 진행된다.

태그 | 서울시, 가리봉동, 주택가, 뱀, 동신제, 신목, 측백나무, 보호수







느티나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67-2
37° 29.343′ N / 127° 02.461′ E

- 지정번호 : 서23-1
- 지정연월일 : 1968.7.3
- 수고 : 22m
- 관리기관 : 서울시청
- 수령 : 730년
- 흉고둘레 : 8.1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느티나무는 이곳에 아파트 단지가 본격적으로 들어설 무렵의 1990년대 중반에 '느티나무 농약 살포'로 유명세를 타기도 하였다.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아파트 분양 경쟁 때 사람들은 이 느티나무가 스스로 죽기를 바랐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느티나무가 스스로 죽을 기미가 안 보이자 누군가가 나무 주변에 구멍을 뚫어 독극물을 주사하였다는 웃기는 이야기이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누가 심었을까. 강남구 도곡동의 고목 느티나무는 조선시대 효자 김의신(金義信)의 집터로 알려졌으니 자생이 아니라 심었던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심은 자가 누구인지는 알 길이 없다. 조선시대에 이곳에 살았던 김의신은 40세 때 느티나무 밑에서 백일기도를 하다가 산신령의 말에 따라 자신의 허벅지 살을 잘라 고아드려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김의신을 기리기 위하여 느티나무 뒤쪽에 효자비를 세웠다. 이 느티나무는 수령 73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거수이다. 서울시 느티나무 중 가장 오래된 나무이다.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수형이 웅장하다.

이 느티나무는 조선시대 중엽부터 말죽거리 역마을 주민들이 매년 10월에 질병을 막고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동제(당산제)를 지내던 곳이다. 당집은 없고 느티나무가 수호신으로 남아 신목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양재역 부근의 말죽거리 역마을은 과거 법정동으로 역삼동에 소속되어 있던 마을이다. 남쪽지역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이거나 서울에서 지방으로 갈 때 거쳐 가는 곳이며, 이때에 이곳에서 '말죽을 쑤어 먹인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이 느티나무는 야트막한 매봉산 건너편의 아파트 단지 내의 어린이놀이터 옆에 위치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 느티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 층고를 낮추고, 느티나무의 생육을 위하여 주변의 공간을 확보하였다. 주변 일정범위에 철망의 울타리를 설치하여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하였다.

이 느티나무가 인접하고 있는 곳은 산지형 근린공원이 있다. 즉 도곡공원의 둘레에 작은 길이 나있어 아파트 주민들이 짧은 시간 산책을 할 수 있다. 주변의 정원도 꽃들과 함께 조각상들이 함께 장식되어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느티나무 앞은 보호수 안내판과 제사를 지내기 위한 상석이 놓여 있다. 현재 강남문화원과 역말전통문화보존회 주최로 역말도당제 및 잿마당제 등을 겸한 '역말문화축제'가 펼쳐지고 있다. 역말을 떠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옛 주민들도 도당제에 참여함으로써 역말 사람의 일체감을 확인하게 해준다.

태그 | 서울시, 도곡동, 말죽거리, 농약, 동제, 신목, 느티나무, 보호수







향나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48-7
37° 29.174′ N / 126° 52.991′ E

- 지정번호 : 서22-3
- 지정연월일 : 1968.7.3
- 수고 : 18m
- 관리기관 : 서울시청
- 수령 : 877년
- 흉고둘레 : 3.9m

| 어떻게 살았을까?

세월이 많이 흘렀다. 이 향나무는 수령 877년 이상이다. 나무 나이에 비하여 줄기가 굵지 않은 편이다. 키가 커서 무척 날씬하게 보인다.

그리고 향나무의 특징인 가지의 뒤틀림 현상도 그다지 보이지 않고 있다. 큰 가지는 하늘을 향하여 뻗고 있다.

이 향나무는 2010년 태풍 곤파스가 수도권을 강타했을 때에 가지 몇 개가 바람에 꺾이기도 하였으나 현재 생육상태가 양호하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서울에서 늘 푸르게 자라는 상록수 중 가장 오래 자라는 나무가 서초동에 있다. 향나무이다. 보호수이다. '마뉘꿀(마뉘골) 고개'를 지날 즈음에 있다. 이 고개는 강남고속터미널에서 대법원으로 고갯길을 넘어가다 국립중앙도서관 고갯길의 작은 돌에 글씨를 새겨 안내하고 있다. '옛날 반포동 계곡에 마뉘골이라는 마을이 있어서 불린 고개로 호랑이나 산적들이 자주 나타날 정도로 으슥한 곳이었다 함'이라 적혀 있다.

보호수의 향나무는 이곳의 바로 옆 서초사거리에 있다. 서초역이다. 이 향나무는 교차로 한가운데에 서서 밤낮으로 오가는 차량 행렬을 내려다보고 있다. 대부분 법원이나 검찰청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의 어두운 표정을 지켜보고 있다.

이 향나무는 고려 태조 왕건의 후손이 나라의 발전을 기원하기 위하여 심었다는 설화가 구전하고 있다. 고려시대부터 온갖 비바람을 견뎌내며 서초동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개국을 지켜봤으며, 1457년 단종이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강원도 영월로 귀양을 가던 모습도 지켜보았다. 단종은 이 향나무가 있는 곳을 지나 영월로 유배를 갔다. 이후 인근에 사는 백성(주민)들이 이 향나무를 수호신으로 삼아 각별히 관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예전에는 어느 동네의 수호신이며 신목이었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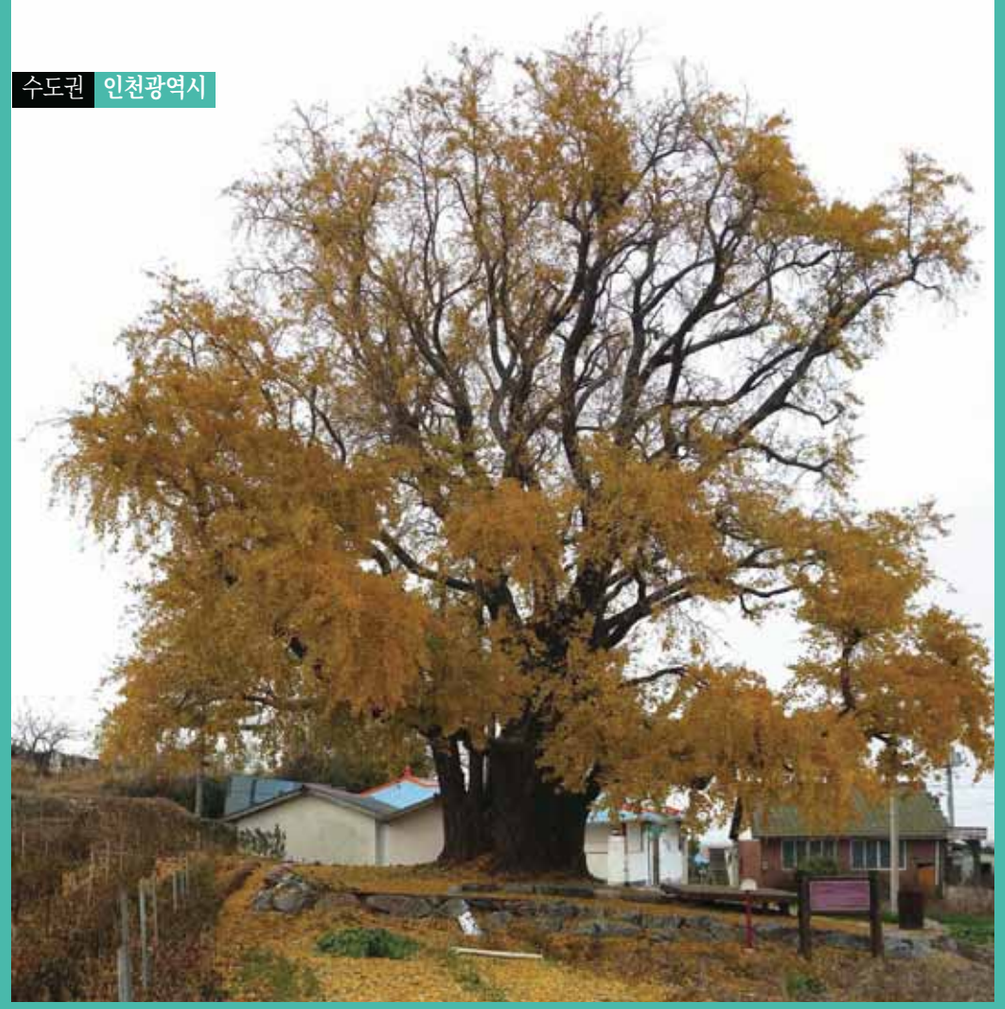
이 향나무가 있는 곳은 예전에 유명인의 집터이었다. 대법원이 들어서고 도로가 나면서 집이 철거되었으나 정원의 향나무는 오랜 논란 끝에 살려 두었다. 오래된 나무를 베면 화를 입는다는 이야기에다가 수령이 오래된 아름다운 나무를 보호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결국 살아남게 되었다.

그 후 이곳의 향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1968년 보호수로 지정된 이후 '서초동 향나무' 또는 '대법원앞 향나무' 등으로 부르다가 2009년 11월 시민공모를 통하여 '천년향'의 이름을 얻었다. 관계기관은 명명식까지 성대하게 치르는 등 대접을 해주었다. 매년 정기적으로 청소도 하고 영양분도 투입하고 있다.

태그 | 서울시, 서초동, 대법원, 서초사거리, 노거수, 향나무, 보호수







은행나무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무학리 542 37° 47.643′ N / 126° 13.954′ E	· 지정번호 : 4-9-6 · 지정연월일 : 1982.10.15 · 수고 : 25m · 관리기관 : 인천시청 · 수령 : 910년 · 흉고둘레 : 7.5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은행나무는 위풍당당한 풍모를 지녔다. 수령 910년이 넘은 은행나무이다.

이 은행나무는 암나무이다. 열매가 많이 열린다. 북한의 연백군에 있는 수나무의 꽃가루가 날아와 수정을 한다.

이 은행나무 밑에는 평상이 놓여있다. 마을 사람들의 쉼터인 셈이다. 주민들이 여름철 피서지로 이용하고 있다.

이곳에서 쉬고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북한의 연백군에서 피난한 어르신들이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강화도와 인접한 곳에 교동도가 있다. 교동도는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북한의 연백군과 마주보는 대한민국의 섬이다. 한반도에서 14번째로 큰 섬이다. 화개산(華盖山, 269m)이 가장 높은 산이다. 교동도는 강화도 창후리선착장에서 월선포선착장까지 15분 동안 배를 타고 다녔다. 물때가 나쁜 날은 수심문제로 멀리 돌아야 해서 1시간이 걸리기도 하였다. 2014년 교동대교가 개통된 후 출입이 한결 쉬어졌다. 그래도 최전방의 섬인지라 검문소에서 외부인의 출입 확인을 거치고 있다.

이웃 강화도와 석모도가 간척으로 현재의 해안선을 가졌듯이 교동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화개산, 수정산, 율두산이 만드는 삼각점 사이의 갯벌과 바다를 메워서 넓은 농경지를 얻었다. 교동평야를 만들었던 것이다. 교동평야의 끝자락에 바닷가와 인접한 난정저수지가 있고, 그 인근 마을에 고목의 은행나무가 우뚝 서 있다. 보호수이다.

이 은행나무는 교동면 무학리에 있다. 무학리는 고려 중엽에 무산서리라 불렀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은행나무를 '무산서리 천년수'라 부르기도 한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은행나무는 마을의 한 가운데에 버티고 있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잣집의 뒤쪽에 은행나무가 있었다. 어느 날 부잣집은 화재가 났다. 그때 은행나무도 함께 불에 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은행나무는 줄기 속까지 불에 타지 않고 겉의 잎가지만 불에 타서 그런지 이듬해 봄에 새가지가 나오고 잎이 돋아나서 자랐다. 이 나무가 현재 무학리의 천년수 은행나무이다.

지금도 은행나무 주변을 파면 숯과 부잣집의 기와조각이 나온다. 그리고 은행나무에서 놀다가 떨어진 사람은 떨어진 곳을 파내었을 때에 나오는 숯을 달여서 약으로 이용하였다. 아픈 곳이 신통하게 나았다. 이 은행나무는 신목으로 숭배되고 있다. 마을의 동제를 지내지 않지만 마을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정월대보름에 치성을 드리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무속인들이 종종 찾아와 푸닥거리를 하거나 신내림을 받고 간다.

태그 | 강화군, 교동도, 무학리, 난정저수지, 천년수, 은행나무, 보호수







느티나무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서로257번길 42-1 37° 46.256′ N / 126° 15.180′ E	· 지정번호 : 4-9-26 · 지정연월일 : 1982.10.15 · 수고 : 27m · 관리기관 : 인천시청 · 수령 : 410년 · 흉고둘레 : 9.3m

| 어떻게 살았을까?

강화 양갑리의 느티나무는 인천 지역에서 가장 굵은 나무이다. 흉고둘레 9.3m이다. 410년 이상의 세월을 굳건히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1919년 태풍으로 큰 가지 몇 개가 잘렸으나 그 후 잘 자라난 고목이다.

이 느티나무와 1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비슷한 모양의 또 다른 느티나무가 자라고 있다. 이것 역시 커다랗게 자라고 있어 볼만하지만 수령 및 기세가 보호수의 느티나무보다 못하다. 자식처럼 후계목으로 자라는 형상이다.

| 어떻게 찾아갈까?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서로257번길 42-1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어릴 적에 둥구나무에서 놀던 추억이 그리운 사람들이 많다. 둥구나무는 무더운 한여름에 시원한 그늘과 휴식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곳을 찾았다. 아이들은 낮잠 자다 말고 그냥 둥구나무로 갔다. 친구들 만나는 장소처럼 그냥 보고 싶어 둥구나무로 갔다. 심심하여 할 일이 없어도 그냥 둥구나무를 찾아 갔다. 둥구나무 아래는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며 노는 곳이었다. 아줌마들은 이런저런 동네 사람이야기를 늘어놓았던 곳이 둥구나무 아래이었다. 땅따먹기, 공기놀이, 고누놀이를 하며 놀았던 곳이다.

교동도 양갑리에도 둥구나무가 있다. 마을 사람들이 '해나무'라 부르는 커다란 느티나무이다. 보호수이다.

이 느티나무는 단옷날에 처녀 총각들이 동아줄을 꼬아 그네를 만들어 놀았던 나무이다. 다른 동네 사람들도 지나다 그네를 뛰었다. 젊은 아줌마들이 타는 쌍그네는 그야말로 그네뛰기의 최고 멋이었다. 높이 올라 느티나무 잎을 입으로 따서 물고 내려오는 그네 기술은 최고의 멋이었다.





이 느티나무는 마을의 당산목이기도 하였다. 나뭇가지 하나 마음대로 자르는 것을 두려워하였던 신목이었다. 또한 이 느티나무가 자라는 곳은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양갑리에서 산세나 지세로 보아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부자가 되는 최고의 명당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갑리 마을에는 부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다.

이 느티나무는 만세운동이 일어나던 1919년(기미년) 여름에 가지가 꺾어지기도 하였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당시 태풍으로 직경 50cm 정도의 몇 가지가 잘렸다. 그 후 가지가 자라나 오늘날의 모습으로 변하였다.

이 느티나무는 교동도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말없이 묵묵히 지켜보았을 전설의 느티나무이다. 또한 봄에 나뭇잎이 일제히 피었다가 가을에 잎이 일제히 떨어지면 풍년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그해 농사가 흉작이 든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영농기술이 발달하면서 민간에서 이어지는 전통지식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구전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것이다.

태그 | 강화군, 양갑리, 놀이터, 둥구나무, 당산목, 풍수지리, 느티나무, 보호수



반송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강화동로 924
37° 42.864′ N / 126° 28.809′ E

- 지정번호 : 4-9-64
- 지정연월일 : 2001.8.6
- 수고 : 10m
- 관리기관 : 인천시청
- 수령 : 200년
- 흉고둘레 : 2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반송은 전체적으로 나무모양이 둥그스름하게 퍼져 있다.
수령이 200년 정도로 기록되었다. 수령은 이 나무가 있는 선원초등학교의 연혁보다 2배 이상이다.
시간의 개념이 이상하지만 기념식수 때 이미 오랫동안 자란 것을 심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수관은 너비가 15~20m이다. 여러 개의 굵은 줄기가 밑동에서 갈라져 넓게 퍼져 있다.
생육이 양호하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소나무가 왜 이럴까. 줄기가 위로 곧게 벋은 것이 있는가 하면 구불구불한 것도 있다. 줄기가 아래로 처진 것도 소나무도 있고, 꼬인 것도 있다. 수형이 둥그스름하게 모양을 갖춘 종류도 있다. 밑동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소나무도 있다. 분류가 참으로 어렵다. 밑동에서 줄기가 갈라지는 소나무 종류도 또 다시 세분하고 있다. 여러 줄기가 지표면 가까이에서부터 갈라지면 다행송(多幸松)이라 하고, 지표면 위쪽 줄기에서 갈라지면 반송(盤松)으로 갈라본다. 비슷한 말로 다지송(多枝松), 천지송(千枝松), 만지송(萬枝松), 조선다행송 등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아무렇든 강화도에 특이한 소나무 종류가 있다. 아름드리의 줄기를 가진 것이 아니지만 오래도록 살고 있는 소나무 종류이다. 선원면 냉정리의 선원초등학교에 있다.

선원초등학교는 1922년 선원보통학교 설립인가를 받고, 1923년 4월 2일 개교한 학교이다. 이 학교의 교목이 '천지송'이다. 건물의 정중앙에 심어진 것이다. 이 천지송은 이 학교의 상징목이다. 이제는 학교 전통만큼이나 학생과 교직원, 지역 주민들의 큰 자랑거리가 된 나무이다. 이 천지송은 선원초등학교 1회와 2회 졸업생이 기념식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 이 천지송은 어떤 나무일까. 모양이 특별난 소나무 종류이다. 줄기가 지표면 가까이에서 갈라지므로 다행송이라 해야 하지만 흔히 반송이라 부르고 있다. 여기에서는 반송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 반송은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이 반송은 200년의 세월동안 잘 자라고 있다. 교정에서도 오래도록 살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6년 동안 함께 하였던 나무이다. 아이들은 술래잡기를 하며 이 반송 주위를 여러 번 돌아다녔을 것이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뭐가 그리 재미가 있는지 열심히 뛰어 다녔을 것이다.

어렸을 때의 학교 운동장이 너무 크게 느껴졌던 것처럼 어린 학생들은 이 반송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크고 위용스럽게 보였을 것인가. 어느 장난꾸러기 학생은 다칠까봐 훈계하는 선생님의 말도 듣지 않고 이 반송에 올라가 놀기도 하였을 것이다.

태그 | 강화도, 냉정리, 선원초등학교, 천지송, 반송, 다행송, 소나무, 보호수







은행나무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213-5 37° 53.243′ N / 127° 04.042′ E	· 지정번호 : 동두천-7 · 지정연월일 : 1982.10.15 · 수고 : 20m · 관리기관 : 경기도청 · 수령 : 1,000년 · 흉고둘레 : 6.5m

| 어떻게 살았을까?

지행동의 은행나무는 수령이 1,000년 정도이다. 이 은행나무를 사진으로 남기려고 하니 주변 아파트단지에다 한창 건축 중인 건물이 전체 배경을 어지럽게 하였다.
주변 배경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2016년은 노란빛의 단풍시기가 인접한 다른 지역의 은행나무보다 한참이나 늦었다. 아름다운 자태를 일찍 뽐내지 않았다. 마치 주변에 들어서는 아파트단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농촌 마을의 풍경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뒷동산이 있고 사방이 트인 시골 풍경이었으나 지금은 아파트단지가 높게 들어선 곳이 되었다.

이곳은 천년수의 은행나무가 있는 동두천시 지행동이다. 이 은행나무 바로 옆의 공터는 현재 새로운 아파트단지 공사로 분주하다.

오래 살고 있는 이 은행나무는 조선시대 세조 때의 어유소(魚有沼, 1434~1489) 장군이 어릴 때에 이 은행나무 곁에 단을 쌓고, 그 곳에서 학문과 무예를 닦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래서 어유소 장군의 후손들은 이 나무를 조상의 얼을 기억할 수 있는 증거로 삼아 오래도록 귀중하게 지켜왔다.

이 은행나무는 매우 영험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은행나무는 조선의 고종 인산일(因山日)에 큰 가지를 스스로 내려놓으면서 온 나라에 찾아든 슬픔을 함께 슬퍼하면서 백성의 안녕을 걱정하였다. 6·25한국전쟁 때에는 큰 가지가 저절로 부러지는 등 국난을 미리 예견한 것으로 전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은행나무를 신목으로 여기고 있다. 사람들은 이 은행나무 아래에서 좋지 않은 일을 하지 않으며, 남을 비방하지도 않는다. 마을에서는 이 은행나무 곁에서 수신제(樹神祭)를 지낸다. 수신제의 이름은 지행동 '행단제'이다.

행단제는 한 해의 시작이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행해진다. 해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마을을 환하게 밝히는 10월 상달 초하루에 나무 앞에 모여 굿을 올리는 것이다. 10월은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계절이기도 하고, 농사일로 살림살이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한해를 잘 마무리하는 시기인 동시에 갈무리한 알곡을 제물로 올릴 수 있는 시기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행단제는 이제 지행동 마을을 넘어 동두천시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대표적 마을 축제가 되었다. 그래서 행단제는 지역의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두천시 관계자, 동두천을 대표하는 문화단체인, 시민들이 참여한다.

태그 | 동두천시, 지행동, 어유소, 수신제, 행단제, 은행나무, 보호수







향나무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826-2
37° 23.983′ N / 126° 48.054′ E

- 지정번호 : 시흥-6
- 지정연월일 : 1982.10.8
- 수고 : 12m
- 관리기관 : 경기도청
- 수령 : 1,000년
- 흉고둘레 : 3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향나무는 1990년대 후반 아파트가 들어설 때에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었던 적이 있다. 이 향나무는 당시에 어느 개인주택의 마당 끝에 자라고 있었다. 아파트 시공회사는 이 향나무를 뽑아내야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지켜 준 나무를 없앨 수 없다면서 반대하였다. 그래서 이 향나무는 아파트 공사 중에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공사가 마무리 된 후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결국 이 향나무가 마을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 향나무를 지켜준 셈이 되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시흥시 하중동의 관곡마을에 고목의 향나무가 있다. 보호수의 향나무이다. 보호면적은 30㎡이다. 이 향나무는 수령이 1,000년이라 기록하고 있다. 나무 나이에 비하여 외부형태가 곱게 보였지만 믿을 수밖에 없다. 오래된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생육이 양호하다. 약간 휘어진 굵은 줄기와 옆으로 뻗은 가지의 형태가 아름답다.

이 향나무는 이 마을이 생길 때에 식재한 나무라 하여 신성시하고 있다. 마을을 지켜주는 신목으로 생각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음력 정월에 길일을 택해서 이 향나무 앞에서 마을의 안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를 지내고 있다.

이 향나무는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보다 도심이라 하는 편이 좋겠다. 아파트가 즐비한 곳의 도로 옆에 작은 공원이 마련되었고, 그 공원의 동산에 우뚝 솟아 있다.

일설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때의 이 향나무와 관련한 꿈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열병(장질부사)으로 고생하거나 목숨을 잃어가고 있을 때였다. 이 마을 출신의 권씨 성을 가진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마을을 향하여 몰려오는 꿈이었다. 권씨는 열병을 가진 아이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마을 전체에 병원균이 돌아 큰 일이 날 것 같았다.

그때 그는 아이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는 아이들이 잘 볼 수 있는 동산 위의 향나무에 올라가서 호통을 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향나무에 걸터앉아 호통과 함께 지팡이를 흔들며 아이들의 접근을 막았다. 그랬더니 그 많은 아이들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후 며칠이 지나자 열병이 멈추고 마을이 평온해졌다.

한편 인근에는 향토유적으로 알려진 관곡지(官谷池)가 있다. 이 연못은 조선시대 강희맹이 세조9년 명나라에 갔다가 올 때 가져온 연꽃 씨를 처음으로 심은 곳이다.

태그 | 시흥시, 하중동, 관곡마을, 열병, 꿈, 신목, 향나무, 보호수









은행나무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396
37° 56.414′ N / 126° 07.267′ E

- 지정번호 : 포천-6
- 지정연월일 : 1982.10.15
- 수고 : 25m
- 관리기관 : 경기도청
- 수령 : 950년
- 흉고둘레 : 7.2m

| 어떻게 살았을까?

포천시는 2001년 7월 7일에 이 은행나무의 주변을 정리하는 공사를 완료하고, 국가와 마을의 안녕과 신령스러운 은행나무의 만수를 기원하며 기념석을 세웠다. 2003년에는 태풍에 일부 가지가 부러져 아쉬움을 남겼다.

2004년에는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2013년에는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와 강풍으로 아래쪽 가지가 부러진 적도 있었다. 이 은행나무 바로 옆은 조선 말기 이 고장의 효자인 김기병 효자정문이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지동마을의 은행나무는 수령이 950년 정도이다. 이 은행나무는 금동리의 은행나무 보호수 몇 그루 중에서 천년수로 알려진 나무이다. 금동리의 아랫마을 입구에 있다. 수관이 부채꼴의 모양으로 넓게 퍼졌으며, 잎이 무성하여 생육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다.

이 은행나무 주변은 찾아오는 방문객을 위하여 안내판, 안내석, 벤치를 설치하였으며, 나무 울타리를 만들어 보호하고 있다. 인근에는 야생화 학습체험장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수세가 왕성하고 나무갓이 넓게 퍼져 있어 생육 생태가 좋은 편이다. 나머지 은행나무 보호수 3그루는 윗마을에 있다.

이 보호수의 은행나무는 태조 이성계(李成桂)가 왕위에 있을 때에 이 나무를 본 후 관심을 가졌다. 이성계는 어느 날 이 마을로 내려와 이 은행나무 밑에서 잣죽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성계가 왕방산 사냥 길에서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를 보고 말을 몰아 이곳에 왔다. 이성계는 이 나무 아래의 신라관에서 잣죽을 먹었는데, 그 후로 포천 잣이 임금님 진상품이 되었다.

이 은행나무는 1945년 광복과 6·25한국전쟁과 같이 나라의 경사 및 변고가 있을 때에 소리를 내어 울었다는 구전이 있다. 8.15광복 이전까지는 나무 앞에서 매년 태평성대를 기원하거나 수호신으로 여겨 대동제를 올리기도 하였다. 최근에도 이 나무를 숭배하여 찾는 사람이 있다. 간혹 외부사람 또는 무당이 찾아와 숭배하기도 한다.

이 은행나무는 1927년 무렵에 소유자가 나무를 베어 없애려고 하자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목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려 지금까지 마을의 수호신이자 정자목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은행나무 종자는 한방에서 진해, 강장, 보익의 효능을 지닌다고 하여 약재로 쓰고, 뿌리는 익기(益氣)를 필요로 하거나 허약을 보할 때에 약재로 사용한다. 잎에서 추출되는 징코민(Ginkomin) 성분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널리 이용되고 있다.

태그 | 포천시, 금동리, 이성계, 신목, 숭배, 은행나무, 보호수









은행나무

경기도 양주시 남면 삼육사로327번길 109-14
37° 54.491′ N / 126° 59.325′ E

- 지정번호 : 양주-4
- 지정연월일 : 1982.10.15
- 수고 : 16.5m
- 관리기관 : 경기도청
- 수령 : 750년
- 흉고둘레 : 6.6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은행나무는 1960년대에 벼락을 맞아 큰 가지가 부러졌다. 그리고 1994년 외과 수술을 하면서 충해를 받은 큰 가지를 많이 잘라 내었다. 그러므로 이 은행나무는 위쪽 줄기가 자연스럽지 않은 모양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생육이 양호한 편이며, 근원부에서 잔가지와 새잎이 나오고 있다. 그루터기에서 나온 것이 별개의 그루처럼 자라고 있다.

이 자리에서 750년 이상을 살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양주시 남면 한산리는 은행나무 7그루가 고목으로 자라고 있다. 수령은 100년에서 750년 정도이다. 한 마을에 단일종의 여러 그루가 노거수로 자라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래서 한산리는 은행나무를 상징목으로 삼고 있다.

한산리의 은행나무들은 나무가 위치한 주민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보존이 잘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부분 마을 어귀에서 정자목 또는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목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산리의 은행나무 고목 중 가장 오래살고 있는 은행나무는 수령이 750년 정도이다. 열매가 달리지 않는 수나무이다. 지상부로부터 2.5m 부위에서 11개의 굵은 가지로 나뉘어 자란다. 줄기 밑동이 약간 비스듬하다. 굵고 높이 자라고 있지만 생육이 좋지 않은 가지를 군데군데 잘라 놓은 곳이 많다. 수세를 강하게 하기 위한 조치처럼 보였다. 그래서인지 나뭇가지들이 역동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은행나무는 전하는 이야기가 그럴 듯하다. 마을 사람들은 실제의 이야기라 하고 있다. 이 마을에 가난하지만 어질고 착한 송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다. 어느 날 밤이었다. 송씨는 도깨비가 은행나무에서 나타나 날마다 쌀가마를 갖다 주는 꿈을 꾸었다.

송씨는 아무래도 꿈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서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아껴둔 쌀로 떡을 하여 은행나무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송씨네 집은 마을에 큰 변고가 생겨도 탈이 없었고, 차츰 재산이 늘어서 큰 부자가 되었다.

이 은행나무는 마을 안쪽의 도로 옆에 자라고 있다. 1960년부터 매년 제사를 지내던 송씨는 부자가 되어 마을을 떠났고, 현재 그 송씨와 친척지간의 다른 송씨가 이어받아 은행나무의 숭배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은행나무 보호수가 있는 한산리는 양주시 남면에서 북동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땅이름은 마을이 한가한 뱀의 꼬리 모양(한사미)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한산리 대부분의 지역을 은흥쟁이(은행정)로 불렀으며, 지금도 500년 이상 묵은 은행나무가 여러 그루가 자라고 있다.

태그 | 양주시, 한산리, 상징목, 부자, 신목, 은행나무, 보호수







느티나무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482-13
37° 54.067′ N / 126° 58.665′ E

- 지정번호 : 양주-2
- 지정연월일 : 1982.10.15
- 수고 : 16m
- 관리기관 : 경기도청
- 수령 : 1,000년
- 흉고둘레 : 4.8m, 3.7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느티나무는 1,000년 이상을 살고 있다. 이 느티나무와 100m 거리를 두고 떨어진 곳에는 또 다른 고목의 느티나무가 자라고 있다.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은 이 느티나무는 생육이 왕성하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였다.

수령이 100년 정도이지만 수형의 균형이 잡혀 수려하다. 높이 15m, 흉고둘레 4.5m, 수관폭 20m 정도이다. 원줄기 2m 높이에서 10여개의 줄기 가지가 갈라져 자라고 있다.

신산리 마을을 바라보며 후계목처럼 자라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양주시 남면 신산리는 남면의 중앙에 위치한 마을이다. 동쪽으로 한산리 및 입암리, 서쪽으로 매곡리, 남쪽으로 구암리, 북쪽으로 신암리와 접해 있다. 현재 신산리는 마을의 중심부를 감싸고 있는 군부대와 적성과 동두천방향으로 통하는 편리한 교통 때문에 유동인구가 대단히 많다. 양주군에서 자연친화적인 모습을 잃지 않고 있는 몇 안 되는 마을이다.

이러한 신산리에 고목의 느티나무가 자라고 있다. 이 느티나무는 수령이 1,000년 이상이다. 양주시 남면사무소 뒤쪽의 사리산(舍利山, 425.7m) 자락에 위치한다. 즉 사리산 끝자락 아래 지촌말(윗말)의 이준(李準, 1545~1624) 사당(祠堂) 뒤에 위치한다. 1993년에 외과 수술을 받았다.

이 느티나무는 2개의 나무처럼 근원부터 2개의 굵은 줄기로 갈라져 각각 독립적으로 자라고 있다. 전체적으로 서로 휘감기듯 얽혀 있으며, 얽힌 하부는 양쪽의 주간 사이에 공간이 생겼다가 지상으로부터 2m 부위에서 다시 합쳐진 형상이다. 괴상하게 생긴 모양이다.

이 느티나무는 양주시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이며, 전주 이씨 선조가 심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유적지의 근처에서 오래 살고 있는 정도에 비하여 전하는 구전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 느티나무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떨어진 곳에는 또 다른 느티나무가 자란다. 또한 2곳의 느티나무 중간에 고목의 소나무가 있다. 이 소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각각의 느티나무와 50m 거리에 있다. 즉 고목의 보호수 느티나무, 보호수 소나무, 느티나무 순서로 위치하고 있다. 원줄기 위쪽에서 구불구불 굽어서 퍼진 소나무의 형상이 특이하다. 이 소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를 받고 있다.

이곳의 느티나무와 소나무의 고목들은 양주시 남면 신산리 마을을 굽어보며 자라고 있으며, 마을의 상징처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한편 느티나무 보호수는 이곳 이외에 신산5리 마을회관 뒤편 광수원이라는 마을 입구에도 있다. 본래 보호수로 지정되었던 느티나무는 2002년 화재로 불타서 없어지고, 그 옆에서 후계목처럼 자라던 느티나무가 주민들의 휴식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태그 | 양주시, 신산리, 명목, 전주 이씨, 느티나무, 보호수









은행나무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264
36° 59.631′ N / 126° 54.701′ E

- 지정번호 : 평택-37
- 지정연월일 : 1982.10.15
- 수고 : 12m
- 관리기관 : 경기도청
- 수령 : 850년
- 흉고둘레 : 8.5m

| 어떻게 살았을까?

학현리의 은행나무는 평택시의 보호수 중 가장 오래된 나무이다. 이밖에도 평택시에는 고목의 은행나무가 몇 그루 더 있다. 서탄면 사리의 은행나무는 나무에 열매가 열면 전쟁 등의 난리가 난다고 전해지는데, 6·25한국전쟁이 나던 해에 열매가 많이 달렸다. 진위면 동천리의 은행나무는 가을에 단풍이 들 때 하루 이틀 사이에 나무 전체가 노랗게 물들면 다음해에 풍년이 들고, 단풍드는 기간이 길면 가뭄이나 천재지변으로 흉년이 든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오래된 고목은 마을을 지키는 신령한 존재로 인식하였다. 신성시하였다. 마을의 당산목은 힘든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제일 먼저 알리는 그런 마을의 터줏대감이자 신앙적인 존재였다. 옛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견디고도 살아남은 고목에 대하여 겸허하게 머리를 조아릴 줄 알았다.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의 은행나무는 평택시의 보호수 중 가장 오래된 나무이다. 수령이 850년 정도의 커다란 고목이다. 마을의 당산목으로 신성시하고 있다.

이 은행나무는 식재 내력이 구전되고 있다. 정치와 경제가 좋지 않은 고려시대 명종 때의 일이다. 젊은 스님이 학고개(하오개)를 지나다가 홀로 사는 과부의 집에 들러 하룻밤 유숙을 청하였다. 여인은 단칸방이었지만 스님을 박대할 수 없어 치마로 칸막이를 하고는 스님의 요청을 승낙하였다. 젊은 과부와 하룻밤을 묵게 된 스님은 끓어 오르는 욕정을 참지 못하고 잠든 여인을 품어보기 위하여 몸에 손을 대었다. 과부는 스님을 받아주지 않았다. 스님은 결국 과부를 품어보지 못하고 과부로부터 크게 꾸지람만 들었다.

스님은 그 후 부끄러움에 학고개의 우물가에서 목욕재계하고 수행을 하였으며, 이 마을에 정착하기 위하여 절을 짓는 등 온갖 고행을 하다가 득도하지 못하고 생을 마쳤다. 마을 사람들은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스님을 측은히 여겼다. 그리고 스님이 죽은 자리에 은행나무를 심어주었는데, 이 은행나무가 현재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다.

어느 구전설화가 그렇듯이 전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구조가 스님과 정절을 지키는 여성을 등장시킨 것으로 봐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구조에 조선후기의 사회인식이 첨삭된 것으로 보인다.

각종 약재로 쓰는 은행나무는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릴 만큼 중생대 쥐라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생존하는 가장 오래된 식물 중 하나이다. 오래 살며 수형이 크고 깨끗함은 물론 가을단풍이 아름답고 병해충도 거의 없다. 그래서 은행나무는 정자목, 풍치수, 가로수로 많이 심었다.

태그 | 평택시, 학현리, 스님, 과부, 신목, 은행나무, 보호수







음나무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죽촌길 173-2
36° 59.494′ N / 127° 13.457′ E

- 지정번호 : 안성-34
- 지정연월일 : 1999.9.1
- 수고 : 15m
- 관리기관 : 경기도청
- 수령 : 700년
- 흉고둘레 : 4m

| 어떻게 살았을까?

밭들마을의 보호수 음나무가 있는 곳은 '미륵'이 있다. 크기가 2m 정도이다. 공식 명칭은 '죽리 석조여래입상'이며, 문화재 자료 제108호로 보호되고 있다. 안내판 기록은 고려시대에 큰 장마나 전염병 등 마을의 우환을 없애기 위해 조성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 미륵의 역할을 '음나무의 수호신'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음나무와 미륵이 있는 주변은 어르신의 쉼터인 정자가 있고, 그 앞에 아이들의 놀이터가 있다. 이곳은 마을공동체의 공간적 역할을 하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음나무는 예로부터 도깨비나 마귀, 액운을 쫓는 나무라고 하여 신성시 여겼다. 줄기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벽사의 뜻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흔히 '엄나무'라 부르고 있다. 가시가 있어 무섭기 때문에 붙여진 별칭이다. 이 나무로 만든 6각형의 노리개는 '음'이라 하였고, 이 노리개를 어린아이에게 채워 악귀를 물리치는데 사용하였다.

안성시 대덕면 죽리의 밭들마을(외평마을)에 커다란 음나무가 우뚝 서 있다. 수령이 700여 년이나 되는 고목이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 풍파에 시달리다 보니 수형이 많이 상하였다. 외과수술 흔적이 남아 있다. 보호수이다.

안성시지(2012년)에 따르면 이곳의 밭들마을 주민들은 이 음나무가 잡귀를 쫓아내고 고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이 나무 밑에서 굿이 펼쳐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이 음나무의 가시가 있는 가지를 문지방에 걸어놓으면 액운을 막아주기 때문에 신성시하고 있다. 땔감이 귀한 시절에도 엄나무 가지는 절대로 꺾지도 않았고, 땔감으로 이용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만지면 만진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만지지도 않았다. 안성문화유적 분포지도(2005년)에는 이 음나무를 '당산목'으로 기록하였다. 마을 지킴이로서 신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 모셔지는 신격화된 나무였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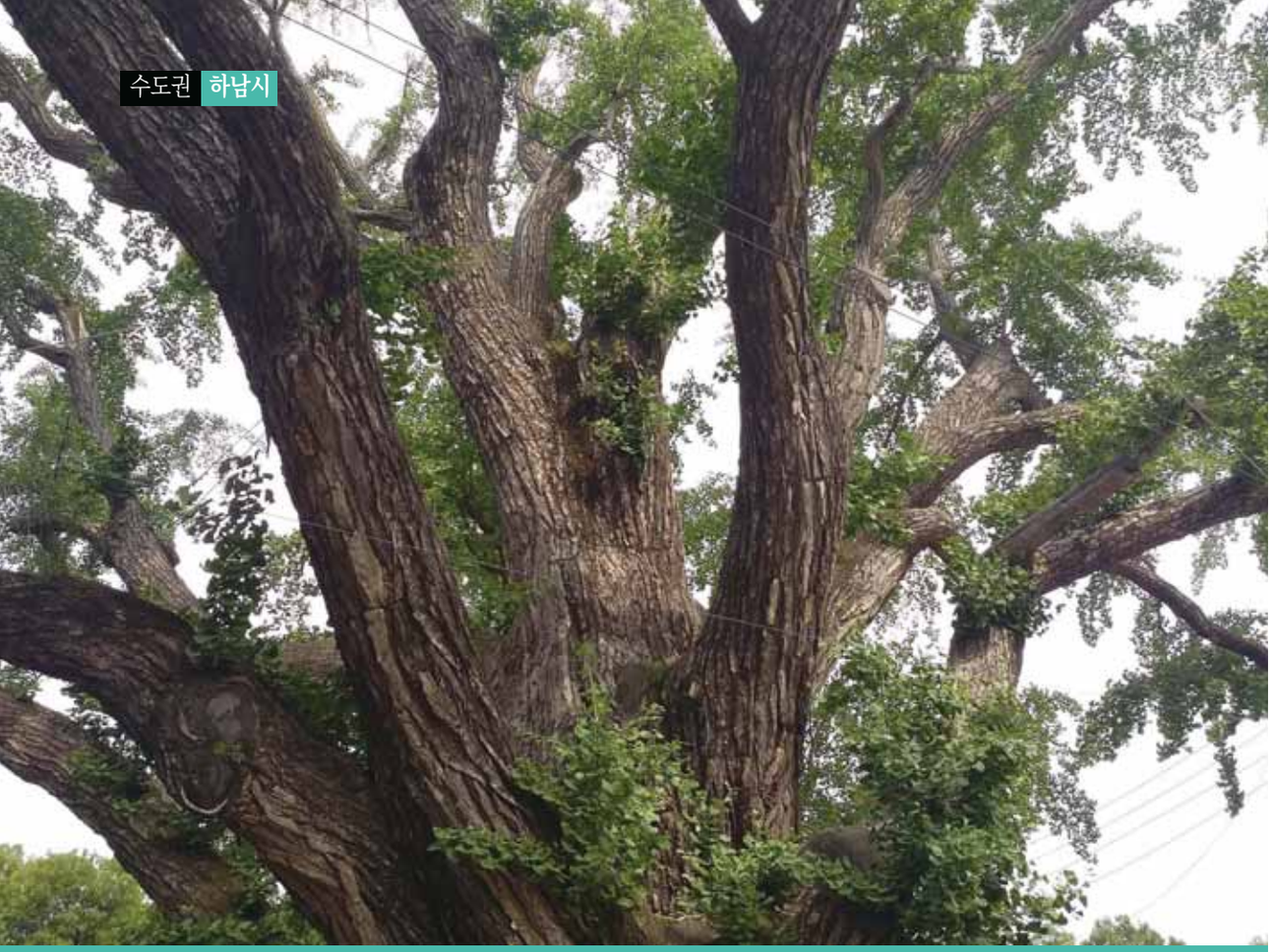
이 음나무에 대해서는 주민들 사이에서 여러 갈래의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천지개벽 때에 떠 내려와 정착하였다는 이야기 등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커다란 음나무가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양면 용두리(소머리)에도 있고, 죽리 당촌마을에도 있었다.

특이한 점은 이들 음나무 사이의 거리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들 음나무에 새끼줄을 걸고 주위를 돌면서 병이 낫기를 기도한 점도 3곳 모두 비슷하다. 마을 사람들은 3그루의 음나무가 안성의 재물이 외부로 못 나가게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안성으로 들어오는 각종 질병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태그 | 안성시, 죽리, 가시, 벽사, 미륵, 신목, 음나무, 보호수







은행나무

경기도 하남시 항동 127-2
37° 30.790′ N / 127° 11.756′ E

- 지정번호 : 하남-4
- 지정연월일 : 1982.10.15
- 수고 : 30m
- 관리기관 : 경기도청
- 수령 : 870년
- 흉고둘레 : 9.4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은행나무는 수령이 870년 이상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은행나무의 수령을 1,000년 이상으로 여기고 있다. 이 은행나무는 하남시 항동의 '나무길마을'에 있다.
이 은행나무는 소유주가 개인이지만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 은행나무는 매년 열매를 맺는 암나무이다.
매우 안정적인 수형을 유지하고 있다. 균형을 이루고 있다.
줄기는 굴곡이 심하게 골이 져 자라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하남시 남쪽에 항동이 있다. 항동은 북쪽을 제외한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였다. 동쪽은 객산(客山), 서쪽은 금암산(金巖山), 남쪽은 청량산(淸凉山)이다. 남한산성으로 오르는 길목에 있어 '목 항(吭)' 자를 쓰다가 항동(吭洞)으로 고쳐 부르는 곳이란다. 나무길마을, 왜골마을(오야곡, 와야곡마을), 용골마을, 황골마을 등의 자연부락이 금암산 아래쪽에 모여 있다.

나무길마을은 땔나무로 생계를 유지하던 마을의 뜻이 있으며, 나무길마을과 관련한 민속놀이 '초동목부싸움'이 알려져 있다. 이 놀이는 어린이들이 나무하러 가면서 서로 길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움하는 것에서 유래하는데, 지금은 마을별 깃대싸움을 하여 깃발을 먼저 빼앗은 마을에 나무길을 먼저 내주는 풍습으로 전승하고 있다.

왜골마을은 오동나무가 많아 오야곡이라 하였다 하지만 와야곡 즉, 기와를 굽던 골짜기였다. 황골마을은 지질이 황토이기도 하지만 가을 곡식이 익을 때에 아침햇살이 비치면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보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항동은 산수가 좋아서 장수마을로 유명하다. 여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다.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에 금암산 바위 밑에서 산신제를 올린다. 항동의 자랑거리는 고목의 은행나무이다. 하남시에서 최고령의 나무이다.

이 은행나무는 주변을 감상하면서 한가로이 놀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주변 경관이 좋은 곳에 정자목(亭子木)으로 심은 나무이다. 현재 이 은행나무 곁에 정자가 있다. 여러 인가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나뭇가지가 인가의 지붕까지 벋고 있다.

이 은행나무는 잎이 나올 때에 줄기 아래위로 발아하면 마을에 흉년이 오고, 나무 전체에서 고르게 싹이 트면 풍작이 온다는 구전을 갖고 있다. 풍흉을 점치는 이 풍습은 다른 지역의 구전과 반대이어서 특이하다.

또한 이 은행나무는 해거리가 거의 없이 매년 열매가 많이 열리는 암나무인데, 마을에서 열매를 수확할 때에 시루떡과 술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내면 위험이나 흉작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다.

태그 | 하남시, 항동, 남한산성, 정자목, 신목, 은행나무, 보호수







느티나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47-3
37° 15.364′ N / 127° 04.571′ E

- 지정번호 : 수원-11
- 지정연월일 : 1982.10.15
- 수고 : 23m
- 관리기관 : 경기도청
- 수령 : 500년
- 흉고둘레 : 8.2m

| 어떻게 살았을까?

수원 영통동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이 큰말이다. 이 마을에는 고목의 느티나무가 있어 느티나무골, 느티마을이라고도 불렀다. 고목의 느티나무는 큰말의 남쪽에 있다. 보호수이다. 수령이 500년 이상이다. 이 느티나무는 도심의 큰 도로와 인접한 단오어린이공원에 있다.

이곳이 현재 도심으로 변했어도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다.

수형이 좋고 생육이 양호하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전형적인 시골 풍경이 사라진 곳. 마을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곳, 수원시 영통동. 이곳은 현재 아파트단지가 들어섰으며, 수원지하철이 지나고 있다.

영통동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의 큰말에 고목의 느티나무가 있다. 이 느티나무는 1790년(조선 정조 14년) 수원 화성(華城) 축조 때 이 나뭇가지를 잘라 서까래용으로 썼다고 전한다. 예로부터 이 느티나무는 전쟁처럼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칠 무렵에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었다. 사람들은 이 소리를 구렁이 울음소리라고 전하고 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신비한 힘을 가진 나무라고 여겨 신성시하고 정성으로 보살폈다.

이 느티나무 보호수가 있는 곳은 당산제의 제단 역할을 한다. 또한 음력 5월 5일 단오 때는 성대하게 축제도 지내고 있는 영통의 자랑거리이다. 지난 2005년 처음 실시된 영통청명단오제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2015년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축소되거나 취소되었지만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전통을 계승하고 매탄, 영통, 광교 지역 주민들 모두가 하나가 되는 화합의 마당으로 열렸다.

영통청명단오제는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이어오던 마을사람들의 연중무병과 평온무사를 빌던 제사(祭祀)가 1994년도부터 신시가지가 형성되고 타 지역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기존 마을공동체의 모습이 사라지자 이를 안타까워하던 뜻있는 주민들이 2005년 단오어린이공원의 느티나무에서 당산제를 지내게 되면서 탄생되었다.

당일 오전 6시 청명산 약수터에서의 단오제 보존위원회 제례위원들의 산신제를 시작으로 축제는 시작된다. 단오제 제례위원들은 오전 9시 20분부터는 단오어린이공원 느티나무 앞에서 전문 전통의례가의 안내에 따라 주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올린다. 이밖에도 이 느티나무가 있는 곳은 지역 축제 및 행사의 중심지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단오어린이공원은 영통 신시가지 조성을 기념하고 주민들의 작은 쉼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옛 마을 이름을 따서 지었다. 정자는 주민들의 관리로 깨끗하다. 언제 찾아가도 기분 좋게 쉴 수 있는 곳이다. 길은 모두 한곳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루하지 않게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태그 | 수원시, 영통동, 단오어린이공원, 영통청명단오제, 신목, 느티나무, 보호수







은행나무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869번길 309-52 37° 21.213´ N / 127° 27.760´ E	· 지정번호 : 이천-6 · 지정연월일 : 1982.10.15 · 수고 : 25m · 관리기관 : 경기도청 · 수령 : 800년 · 흉고둘레 : 5.4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은행나무는 이천시의 영원사의 주차장 왼쪽 상단부 종무소 앞에 있다. 약간 경사가 있는 곳에 심어져 자라고 있다.
800년 이상을 살고 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하면 왼쪽에 서 있으며, 대를 맞춰 놓은 듯 오른쪽에 또 다른 고목의 은행나무가 자라고 있다. 대웅전 오른쪽의 은행나무는 이 은행나무보다 약간 작지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자라고 있다.
오른쪽의 은행나무는 후계목의 역할을 할 것이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이천시의 산수유마을도 대단하다. 송말리, 도립리, 경사리 일대의 산수유나무는 수령 100년 정도의 것이 8,000여 그루에 이른다.

산수유마을의 시작은 조선시대 중종 때이다. 기묘사화(己卯士禍)를 피해 이곳에 낙향한 선비가 그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자를 짓고 주위에 느티나무와 산수유나무를 심은 것이 시초이다.

해마다 봄이 되면 이천시의 산수유마을로 가는 길은 노란빛의 산수유나무 꽃으로 단장된다.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볼 수 있다. 이천시에서 가장 높은 원적산(圓寂山, 563.5m) 남쪽 기슭의 영원사를 향하여 가는 길목은 산수유나무 꽃이 즐비하다.

송말리에 들어선 영원사(靈源寺)는 638년(신라 선덕여왕 7년)에 해호선사(海浩禪師)가 창건했다고 전한다. 비구니들의 수행처인 영원사는 이천시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다.

해호선사는 새로운 수행 장소를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중 원적산을 찾아와 지세를 살펴 본 후 '적정열반을 이룰 수 있는 땅'이라며 영원사를 창건하였다. 영원사는 창건 400여년 후인 1068년(고려 문종 22년)에 화재로 모두 소실되고 만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영원사를 혜거국사(慧距國師)가 다시 일으켜 세웠다. 초창 때부터 일제 강점기까지는 영원암(靈源庵)이라 불렀다.

지나온 깨달음을 향한 수행정진의 오랜 역사답게 영원사는 오랜 세월을 꿋꿋이 버텨온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이 은행나무는 1068년(고려 문종 22년)에 혜거국사가 사찰을 중창한 기념으로 심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은행나무는 수령이 800년 정도이지만 원줄기의 굴곡이 심하지 않아 그렇게 오래 산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높게 솟은 위용이 대단하게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비구니 사찰에 어울리게 단아한 모양이다. 은행나무 역시 은행(열매)이 열리는 암나무이다.

이 은행나무는 사찰 주차장에서 경사가 있는 계단을 올랐을 때에 곧바로 마주치는데, 사찰 입구에서 천왕문을 대신하여 수호목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특별하게 전하는 이야기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태그 | 이천시, 송말리, 산수유마을, 영원사, 은행나무, 보호수















강원지역

삼척시 / 강릉시 / 평창군 / 원주시 / 양구군 / 정선군 / 양양군 / 횡성군 / 고성군

19	은행나무	강원	삼척시 가곡면 오저리 205	60
20	회화나무	강원	강릉시 죽헌동 71	62
21	느릅나무	강원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362	64
22	무궁화	강원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1969-4	66
23	느티나무	강원	원주시 행구동 777	68
24	느릅나무	강원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16번길5-9	70
25	느티나무	강원	정선군 정선읍 수미길 3	72
26	소나무	강원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산152	74
27	느티나무	강원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41-1	76
28	느릅나무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766-7	78
29	은행나무	강원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80
30	느릅나무	강원	정성군 남면 유평리 149-1	82



은행나무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저리 205
37° 08.501′ N / 129° 12.059′ E

- 지정번호 : 강원-삼척-7
- 지정연월일 : 1987.3.16
- 수고 : 25m
- 관리기관 : 강원도청
- 수령 : 1,000년
- 흉고둘레 : 6.5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은행나무는 성황당(서낭당)의 신목이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붙어 있는 이 나무에 해코지를 하면 재앙을 입는 것으로 믿어 항상 신성시하고 있다.

마을길이 한 모퉁이에서 1,000년 이상 살고 있는 고목이다.

이 은행나무 신목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정월대보름에 한해의 태평무사를 기원하는 서낭제를 지내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1353-10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죽기마을(대터)은 대나무가 있는 마을이다. 오저리의 한 마을이다. 지명에 걸맞지 않게 대나무보다 '천년수'가 눈에 띄는 마을이다. 은행나무가 천년수이다. 마을의 자랑거리이다. 이 나무에 얽힌 이야기가 많아서 더욱 그렇다. 조선시대의 무당 부부 이야기이다. 어느 날이었다. 무당 부부는 사용하던 꽹과리, 징, 장고, 북 등을 이 나뭇가지에 걸어 두고 주문을 외우다가 갑자기 죽고 말았다.

무당이 죽은 지 며칠 후 마을의 권씨 할머니가 돌아갔다. 할머니의 장삿날에 이 은행나무는 꽹과리 소리를 냈다. 꽹과리 소리는 장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꽹과리 소리가 은행나무에 매어 놓은 무당풍물 때문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를 모두 떼어내어 골짜기에 묻어 버렸다. 그런데도 요사스런 꽹과리 소리는 마을의 대소사가 있거나 비바람이 부는 날이면 어김없이 들렸다.

또 다른 이야기는 무당이 은행나무에 걸어 둔 장고, 북 등은 썩어 없어졌지만 징, 꽹과리 등은 썩지 않고 줄기 사이에 들어가 묻히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변란이 있거나 마을의 흉사가 있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이 은행나무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마을 청년들은 어느 날 밤을 꼬박 지새우면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탈곡기 돌아가는 소리와 비슷하였다고 전한다.

그러자 사람들은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 이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점쟁이는 말하였다. 꽹과리 소리는 자식이 없어 대를 잇지 못한 것에 대한 무당 부부의 애석함과 함께 무당풍물을 잘 모시지 않고 버린 것에 대한 분풀이라고. 마을에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꽹과리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점쟁이는 "산신령의 노여움에서 오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고 은행나무를 잘 보호해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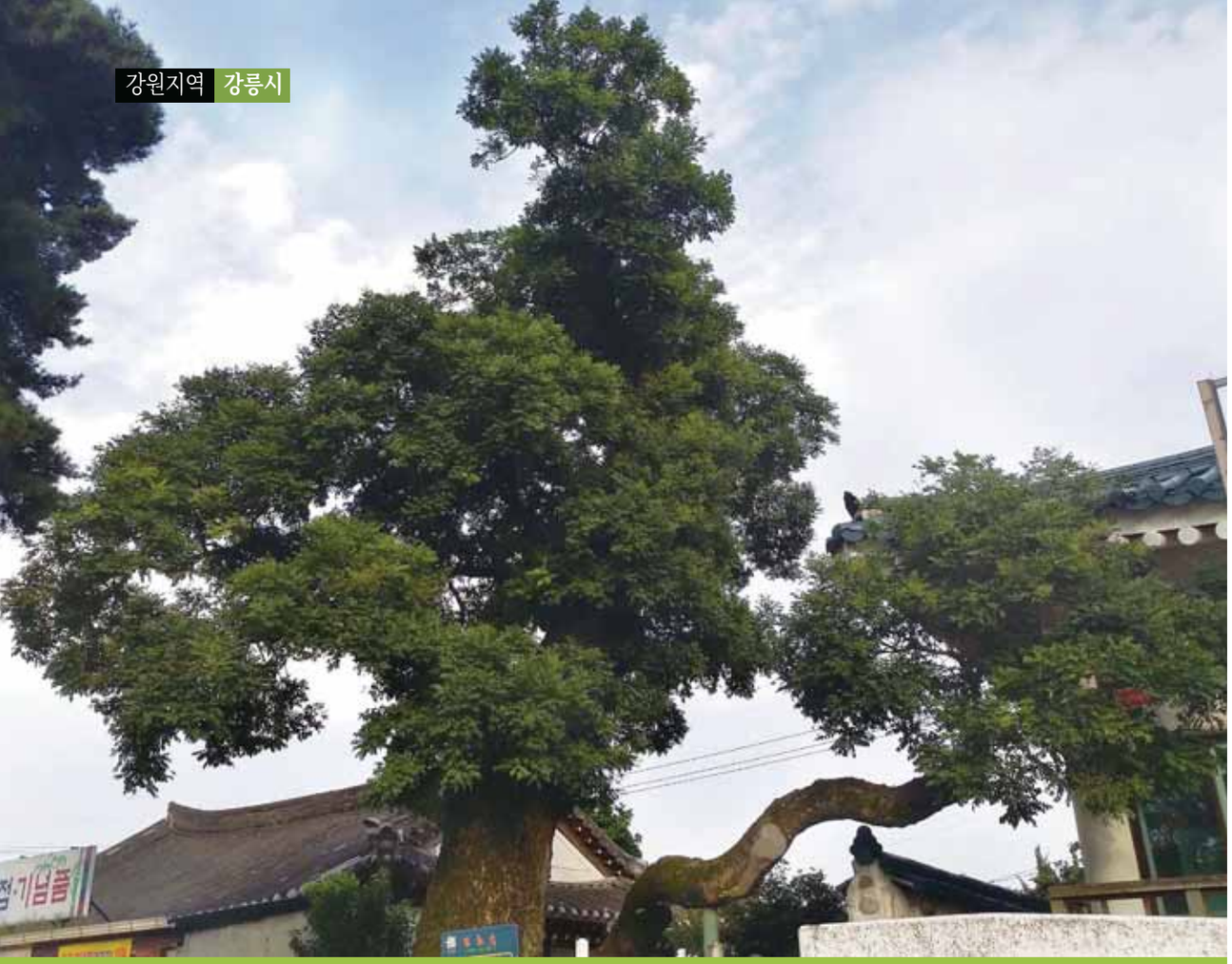
이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은행나무 곁에 '천년수' 기념비(1970년 3월 22일)를 건립하여 제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비바람이 불거나 마을에





흉사가 있어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태그 | 삼척, 성황당(서낭당), 신목, 서낭제, 은행나무, 천년수, 보호수



회화나무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 71
37° 46.752′ N / 129° 52.907′ E

- 지정번호 : 강원-강릉-3
- 지정연월일 : 1982.11.13
- 수고 : 19m
- 관리기관 : 강원도청
- 수령 : 570년
- 흉고둘레 : 4.6m

| 어떻게 살았을까?

회화나무는 선조들이 꼽은 최고의 길상목(吉祥木)이다.
회화나무를 집안에 심으면 가문이 번창하고 이름난 학자나 인물이 나는 것으로 알았다. 또한 사람들은 회화나무가 온갖 잡귀신을 물리치는 나무로 믿었다.
그래서인지 회화나무는 고결한 선비의 집이나 서원, 사찰, 대궐 같은 곳에 심었다. 오죽헌에 회화나무를 심은 뜻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회화나무는 570년 동안 오죽헌의 입구와 인접한 곳에서 왕성하게 자라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오죽헌(烏竹軒)이 있는 마을에서 유래한 지역명이 죽헌동이다. 죽헌동의 오죽헌은 신사임당(1504~1551)이 태어난 곳이다. 신사임당의 친정집이다. 신사임당이 율곡(栗谷) 이이(1536~1584)를 낳은 곳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대학자로 명성을 날린 율곡이 태어난 몽룡실(夢龍室)이 있는 별당 건물이다.

오죽헌은 본채가 소실되었지만 보물 제165호로 지정되어 있다. 가장 오래된 우리 주택 중의 하나이다. 검은빛 줄기의 대나무가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오죽헌(烏竹軒)의 이름이 붙었다. 그 유래가 궁금하지만 본 글의 방향과 약간의 거리가 있어 이 정도에서 그친다.

율곡은 5천원 지폐에 등장한다. 신사임당은 5만원 지폐의 주인공이다. 어머니와 아들이 나란히 화폐의 인물로 선정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다. 신사임당은 뛰어난 여류 예술가이었다. 모든 여성들의 근본이 되는 여인이었다. 현모양처의 본보기이었다.

이처럼 오죽헌하면 신사임당, 율곡이 우선 생각난다. 그 다음으로 생각나는 것이 여러 고목의 나무이다. 우선 광장의 주차장에 들어서면 한 모퉁이에 있는 커다란 나무가 눈에 띈다. 높게 자란 소나무이다. 바닷가를 접한 강릉시에서 아름드리의 소나무가 하늘높이 솟은 모양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 소나무를 바라보는가 싶더니 어느새 그 옆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고목을 마주하게 된다. 보호를 받으며 서 있는 회화나무이다.

이 회화나무는 수령으로 볼 때에 오죽헌 건립의 전후에 심은 나무로 여겨지고 있다. 신사임당 일가의 생과 함께 한 나무이다. 율곡 이이가 어릴 적에 오르내리며 놀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현재 수형으로 보아 당시에는 나무타기에 적합하게 자랐을 것이다. 줄기 하나는 하늘 높이 솟지 않고 옆으로 벋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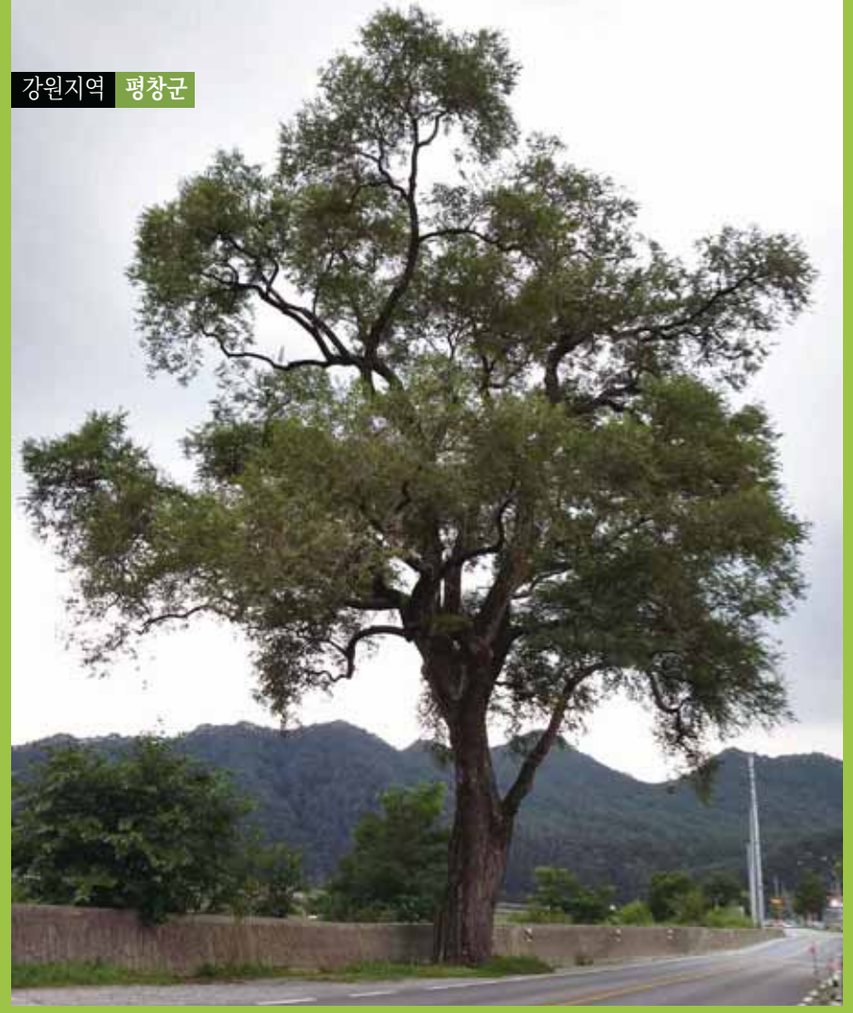
오죽헌은 이밖에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나무가 있다. 배롱나무(목백일홍)는 '몽룡실'의 앞마당에 있다. '신사임당 배롱나무'라고 명명하는 이 나무는 강릉시의 시화(市花)이기도 하다. 그 주변에 소나무(율곡송)가 있다.





오죽(烏竹)은 집을 둘러싸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484호로 지정된 매실나무(홍매화, 율곡매)는 오죽헌의 바로 옆에 자라고 있다.

태그 | 오죽헌, 고택, 신사임당, 죽헌동, 회화나무, 고목, 보호수



느릅나무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362
37° 20.633′ N / 128° 22.482′ E

- 지정번호 : 강원-평창-5
- 지정연월일 : 1982.11.13
- 수고 : 25m
- 관리기관 : 강원도청
- 수령 : 350년
- 흉고둘레 : 6.2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느릅나무는 홀로 자라고 있다. 31번 국도와 인접하여 있다. 이 느릅나무를 살짝 비켜간 듯이 강변으로 시멘트 둑이 조성되었다. 때문에 도로 옆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수형은 강가 방향으로 넓게 펼쳐 있다.
마을 사람들은 수령 700년 이상으로 믿고 있으나 기관자료의 기록은 수령 350~455년으로 제각각이다. 아무튼 차량의 불빛에도 생체리듬을 잃지 않고 잘 자라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평창강은 오대산 남쪽에서 발원하여 평창읍을 지나는 강이다. 평창강의 물길은 어린 단종의 한이 맺힌 '청령포'가 있는 영월 서강과 연결된다. 돌고 도는 평창강을 따라가거나 가로지르는 길이 있다. 포장이 잘 된 길이다. 31번 국도이다. 평창을 지나는 길이다. 그 길과 강 사이에 우뚝 선 나무가 있다. 약수리의 느릅나무이다. 높고 크고 풍채도 우람한 나무이다.

이 느릅나무는 오래 살아온 만큼 전하는 이야기가 있다. 가장 널이 알려진 이야기는 옥황상제가 3형제를 보낸 약수리 마을의 구전이다. 이 느릅나무는 옥황상제가 보낸 아들 3형제 가운데 하나로 믿고 있다. 아들 모두가 약수리에서 느릅나무로 살았다. 한 그루는 오래 전에 죽어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다른 한 그루는 마을 안쪽의 들에 자라고 있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옥황상제는 아들 3형제(느릅나무 3그루)를 약수리 마을에 보낼 때 아들 모두가 잘 살기를 바랐다. 3형제가 오래도록 살면서 마을의 안녕과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런데 느릅나무 3그루(3형제) 중 한 그루가 죽는 바람에 마을의 발전이 더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아쉽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이야기는 단옷날에 이 나무에서 그네를 매고 놀이를 하면 마을이 평화롭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이 느릅나무에 그네를 달고 놀았다. 단옷날에 쌍그네를 타며 놀았다. 요즈음은 나무 바로 옆으로 국도가 지나기에 위험하여 그네놀이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느릅나무는 비교적 높은 곳에서 가지가 비스듬히 갈라지므로 갈라진 줄기에 맨 그네는 줄이 길어 높이 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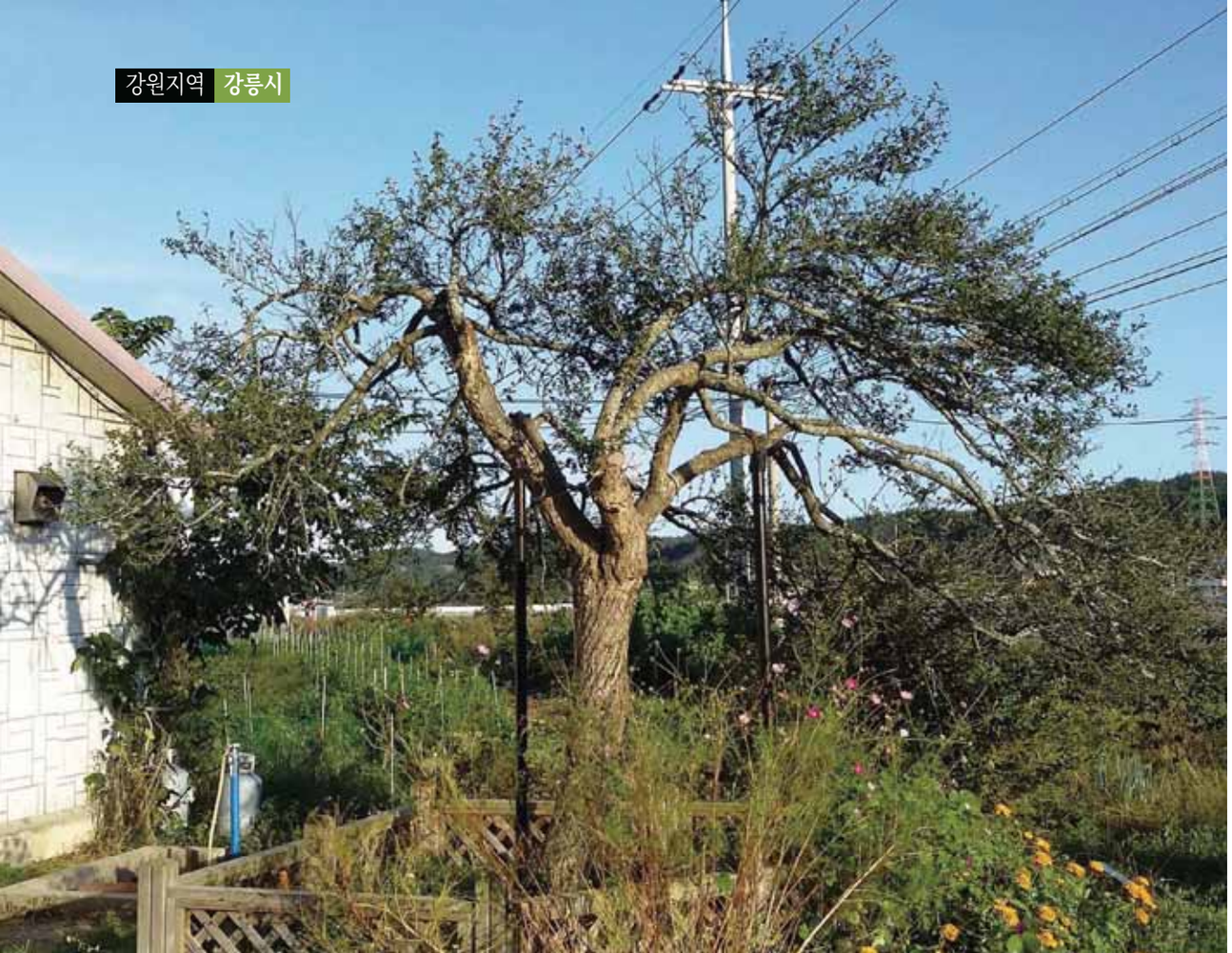
이 느릅나무가 있는 곳은 인가가 밀집한 곳이 아니다. 주변에 몇 채의 집이 있는 정도이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음식점이 있다. 이 나무의 도로 건너편에 있는 음식점이다. 간판이 '느티나무 가든'이다. 이 식당의 이름은 이 나무를 표식으로 하여 지어졌다. 잘못 이름하고 말았던 것





이다. 식당 이름이 '느티나무 가든'일 정도로 마을 사람들은 이 느릅나무를 느티나무로 알았다. 그래서 오랫동안 느티나무로 불렀다. 마을 사람들은 보호수로 지정할 만큼 크고 상징적인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나무이름을 잘못 알고 있었던 셈이다. 최근까지도.

태그 | 평창강, 31번국도, 약수리, 느티나무, 느릅나무, 단오, 보호수



무궁화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1969-4
37° 51.037′ N / 128° 45.364′ E

- 지정번호 : 강원-강릉-25
- 지정연월일 : 1982.11.13
- 수고 : 3m
- 관리기관 : 강원도청
- 수령 : 56년
- 흉고둘레 : 0.8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무궁화는 원줄기에서 벋은 가지가 옆으로 퍼져 있어 마치 우산을 펼친 모양과 흡사하게 자라고 있다. 현재 이 무궁화는 서쪽 방향으로 벋은 가지가 2000년대 초에 눈이 많이 쌓이면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잘라져 나갔지만 생육이 양호한 편이다. 이 무궁화는 홑꽃이다.
품종은 꽃잎이 주홍색 계통이며 꽃심이 진한 붉은빛을 띠는 '홍단심계'이다. 2015년까지 꽃이 만발하였으나 2016년 올해의 꽃이 이전보다 시들해졌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대한민국의 나라꽃(국화)은 '무궁화'이다. 무궁화는 고조선 시대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한민족 역사의 일면을 보여주었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독립지사들은 우리나라의 표상으로 여겼다. 1919년 5월 한국경성독립회본부가 작성한 대한국민독립대회 진술서에 대한민국을 '근화고국(槿花故國)'으로 표현하고, 1924년 2월 29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식에서 '무궁화 노래로 식을 시작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동아일보는 1925년 10월 21일 '독자와 기자' 란의 '조선국화 무궁화의 내력-고래로 조선에서 숭상한 근화가 무궁화로 변하여 국화가 되기까지'에 대한 기사에서 '무궁화는 나라의 자랑거리요 백성이 다 같이 숭상하는 근화'라고 하였다.

이러한 무궁화는 지금까지 학교에 가장 많이 식재되었고, 그 다음 관공서, 공원, 도로변 순으로 식어졌다. 이들 대부분은 관목성으로 군식하였고 교목성의 것을 가로수를 이용하지는 않았다. 식재된 무궁화 중 노거수는 남해안과 서해안 일대에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궁화의 생장특성으로 보아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기 때문인 동시에 가급적 도서해안, 산간벽지 지방이 국가적 변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강원도 홍천군을 비롯하여 강릉시에서 무궁화 고목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 강원도에서 발견된 무궁화 노거수 중 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강릉시 연곡면 유동리에 자라는 것이다.

이 무궁화는 수령이 56년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현지 안내판은 66년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관리자는 이 무궁화를 심을 당시의 일제강점기에 10~20년생이었다고 말하였다. 자신의 조부가 심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무궁화의 수령은 적어도 80년생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수령이 맞건 틀리건 간에 무궁화가 수령 30년을 지나면서 수세가 약해지거나 고사하는 것에 비하면 이 무궁화의 수명은 매우 놀라운 것이다. 이 무궁화에 얽힌 이야기가 있으면 전해달라는 말에 그는 특별히 구전되는 설화가 없다고 하였다. 그 대신에 몇 년 전 문경시에서 후계목이라 할 수 있는 그루터기의 묘목을 분양하여 갔다고 들려주었다.



태그 | 강릉시, 유등리, 나라꽃, 홍천군, 고목, 홍단심계 무궁화, 보호수





느티나무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777
37° 20.230′ N / 127° 59.980′ E

- 지정번호 : 강원-원주-3
- 지정연월일 : 1982.11.13
- 수고 : 25m
- 관리기관 : 강원도청
- 수령 : 1,000년
- 흉고둘레 : 8.7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느티나무는 원주시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는 나무이다. 수령이 1,000년 이상이다.

전체적인 모양이 안정적이어서 보기에 좋다. 주변은 마을과 밭과 도로와 하천이 있다. 치악산 자락에서 흘러나온 물이 흐르는 작은 하천이다. 하천의 깨끗한 물은 이 느티나무의 생육을 도왔던 것 같다.

마을길은 이 느티나무를 옆으로 돌아 비켜가고 있는데, 이는 이 느티나무의 보호를 위한 한 방편으로 보였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원주시에 행구동이 있다. 행구동은 살구나무와 관련이 있는 이름이다. 그 유래는 '살구뚝'이라 하였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행구(杏邱)의 '행'은 살구나무의 뜻이 있다. 물론 '행'은 '은행'의 '행'과 관련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이곳의 이름은 '살구뚝'의 지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은행나무보다 살구나무와 관련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는 저자의 판단이고 고찰이지만 나름 이유가 있어 보인다.

이곳의 오리골은 행구동 남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오리촌, 오리현이라고도 하였다. 오리골은 일제강점기 때 오리(梧里)라고 표기하였다. 오리골은 벽오동나무 또는 오동나무를 뜻하는 '오(梧)'와 '마을 리(里)'가 합쳐진 이름이다. 그런데 오늘날에 마을 사람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오리골은 오동나무가 아니라 오리나무의 숲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어쨌건 행구동의 오리골에 수령 1,000년 정도의 고목이 자라고 있다. 이 고목은 마을의 이름과 관련한 오동나무도 아니고, 은행나무도 아니고, 오리나무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느티나무이다.

그런데 이 느티나무는 2009년에 주변 공사를 하면서 큰 뿌리가 잘려나갔다. 물론 작은 뿌리도 잘렸다. 잘려나간 큰 뿌리 지름은 30cm에 달한다. 자른 이유는 마을에서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설치한 관이 이 느티나무의 뿌리에 막혔기 때문이다. 이 느티나무는 직경이 30cm나 되는 뿌리가 잘렸는데도 고사하지 않고 살아남았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원래 이 느티나무는 밑동 줄기 가운데에 큰 구멍이 있었다. 흔히 고목에 나타나는 공동이었다. 공동은 사람이 들어가 비를 피할 정도로 구멍이 컸다. 6.25한국전쟁 때는 북한 인민군들이 이 느티나무의 구멍 안에 총기를 잔뜩 버리고 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 만큼 공동이 컸던 것이다.

그런데 그 공동은 지금 보이지 않는다. 외과수술(충전처리)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스스로 구멍을 메운 것 같지만 그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태그 | 원주, 오리골, 살구나무, 오리나무, 느티나무, 보호수, 공동





느릅나무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16번길 5-9 37° 06.533′ N / 127° 59.458′ E	· 지정번호 : 강원-양구-5 · 지정연월일 : 2016.1.26 · 수고 : 16m	· 관리기관 : 강원도청 · 수령 : 300년 · 흉고둘레 : 2.1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느릅나무는 현재 잘 정비한 동산 위쪽의 석축 경사지에 자라고 있다. 줄기 밑동의 지표면은 평탄지를 만들고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였지만 접근성과 주변 공간이 부자연스럽고 좁은 점이 아쉽다. 생육이 양호한 편이다. 그런데 이 나무는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고사위기에 놓였던 적이 있다.

그때 관계기관은 부분적으로 줄기가 썩어 들어간 공동 부위 4곳에 대한 외과수술과 방부처리 및 인공수피 이식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후 이 느릅나무는 수세가 회복되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양구군의 양구교육지원청과 등기소 및 아파트단지 사이에 높게 솟은 나무가 있다. 고목의 느릅나무이다. 이 느릅나무는 양구교육지원청에서 보면 동산의 경사면 10m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산 위쪽에서 보면 아파트 경계지역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느릅나무는 2016년에 강원도의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지정 사유는 지역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고목이기 때문이다. 이 느릅나무는 일명 '박수근 나무'로 부를 정도로 박수근 화백과 관련이 깊다. 이 느릅나무는 수령이 300여 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느릅나무가 있는 곳은 대표적인 서민화가 박수근(朴壽根, 1914~1965) 화백이 어린 시절에 그림 연습의 소재로 활용한 유서 깊은 장소이다. 특히 이곳의 느릅나무는 박수근이 양구보통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나무를 타며 놀았던 나무로 알려져 있다.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였거나 소재가 된 문화적 가치가 있는 나무이다.

그는 1960년대에 '나무와 여인'을 연작 형태로 그렸다. 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1962년 작품의 '고목과 두 여인'은 고목 옆으로 광주리를 인 여인 둘이 걸어가는 모습이다. 이 그림의 소재를 제공한 동기부여의 나무가 바로 보호수로 지정한 느릅나무이다.

박수근이 즐겨 그린 소재는 평범한 이웃이다. 아낙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는 대표작인 '고목과 두 여인'에서 보듯이 나무를 좋아하였다. 잎이 무성하게 녹음이 짙은 나무가 아니라 나뭇가지가 앙상한 겨울나무이다. 그림 속의 나무들은 대부분 줄기가 휘어지듯이 곧거나 가지가 잘려 정상적으로 자라는 곧은 나무와 거리가 있다.

보호수로 지정한 이곳의 느릅나무도 줄기가 곧은 것처럼 보이지만 휘어지듯이 하늘 높이 자라고 있다.

한편 '박수근 나무'로 명명한 두 그루 중 한 그루는 새싹을 터뜨리지 못하여 고사하고 말았다.





태그 | 양구, 박수근 화백, 화재, 나무와 여인, 느릅나무, 보호수



느티나무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수미길 3
37° 18.876′ N / 128° 37.618′ E

- 지정번호 : 강원-정선-2
- 지정연월일 : 1982.11.13
- 수고 : 26m
- 관리기관 : 강원도청
- 수령 : 570년
- 흉고둘레 : 8.5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고목의 느티나무는 수령이 570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마을 사람들은 수령이 700년 이상으로 보고 있다. 700여년 시간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느티나무는 그 위엄을 과시하며 묵묵히 동강을 내려다보고 있다.

이 나무의 흉고둘레는 8.5m 정도이며, 전체적인 수형이 매우 아름답다. 이 느티나무의 밑동은 어린아이가 몸을 굽히고 들어갈 만큼 큰 공동(空洞)이 있었으나 지금은 나무보호를 위하여 충전 처리되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는 조양강(동강)이 시작되는 곳이다. 조양강은 지장천과 만나 흐른다. 주변은 높은 산과 강이 어우러져 있다. 그리고 작은 학교가 길가의 언덕배기에 자리하고 있다. 가수초등학교 분교이다. 분교에서 바라보면 조양강이 도로 옆을 줄기차게 흐르고 있다.

조양강(동강) 주변의 마을 가운데 가수리의 수미(水美)마을은 이름부터가 아름답다. '물이 아름다운 마을'의 뜻이 있는 고장이다.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이 깃든 대표적인 마을이다. 수미마을은 20여 가구에 불과하여 사람들이 많지 않다. 예전에는 '줄배'가 강을 끼고 서로 마주보는 마을을 오가도록 하였다. 지금도 줄배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미마을은 수 백 년의 세월을 꿋꿋하게 지켜온 느티나무가 우뚝 서 있다. 가수초등학교 분교의 운동장에 자라고 있는 특별한 나무이다. 이 느티나무는 가수리에 처음 들어온 강릉 유씨(江陵劉氏)가 심은 나무라고 전하고 있다. 마을의 당산목 구실을 다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1월 3일에 이 나무 아래에서 마을의 안녕을 비는 '안수제', '풍산제'를 지내고 있다. 또한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옛날 이 마을의 한 청년이 디딜방아를 훔쳐 달아나다가 이 느티나무를 지키던 신령의 현신에 내팽개치고 도망갔다는 전설이 있다.

이 느티나무가 있는 곳은 여름에는 마을 앞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한번쯤 들러 쉬는 곳이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다리가 놓이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쉬면서 강을 오가는 줄배에 마음을 싣기도 하였다.

가수초등학교 분교 느티나무와 약간 떨어진 벼랑에는 그 모양이 예사롭지 않은 고목의 소나무가 있다. 느티나무와 함께 가수리의 상징이 되는 오송정(五松亭)의 나무이다. 이 소나무는 원래 5그루가 있었지만 지금은 2그루만 남아 있다.

이 소나무는 나라의 큰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한 그루씩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수령 500여 년으로 추정되는 고목의 소나무가 깎아지른 절벽과 이웃하고 있다.





태그 | 정선, 수미마을, 조양강(동강), 느티나무, 보호수, 당산목, 소나무



소나무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산 152
38° 01.252′ N / 128° 44.134′ E

- 지정번호 : 강원-양양-10
- 지정연월일 : 1982.11.13
- 수고 : 9m
- 관리기관 : 강원도청
- 수령 : 200년
- 흉고둘레 : 1.5m

| 어떻게 살았을까?

하조대는 조선 정종 때 건립한 이후 수차례의 중수를 거듭하여 1940년에 팔각정이 완성되었다. 6.25한국전쟁 때 불에 탄 것을 1955년과 1968년에 재건한 바 있고, 현재의 건물은 1998년 해체 복원한 것이다. 정자 앞에는 조선 숙종 때 이세근이 쓴 '하조대' 글자의 암각바위가 있다. 정자에는 시문액자가 걸려 있어 이곳이 예로부터 많은 시인묵객들과 관리들이 찾아오는 경승지임을 알려주고 있다. 하조대 앞에 노송이 자라고 있다. 바위에 붙어 200년 이상을 살아가고 있다. 소나무이다.

| 어떻게 찾아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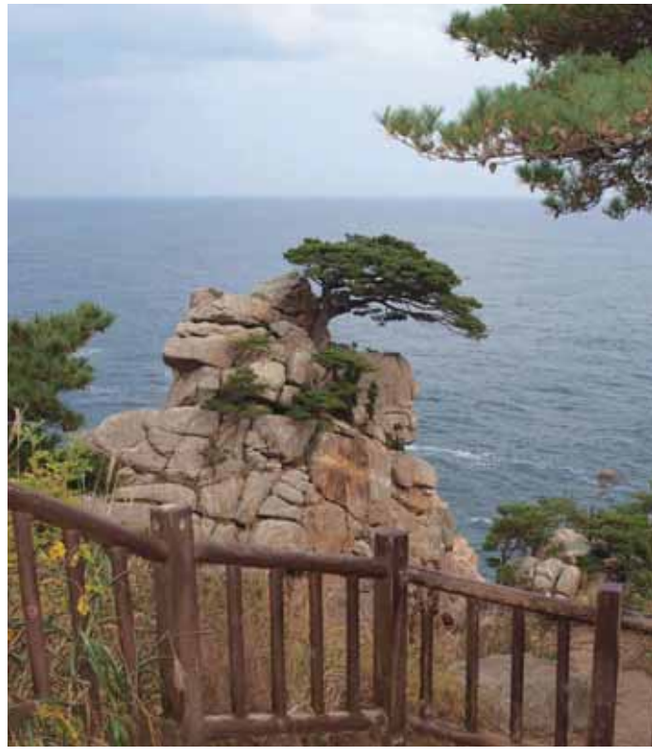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양양군 바닷가의 하조대(河趙臺) 일대는 해안의 여러 기암괴석과 울창한 송림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등대는 하조대 정상의 정자에서 숲 사이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맞은편의 절벽 위에 있다. 바위에 있는 등대는 무인등대이다. 밤이면 저절로 불이 켜져 동이 틀 때까지 바닷길을 밝혀준다. 하조대의 북쪽은 하조대해수욕장이 있다. 1976년 개장한 이 해수욕장은 울창한 소나무 숲을 배경으로 백사장이 넓고 길게 펼쳐져 있다.

또한 경승지 하조대는 등대에서 보면 남쪽의 절벽 끝에 서 있다. 하조대 현판이 걸린 육각정이 있다. 하조대 유래는 고려시대 하륜(河崙)과 조준(趙浚)이 이곳에 은둔하며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혁명을 꾀하였으므로 그들의 성을 따서 명명하였다는 설이 있다. 다른 설은 하씨 집안 총각과 조씨 집안 자매 사이의 이루어질 수 없는 애절한 사연으로 인하여 이름이 지어졌다. 총각은 자매의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어 고민을 하였고, 결국 세 사람은 바다에 몸을 던졌다. 또 다른 구전은 신라 때 하씨와 조씨 문중의 총각과 처녀가 양쪽 집안의 싸움을 피해 남몰래 사랑을 나누다가 끝내 해안 절벽에서 몸을 던졌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나무계단을 따라 올라 하조대에 서면 동해안의 넓고 넓은 바다가 한눈에 다 들어온다. 하조대 앞바다에 돌출한 송곳 바위는 작은 섬처럼 독립적으로 서 있다. 이 바위의 기암괴석 꼭대기는 갈매기가 많이 모여 든다. 꼭대기를 바라보면 바위에 낙락장송을 그려 놓은 것과 같은 광경이 펼쳐진다. 노송의 소나무가 바위틈에서 자라 자태를 뽐내고 있다. '백년송' 또는 '천년송'으로 부르는 소나무가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하조대 제일의 풍광은 기암괴석의 소나무와 함께 펼쳐지는 장엄한 일출 광경이다. 이 소나무가 배경이 된 일출 장면은 방송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대한민국의 애국가 영상에 단골로 등장하였다. 그래서 이 소나무는 '애국송'의 별명을 얻었다. '애국송'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백년송' 또는 '천년송'의 별명은 옛 이름으로 남았다.





태그 | 양양, 하조대, 팔각정, 등대, 송림, 애국가, 소나무, 보호수



느티나무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41-1
37° 11.564′ N / 127° 47.501′ E

- 지정번호 : 강원-원주-9
- 지정연월일 : 1982.11.13
- 수고 : 17m
- 관리기관 : 강원도청
- 수령 : 1,000년
- 흉고둘레 : 7.2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느티나무는 도로에서 보면 석축을 의지하여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불안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인다. 달리 표현하면 줄기의 밑동과 거대한 뿌리가 석축의 돌을 끌어안고 있는 형상이다.

때문에 이 나무는 '돌을 먹는 나무'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 느티나무는 도로의 경사지를 올라가서 거돈사지의 평지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자라는 모습이다. 줄기는 밑동이 비스듬히 축대에 의지하고 있지만 곧바로 위로 솟아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한강의 젖줄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원주시 부론면이 나온다. 부론면 정산리 담안마을에 거돈사지(居頓寺址)가 있다. 거돈사지는 사적 제168호로 지정된 신라시대의 절터이다. 현계산 아래에 위치하며, 삼면이 낮은 구릉으로 있어 아늑한 느낌이 드는 곳이다.

절터는 거의 비어 있다. 절터의 금당지(金堂址)는 전면 6줄, 측면 5줄의 초석(礎石)이 보존되어 있어 본래 20여 칸의 대법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당지 앞에는 보물 제750호로 지정된 3층석탑이 온전히 남아 있다. 절터에서 400m 정도 떨어진 곳에 당간지주가 있다.

넓은 절터 입구의 가장지리에는 고목의 느티나무가 있다. 거돈사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정도로 커다란 나무이다. 수령이 무려 1,000년 정도 되는 나무이다. 이 느티나무는 오랫동안이나 사찰의 흥망성쇠를 고스란히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이다.

아름드리의 느티나무는 사찰을 세울 당시에 쌓은 석축 위로 활개 치듯 가지를 뻗고 있다. 도로에서 보면 높이 3m 정도의 축대가 커다란 느티나무를 받치고 있다. 이는 축대가 절 창건 시기에 쌓은 증거로 여기고 있다. 석축이 고목 밑동을 받치고 있다는 것은 느티나무가 자란 후에 축대를 쌓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느티나무 바로 옆에 또 다른 느티나무가 후계목으로 자라고 있다. 줄기는 2개가 휘감은 듯이 밀착하였고 굵지 않지만 가지를 사방으로 벋어 있어 수관이 넓게 퍼져 있다. 후계목 느티나무와 보호수 느티나무는 수관 상층부가 겹쳐 자라고 있어 두 나무 모두 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다.

한편 부론면 정산리는 이 느티나무 이외에도 2그루의 느티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2그루의 느티나무는 거돈사지의 것보다 덜하지만 수령이 400~500년이 되는 아름드리의 나무이다. 하나는 정산1리의 느티나무이다. 높이 25m, 둘레 620cm 정도이다. 다른 하나는 정산2리의 자작마을 길가에 있는 느티나무이다. 높이 25m, 둘레 575cm 정도이다. 모두 당산목이었으나 지금은 그 이용이 줄어들었다.

태그 | 원주, 담안마을, 사찰, 거돈사지, 석축, 느티나무, 보호수









느릅나무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766-7
37° 30.091′ N / 128° 14.090′ E

- 지정번호 : 강원-횡성-4
- 지정연월일 : 1982.11.13
- 수고 : 23m
- 관리기관 : 강원도청
- 수령 : 410년
- 흉고둘레 : 6.2m

| 어떻게 살았을까?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에 410년 이상을 살고 있는 커다란 느릅나무가 있다. 고목의 느릅나무는 영동고속도로가 지나는 고가도로의 아래에 서 있다. 이 느릅나무는 도로 옆의 작은 공원처럼 꾸민 곳에서 잘 자라고 있다. 인근에 청운정(靑雲亭)의 아담한 정자가 있다.

이 느릅나무는 옛날 이 지방을 지나가던 한 노승이 꽂아둔 지팡이가 자라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왕성한 생육을 보이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이곳의 느릅나무는 애잔한 전설을 가지고 있다. 잘 알려진 구전은 자식을 그토록 원하던 충청도 부부의 이야기이다. 부부는 두원리(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의 느릅나무에 소원을 빌면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느릅나무를 찾아가 그 아래에서 100일 동안 기도를 드렸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 그러나 3년 만에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자 한 신령이 꿈에 나타나 이 느릅나무를 찾아가 보라고 일러주었다. 부부는 행여나 싶어 찾아가 보았다. 몇 년 전 기도를 드릴 때에 생육이 왕성하였던 느릅나무가 말라 죽은 듯이 보였다. 아이가 아팠을 때에 잎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 느릅나무는 한 귀퉁이에서 새로운 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아들은 느릅나무의 화신이었다.

몇 가지 전설이 더 전하고 있다. 경북 풍기 지방의 어린 아이가 병으로 생을 마치기 바로 전에 어머니에게 저를 보고 싶으면 두원리(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의 느릅나무를 찾아가 보라고 하였다. 아이가 죽은 후 어머니는 어느 때에 이 느릅나무를 찾아갔다. 이 느릅나무는 아이가 아팠을 때에 죽은 듯이 싹이 나오지 않았다가 아이가 죽은 후에 신비롭게도 잎이 다시 나기 시작하면서 싱싱하게 자라났다.

다른 전설은 옛날 경기도의 한 어머니가 어린 자식의 병을 고치려 하였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아이를 고칠 약을 찾아 헤매던 어머니는 두원리(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의 느릅나무 공동에 고인 물을 길어다 목욕을 시키니 곧바로 나았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후 이 느릅나무로 화신한 전설을 믿고 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자식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시 살고 있는 이 느릅나무에 서낭신(성황신)을 모시고 매년 음력 정월 정일(丁日)에 치성을 드리고 있다. 따라서 이 느릅나무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신목인 셈이다.

이 느릅나무는 위쪽으로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있어 풍광을 해치는 것이 흠이지만 정비가 잘 된 공원에 잘 보존되어 있다. 보호수 옆의 또 다른 느릅나무는 후계목처럼 고목으로 자라는 것도 볼 만하다.

태그 | 횡성, 고가도로, 잉태, 죽음, 화신, 신목, 느릅나무, 보호수









강원지역 고성군

은행나무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38° 22.799′ N / 128° 28.046′ E

- 지정번호 : 강원-고성-1
- 지정연월일 : 1982.11.13
- 수고 : 25m
- 관리기관 : 강원도청
- 수령 : 700년
- 흉고둘레 : 7.8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은행나무는 고려시대인 1280년대에 심은 것으로 전하고 있다. 가지가 동쪽과 서쪽으로 넓게 벋어 있다. 구전에 따르면 고목의 은행나무는 1950년 6.25한국전쟁 이전까지 2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2그루가 있었다. 각각 암그루와 수그루의 은행나무이었지만 암그루는 6.25한국전쟁 때에 없어졌다. 당시에 괴뢰군들은 학교가 있었던 이곳에서 회의를 한다고 양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수용하고 불을 질렀다. 학교가 불에 탈 때에 2그루 중의 하나인 암그루의 은행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졌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고성군 간성읍에서 전하는 옛 기록에 삼정(三井), 사지(四池), 오목(五木)이 있다. 이는 고려시대 원님이 3곳의 우물을 파고, 4곳의 연못을 만들고, 5개(또는 종류)의 나무를 심으면 관직에 오래 머물 수 있다는 뜻이란다. 이에 옛날 간성 마을의 원님은 마을에 우물과 연못을 파고 나무를 심었다. 그 중 오목(五木)이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지거나 전하는 바가 없지만 고성군청 정면의 언덕배기에 자라는 은행나무는 오목 중에 유일하게 오늘날까지 현존하는 나무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고성군청 입구의 수그루 은행나무는 6.25한국전쟁 당시에 불에 타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다. 그리고 이 은행나무는 1964년 가을에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하여 3일간이나 불타다가 꺼지기를 반복하였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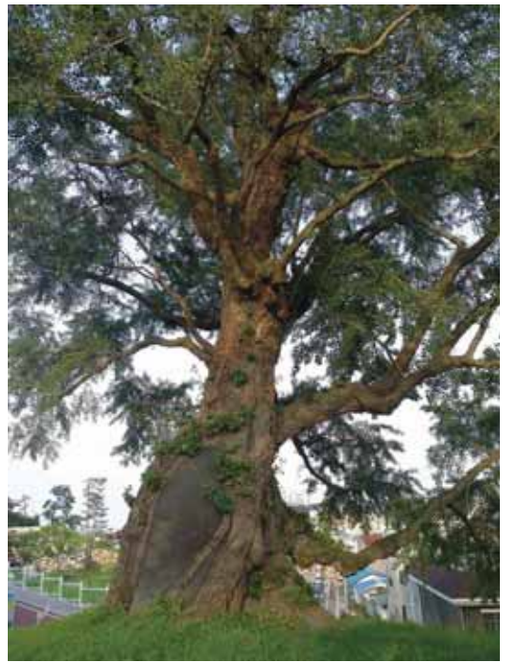
이 은행나무와 관련한 구전이 전하고 있다. 조선시대 말기이었다. 이 은행나무의 지근거리에 이원삼(李元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있었다. 이 집에서는 닭을 10여 마리 키웠는데, 어느 날부터 닭이 한 마리씩 없어지는 괴이한 일이 생겼다.

이원삼은 닭이 없어지는 이유를 알기 위하여 밤을 지새워가며 지켜보았다. 그가 목격한 바로는 닭이 도둑을 맞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생각지도 않았던 몸길이 40cm에다 몸집이 10cm나 되는 큰 지네가 나타나 닭을 먹어버렸던 것이다. 그는 이 일이 있고 나서 닭을 키우지 않았다. 밤이 되면 나타나는 지네를 잡지도 못하였다. 그 후 왜군 수비대가 간성 마을에 진주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왜군도 이 은행나무에 큰 지네가 나타난다는 말을 듣고 지네를 잡기 위하여 무수한 총탄을 나무에 퍼부었다. 그런데도 지네는 온데간데없이 잡을 수가 없었다.

이 은행나무는 줄기 밑동에 공동을 충전한 자국이 있지만 생육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현재 고성군을 상징하는 나무는 은행나무이다. 고성군을 상징하는 노거수의 은행나무가 고성군청 앞마당에 위치하고 있어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태그 | 고성군, 하리, 고성군청, 군목, 6.25한국전쟁, 암수딴그루, 은행나무, 보호수







느릅나무

강원도 정선군 남면 유평리 149-1
37° 17.071′ N / 128° 45.044′ E

- 지정번호 : 강원-정선-3
- 지정연월일 : 1982.11.13
- 수고 : 17m
- 관리기관 : 강원도청
- 수령 : 700년
- 흉고둘레 : 5.7m

| 어떻게 살았을까?

정선군 유평리의 보호수는 마을 입구의 경사지 동산에 2그루가 있고, 도로보다 조금 낮은 골목길의 평탄지에 2그루, 인근에 1그루가 있다. 동산의 고목은 2그루 중 1그루가 고사 직전이었다. 마을 골목길의 느릅나무 2그루는 15m 사이를 두고 떨어져 있다. 2그루의 느릅나무는 높이 2.5m 정도에서 줄기가 갈라져 자라며, 수관이 서로 붙을 만큼 넓게 퍼져 있고 그늘을 제공하고 있다.
마을의 쉼터이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봄날은 간다'는 2001년에 개봉한 대한민국의 영화이다. 아련한 추억을 감성으로 자극하여 잔잔한 인기를 모았던 사랑이야기의 영화이다. 지방 방송국 아나운서인 은수는 사랑을 이미 아는 현실적인 이혼녀이고, 사운드 엔지니어인 상우는 차츰 사랑을 알아가는 연하의 남자로 나온다. 그들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필요한 소리를 채집하기 위하여 녹음 여행을 떠난다.

둘은 강원도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채집하면서 사랑도 싹트게 된다. 상우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은수에게 빠져든다. 하지만 이혼의 아픔을 간직한 은수는 순수한 상우의 사랑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이내 결별을 선언한다. 영원히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랑이 변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우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은수를 잊지 못하는 상우는 미련과 집착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서울과 강릉을 오간다. 은수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

영화 '봄날은 간다'의 주요 촬영지는 강원도이다. 그 중 유평리의 촬영지가 돋보인다. 한치마을의 보호수가 있는 자리이다. 이 마을은 흔히 보호수마을이라 부른다. 150여m 반경의 도로 양쪽에 5그루의 고목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부르는 마을 이름이다. 1그루는 보호수로 지정된 굴참나무이며, 성황당과 함께 텃밭의 언저리에 있다. 이 굴참나무는 높이 자란 것이 특징이다. 4그루는 느릅나무 고목인데, 느릅나무 4그루 중 3그루는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골목길의 평탄지에 있는 2그루의 느릅나무는 영화 '봄날은 간다'의 실제 촬영 장소의 고목이다. 영화가 개봉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촬영 당시의 울타리 및 평상 설치가 그대로 남아 있다. 빛이 바랜 안내판은 이 느릅나무가 나오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호수들은 마을의 상징목이면서 쉼터의 나무로 활용하고 있다. 고목 주변은 주택이 있고 사방이 밭이다. 지면은 흙 또는 자갈을 깔아놓았다. 마을 사람들이 보호수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다. 이 고목들은 마을의 당산목(또는 성황목)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보호수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한해의 풍년과 무사안녕을 빌곤 하였다.

태그 | 정선, 영화, 보호수마을, 느릅나무, 굴참나무, 보호수, 성황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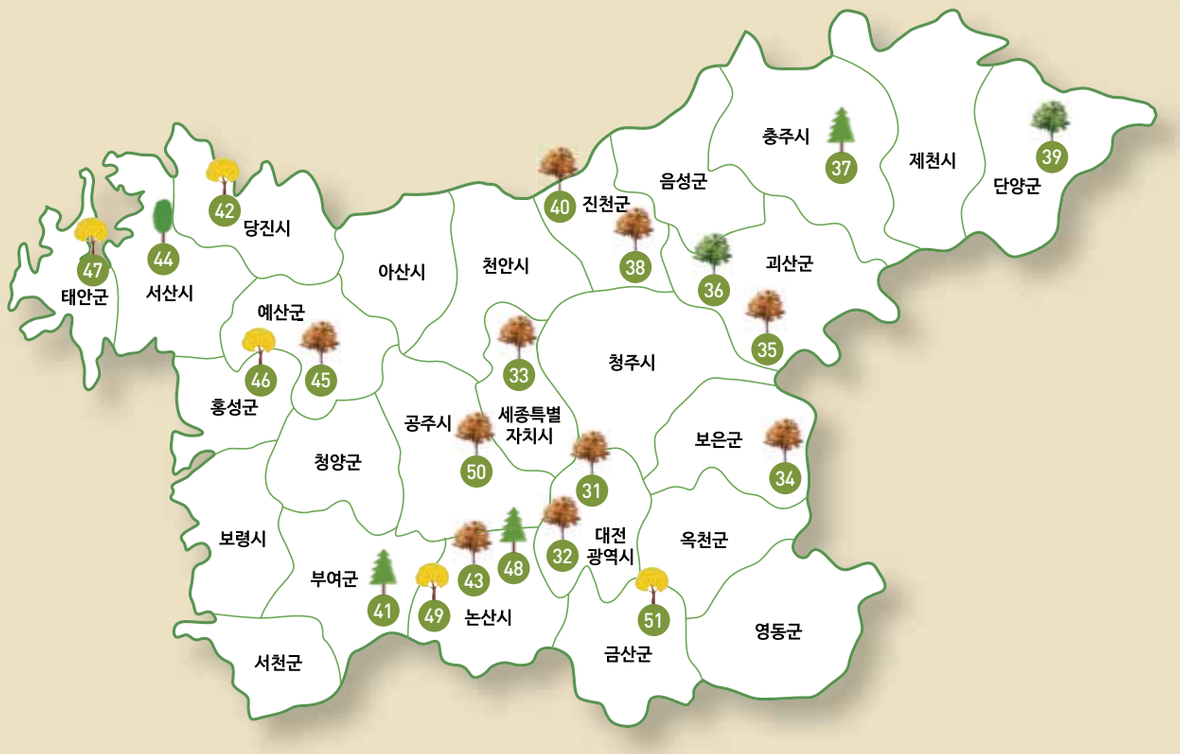




충청지역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보은군 / 괴산군 / 충주시 / 진천군 / 단양군 / 부여군 / 당진시 / 논산시 / 서산시 / 예산군 / 홍성군 / 태안군 / 공주시 / 금산군

31	느티나무	대전	유성구 봉산동 297	86
32	느티나무	대전	서구 복수동 898	88
33	느티나무	세종	전의면 다방리 3	90
34	느티나무	충북	보은군 마로면 원정리 87	92
35	느티나무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괴산로공림길 104	94
36	말채나무	충북	괴산군 사리면 모래재로샘내골길29	96
37	소나무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201	98
38	느티나무	충북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212-1	100
39	느릅나무	충북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775-5	102
40	느티나무	충북	진천군 백곡면 석현리 산28	104
41	소나무	충남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254	106
42	은행나무	충남	당진시 서문2길28	108
43	느티나무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141-8	110
44	비자나무	충남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 산20	112
45	느티나무	충남	예산군 대흥면 중리길 35-11	114
46	은행나무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577-1	116
47	은행나무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속말1길 61-61	118
48	소나무	충남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34-3	120
49	은행나무	충남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353-1	122
50	느티나무	충남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803	124
51	은행나무	충남	금산군 추부면 신평길 12-14	126





느티나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297
36° 26.376′ N / 127° 23.074′ E

- 지정번호 : 6-4-6
- 지정연월일 : 1982.10
- 수고 : 26m
- 관리기관 : 대전시청
- 수령 : 500년
- 흉고둘레 : 7.2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느티나무는 기관의 자료 및 표지판 등에 나타난 수령이 각각 이다. 수령 320년 기록이 있고, 500년 추정 및 2,000년 기록도 있다.

1982년 10월에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3갈래로 뻗어나간 굵은 가지는 마치 하늘의 기운을 그대로 전해 받으려는 듯 넓게 펼쳐져 있다. 가지 벌림이 커서 몇 개의 나무받침대를 하고 있다. 정면의 줄기는 충전 등의 치료 흔적이 있다.

그래도 생육이 양호하다.

| 어떻게 찾아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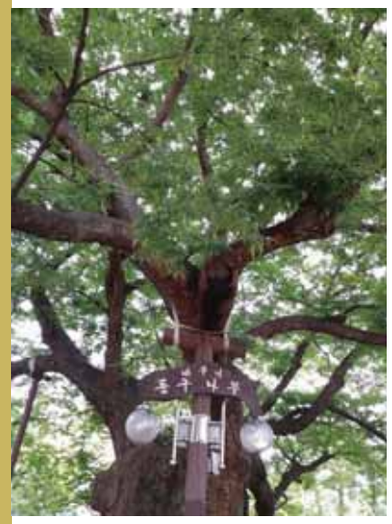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동구나무'일까. '둥구나무'가 맞는 말일까. 찾아보니 둘 모두 쓰는 우리말이었다. 동구나무는 동네의 어귀에 서 있는 나무를 뜻하고, 둥구나무는 마을에서 크고 오래도록 자라는 정자목을 의미하였다.

'둥구나무'라는 안내판을 걸고 있는 나무가 있었다. 대전시 유성구 봉산동의 느티나무이다. 작은 공원에 있는 이 느티나무는 잘 정비된 곳에서 둥구나무로 자라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서인지 어느새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었다. 주민들은 푸른 그늘 아래에서 위안과 평화를 얻고 있다.

봉산동 앞바구니마을에서는 이 느티나무를 신목(神木)이라 부르고 있다. 마을의 수호신처럼 받드는 나무이다. 마을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이 느티나무 신의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믿고 있다. 매년 음력 정월 열 나흗날에 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목신제(木神祭)를 지낸다. 액운을 막고 안녕과 평화를 기원해오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이 목신제를 전통민속예술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목신제를 지내는 날은 아침부터 풍물패가 농악을 울리며 마을의 여러 곳을 돈 후에 느티나무 아래로 모인다. 이는 마을의 오방신(五方神)을 느티나무 아래로 모시기 위한 것이다. 이때쯤 되면 앞바구니, 뒷바구니 사람들이 느티나무 아래로 모여들어 제사를 지낸다. 제사가 끝나면 이어 놀이가 시작되는데, 이 놀이를 바구니해싸움놀이라 부른다.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무에서 돋아나는 잎을 보고 잎이 동시에 피면 풍년이 들고, 여러 차례 나누어 피면 흉년이 드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 느티나무는 도로 옆에 자라고 있지만 데크 등과 경계시설로 보호받고 있다. 몇 해 전에는 주민 6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유성구 봉산동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추진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주변이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면서 생육공간이 좁은 탓이다.

이 느티나무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구즉액막이놀이 보존회' 및 '바구니둥구나무제보존회' 등의 관심과 정성이 깃들어 있어 다른 어느 지역의 보호수보다도 사랑받고 있다.

태그 | 대전시, 봉산동, 공원, 둥구나무, 목신제, 신목, 느티나무, 보호수



느티나무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898
36° 17.801′ N / 127° 22.780′ E

- 지정번호 : 6-3-1
- 지정연월일 : 1982. 10
- 수고 : 20m
- 관리기관 : 대전시청
- 수령 : 430년
- 흉고둘레 : 5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느티나무는 2개의 나무처럼 줄기가 지표에서 약간 떨어져 있다. 그런데 이 느티나무는 원래 한 그루이었으나 공동 등의 치료 과정에서 2갈래로 갈라져 2그루처럼 되었다. 줄기는 공동의 충전치료 흔적이 많다. 줄기가 계속 기울어져가고 있어 받침대 4개가 설치되었다.

이 느티나무는 1982년 10월에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수령 430년 이상이다.

주변보다 약간 낮은 곳에 자라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어느 마을을 가다가 둥구나무를 본다. 대부분이 정자목이다. 그 나무는 당산목의 역할도 한다. 마을의 수호신입니다. 외출할 때 인사하고, 돌아오면서 마음 속 인사를 하는 나무이다. 마을을 방문한 나그네가 고목의 나무를 보며 매무새를 고쳤을 것이다. 그런 나무는 느티나무가 흔하다.

대전시 서구 복수동의 신시가지 유등천변에 커다란 둥구나무가 있다. 고목의 느티나무이다. 흔히 '복수동 느티나무'라 부른다. 복수동의 지명은 고려시대에 복수소(福守所)가 있었기 때문이다. 복수란 지명이고, 소는 행정단위의 명칭이다. 고려시대에는 중국의 제도를 빌어 군, 현 아래에 향, 소, 부곡과 장, 처 등의 특수 행정조직을 따로 두었다.

이 느티나무도 다른 지역의 둥구나무처럼 동네의 정자목이면서 당산목의 구실을 하였다. 예전에 마을 사람들은 단오에 이 나무 아래에서 정화수를 준비하여 제를 올렸다.

또한 마을 사람들은 칠월칠석과 백중 때는 이 느티나무 주위에 모여 씨름, 제기차기, 그네뛰기, 윷놀이 등의 민속놀이를 하면서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느티나무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복수동느티나무보존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보존회는 어버이날을 즈음하여 제를 올렸다. 이를 '목신제'라 부르고 있다. 가족의 건강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함과 아울러 경로잔치를 열러 경로효친과 동민화합의 기회로 삼았다.

이 느티나무가 있는 곳은 주변보다 약간 낮다. 공원을 정비할 때에 주위를 돌담으로 쌓아 높였기 때문이다. 약간 높은 지면 위에 철망으로 경계를 하고 있다. 갈라진 줄기 사이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 느티나무는 마을 주민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신목이다. 마을을 지켜준 수호신이다. 사람들은 주민의 안녕과 행복을 지켜주는 나무로 믿고 있다. 이 느티나무 옆으로 유등천의 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고, 그 옆으로는 작은 공







원이 조성되어 있다. 이곳은 보호수가 있는 휴식공간이다. 도시민들이 쉴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다.

태그 | 대전시, 복수동, 유등천, 정자목, 단오, 당산목, 느티나무, 보호수



느티나무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다방리 3
36° 36.655′ N / 127° 11.509′ E

- 지정번호 : 1972-24
- 지정연월일 : 1972. 7. 3
- 수고 : 15m
- 관리기관 : 세종시청
- 수령 : 810년
- 흉고둘레 : 4.7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느티나무는 수령 810년 이상이다. 이 느티나무는 비암사의 돌계단 입구 위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느티나무는 2000년대 초에 잎이 매년 약간씩 시들어 듬성듬성하였다. 그러자 스님이 부임 직후 막걸리를 이틀간 4말을 부어주었더니 예전의 푸름을 되찾았다. 과학적인 근거가 미흡하지만 고목에 막걸리를 주는 일은 선인들의 지혜이었다.
밑동줄기가 비스듬히 자라지만 생육이 양호하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백제의 혼이 서린 고찰이 '비암사(碑岩寺)'이다. 1988년 전통사찰로 등록된 백제의 마지막 종묘사찰이다. 연기군 비암사로 알려져 있던 곳이지만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 생기면서 행정구역이 바뀐 사찰이다.

비암사를 가려면 좁고 꼬불꼬불한 도로를 올라가야 한다. 걸어서 가도 되지만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다. 10여 년 전에 개설된 진입도로 중 세심교 밑 200m 지점은 제주도의 일명 '도깨비도로'와 같이 150여 m가 실제 1.2m의 높낮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낮은 지점에서 높은 지점으로 물체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비암사는 산기슭에 아담하게 자리하고 있다. 비암사는 통일신라 말기 도선국사가 창건한 사찰이라고 하나 정확한 연혁은 알 수 없다. 비암사는 백제의 마지막 종묘사찰이다. 백제국왕대신과 호국영령들의 혼을 모시던 고찰이다. 매년 4월 15일 백제의 부흥을 기원하기 위하여 '백제대제'가 이곳에서 성대하게 거행되고 있다.

비암사 주차장에서 낮은 돌계단을 오르면 오른쪽에 거대한 느티나무가 반겨준다. 사찰의 일주문이고, 천왕상이고, 살아있는 절의 역사이었다. 세종시 전의면은 이름이 있는 '도요지'이었다. 이 일대는 대부분 왜군들에게 끌려갈 정도로 폐해가 극심하였다. 절 또한 화를 입었다. 그러나 느티나무만은 멀쩡하였다.

이 느티나무는 마을에 흉년이 들 것 같으면 잎이 밑에서부터 위로 돋아나고, 풍년이면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핀다고 전하고 있다. 영험성을 간직한 나무이다. 고목의 느티나무는 신목(神木)으로 기림을 받고 있다. 나이가 들면 나무모양이 거의 둥근 부채 모양인데, '우주나무'로 딱 어울리는 모습을 한다. 비암사의 느티나무는 모양이 둥그스름하지 않지만 보기 좋게 퍼져 자라고 있다.

비암사 초입의 금사리는 마을 전체가 '도요지'로 알려져 있다. 이 마을에서는 1993년부터 도자기마을의 옛 전통을 되살리기 시작하였다. 마을 초입에 숙소를 겸한 도자기체험관을 세워 놓았다. 그 옆에 가마가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태그 | 세종시, 연기군, 다방리, 비암사, 종묘사찰, 신목, 느티나무, 보호수



느티나무

충북 보은군 마로면 원정리 87
36° 23.278′ N / 127° 48.996′ E

- 지정번호 : 보은-6
- 지정연월일 : 1982. 8
- 수고 : 15m
- 관리기관 : 충북도청
- 수령 : 500년
- 흉고둘레 : 4.3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느티나무는 1982년 8월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수령은 500년 이상이다. 줄기와 가지가 사방으로 고르게 벋어 있어 울창하게 보인다. 멀리서 내려다보는 모양이 일품이다.
이 느티나무가 있는 곳은 고목의 느티나무와 그 아래 의자 몇 개 놓은 게 전부이지만 요즘도 많은 사진작가들이 자주 찾을 정도로 사진작가들에게는 최고의 사진 모델이다.
논밭과 농로 옆에서 잘 자라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아름다운 들판의 전형적인 농촌 풍경. 나지막한 산이 있는 마을.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색을 달리하는 논밭이 정겨운 곳이다. 보은군 마로면 원정리 마을이다. 농촌 풍경의 다양함을 만들어 내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보기 좋은 느티나무가 있고, 보리 부자의 전설이 잘 알려진 곳이다.

이 마을에 전하는 보리 부자의 전설은 다음과 같다. 보리 1천 석을 하는 부자가 있었다. 그는 어찌나 인심이 사나웠던지 이웃 간에 왕래조차 없었다. 하루는 스님이 나타나 시주를 요구하니 이를 단호히 거절하며 스님을 내쫓았다. 마음이 상한 스님이 돌아서며 마을 입구에 있는 정자목과 돌을 없애면 쌀 1천 석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중얼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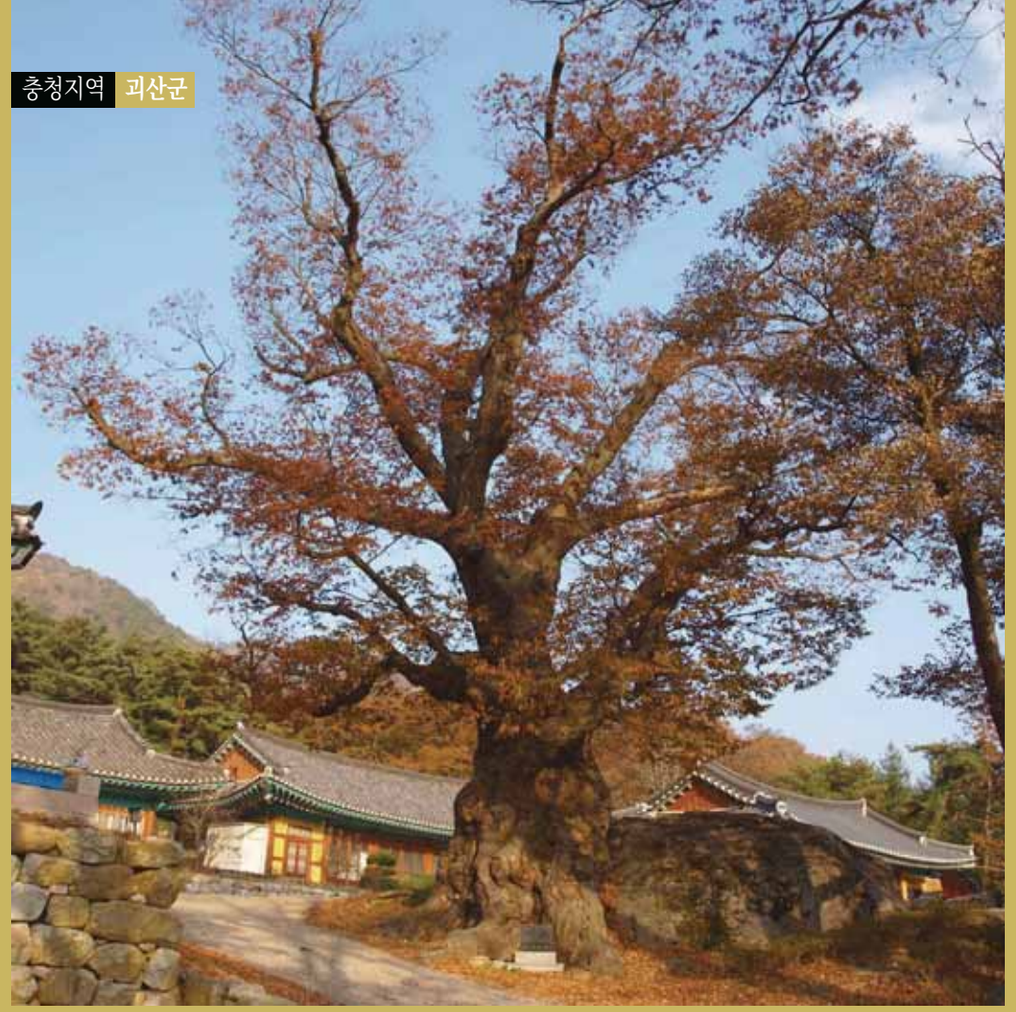
부자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나무를 베고 돌을 치워 버렸다. 그런데 부자는 몇 해 안 가서 알거지가 되어 마을을 떠났다. 그 후에도 마을은 재앙이 끊이질 않았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심고 돌탑을 쌓았더니 재앙이 끝나고 풍년이 들게 되었다.

보리 부자 전설이 있는 원정리는 논길 바로 옆에 보호수로 지정된 고목의 느티나무가 자리하고 있다. 이 느티나무가 있는 자리는 쉼터이다. 넓은 논밭의 사이에 우두커니 자라난 느티나무에 서면 벼의 물결과 바람소리, 느티나무의 나뭇잎들이 서로 스치는 소리, 새소리가 어우러진다.

이 느티나무는 사진을 좋아하는 작가들에게 잘 알려진 고목이다. 논밭 한가운데 위치하기 때문에 사방이 뚫려 있다. 공간이 넉넉하고 여유롭다. 거기에 들판이 배경이 되어 풍성하기까지 하다. 나무 모양이 아름답고, 주변의 들판과 논밭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고 있다. 이 느티나무가 서 있는 곳은 사진작가의 사랑과 함께 영화, 방송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이곳은 2005년 영화 '잘살아보세' 촬영지이었다. 2010년에는 MBC 특별기획 드라마 '로드 넘버원'의 촬영지이었다. 이후 많은 광고에 등장한 곳이다. 농로 입구에는 로드넘버원의 촬영지였음을 알리는 간판이 서 있다.

태그 | 보은군, 원정리, 보리 부자, 사진작가, 영화 촬영지, 느티나무, 보호수



느티나무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괴산로공림길 104
36° 37.890′ N / 127° 48.999′ E

- 지정번호 : 54
- 지정연월일 : 1982.11.16
- 수고 : 12m
- 관리기관 : 충북도청
- 수령 : 990년
- 흉고둘레 : 8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느티나무는 충북의 느티나무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살고 있음에도 여전히 건강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그러나 줄기 위쪽은 밑동의 줄기에 비하여 허약하다. 위쪽에 큰 가지를 자른 흔적이 남아 있다.

이 느티나무는 긴 세월을 지나면서 많은 수족을 잃었다가 다시 자라나기를 반복하였지만 현재의 생육상태가 양호하다.

이 느티나무는 수령 990년 이상이다. 공림사 경내에는 이 느티나무 이외에도 여러 고목의 느티나무가 자라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괴산군은 느티나무의 고장이다. 느티나무는 현재 '괴산군'을 상징하는 나무이다. 괴산군 지명 탄생의 유래를 담고 있는 나무이다. 괴산군의 '괴(槐)'는 회화나무 또는 느티나무의 뜻을 담고 있다. '괴'를 지명으로 쓰고 있는 곳은 괴산군을 비롯하여 대전 괴곡동, 부산 사하구 괴정동, 경남 밀양 괴리 등이 있다. 괴산군은 수령 100년 이상의 느티나무가 110그루가 넘게 자라고 있고, 300년 이상의 느티나무도 50그루가 넘는다.

느티나무는 수령이 긴 편이다. 잎이 무성하여 모양이 아름답다. 그리고 악귀를 쫓는다고 하여 관아와 마을 입구 또는 고개에 많이 심었다. 느티나무는 예전에 심은 것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있는 곳이 많다.

느티나무 '괴'는 존귀함을 뜻하여 왕이 있는 궁궐을 '괴신(槐宸)', 최고의 행정기관인 의정부를 '괴부(槐府)', 나라의 외교에 관한 문서를 맡아본 승문원은 '괴원(槐院)', 3정승의 자리를 '괴위(槐位)', 3정승의 지위를 나타내는 말로 '괴정(槐鼎)'이라 불렀다.

느티나무는 대한민국에서 고목으로 자라는 것이 많고, 보호수로 지정한 나무 종류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1000년 이상의 느티나무가 더러 있지만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의 공림사(公林寺)에 고목의 느티나무가 있다. 이 느티나무는 990년 이상을 살아가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

공림사는 오래된 느티나무 여러 그루가 줄지어 있는 듯이 자라고 있다. 그 중 990년 이상을 살아가는 느티나무는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길의 오른쪽 모퉁이에 있다. 말이 990년이지 1000여 년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느티나무가 자리한 곳은 큰 바위가 있다. 바위 곁에 자라고 있어 잘 어울려 보인다. 이 느티나무는 공림사가 창건할 무렵의 신라 경문왕(861~874년) 때 심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8·15광복과 6·25한국전쟁 때에 이 느티나무가 울었다는 전설이 있다.





이 느티나무는 줄기가 990여 년의 연륜이 새겨진 듯 울퉁불퉁하다. 바위에 붙어 자라는 것이 말 그대로 '괴목'이다.

태그 | 괴산군, 사담리, 공림사, 천년수, 상징목, 느티나무, 보호수



말채나무

충북 괴산군 사리면 모래재로샘내골길 29
36° 49.152′ N / 127° 38.899′ E

- 지정번호 : 77
- 지정연월일 : 1982.11.16
- 수고 : 15m
- 관리기관 : 충북도청
- 수령 : 520년
- 흉고둘레 : 1.6m, 1.2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말채나무는 수령이 520년 이상이다. 도로와 인접한 논밭 끝에 있다. 밑동에서 줄기가 완전히 갈라져 2개의 나무처럼 자라고 있다. 그 아래에는 거북 형상의 보호석 및 표지석이 있다.
말채나무는 여러 꽃이 모여서 만든 뭉치가 나무 전체를 덮어서 아름답다. 까만 열매와 붉은빛의 가지가 짙은 녹색의 잎과 잘 어울려 보기에 좋다.
이 말채나무가 아름다운 수형과 함께 고목으로 자라는 점이 특이하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한반도에 자라는 나무 중에 '말채나무'라 부르는 종류가 있다. 층층나무과에 속하는 큰키나무이다. 말채나무는 옛날에 말을 몰 때 채찍으로 쓰여서 '말채찍나무'라 하였고, 이것이 변한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말채찍나무와 관련된 전설이 있다. 옛날 산골 마을에는 매년 한가위 보름달이 뜨면 천년 묵은 지네들이 떼거리로 몰려와 거둬들인 곡식을 모두 먹어버렸다. 마침 마을을 지나가던 한 젊은 무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독한 술 일곱 동이를 빚어서 마을 어귀에 가져다 놓으면 지네를 퇴치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예년처럼 보름날 다시 나타난 지네들은 술통을 보고 정신없이 마시고는 모두 잠이 들었다. 무사는 이때다 싶어 술에 취한 지네들의 목을 모조리 베어 버렸다.

그리고 무사는 가지고 다니던 말채를 땅에 꽂아 놓고 마을을 떠났다. 말채는 봄이 되자 싹을 틔워 크게 자라났고, 이후 지네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말채에서 자랐다고 하여 '말채나무'라 하였다. 지금도 말채나무 근처에는 지네가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이 전설의 실제 나무가 어느 곳의 것인 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일설에는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의 말채나무로 짐작하고 있다.

사담리의 말채나무는 단양우씨 문중에서 500여 년 전에 후손의 번영을 위하여 수구수(水口樹)로 마을 앞에 심은 것이다. 그 뜻은 편책(鞭策), 즉 채찍질한다는 뜻으로 후손에게 격려의 뜻을 함축시켜 기념한 것이다. 단양우씨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면 더욱 잘 달리게 되듯이 후손들의 번창을 위하여 채찍 유래의 말채나무를 심었다.

지리 환경적으로는 마을을 오래도록 평안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깊은 뜻을 가졌다. 후손들에게 살아가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하라는 의미의 채찍질을 안겨주기도 한다. 이 말채나무는 마을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거나 좋은 기운이 밖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아준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





한편 이 말채나무가 있는 곳의 150m 전방에 고목의 느티나무 보호수가 자라고 있다.

태그 | 괴산군, 사담리, 말, 채찍, 단양 우씨, 말채나무, 보호수



소나무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201
36° 56.808′ N / 127° 54.054′ E

- 지정번호 : 충주94호
- 지정연월일 : 1983.1.7
- 수고 : 8m
- 관리기관 : 충북도청
- 수령 : 510년
- 흉고둘레 : 2.1m

| 어떻게 살았을까?

충주시 단호사 대웅전 앞에 누워 자라는 고목의 소나무가 있다. 보호수이다. 멀리서 보면 커다란 화분에 잘 가꾸어 놓은 한 그루의 큰 분재처럼 보인다.

510년 이상을 살고 있는 소나무이다. 가까이 가서 보면 구불구불한 줄기가 마치 용트림을 하듯이 기운차게 뻗어나간 모습이다. 이 소나무는 줄기껍질이 벗겨져 온통 붉은빛으로 보이는 것이 아름답다.

옆으로 자라고 있어 여러 받침대에 의지하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충주시의 단호사(丹湖寺)는 고려 시대에 제작한 철조여래좌상(보물 512호)이 모셔져 있는 작은 절이다. 몇 그루의 고목이 눈에 띄고, 충주에서 수안보로 가는 대로변에 있어 찾기가 쉽다. 단호사는 고목의 소나무가 상징목처럼 버티고 있어 한 때 '송림사'로 부르기도 하였다.

단호사의 소나무는 조선 초기에 심어진 것으로 전하고 있다. 전하는 이야기가 더러 있다.

조선시대 초에 강원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문씨가 재산은 많아도 슬하에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중 어느 날 한 노인으로부터 충주 단월 지방의 단호사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 득남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을 들은 문씨 부인은 곧바로 강원도에서 단신으로 단호사로 가서 옆에 불당을 짓고 불공을 드리며 살았다. 부인은 산호사에서 살 던 중에 적적하여 뜰에 소나무 한 그루를 심고 지성으로 가꾸었다. 당시에 문씨가 심고 정성들여 가꾼 소나무가 바로 이 소나무이다. 수령은 510년 이상이지만 600년 이상으로 추정하는 기록이 더 많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이야기가 구전하고 있다. 어느 날이었다. 문씨 부인은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고향집 마당에다 한 그루의 소나무를 심고 안방에 부처님을 모셔놓은 꿈을 꾸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부인의 꿈에 단월동의 단호사 법당이 자신의 집 안방으로 바뀌어 보였다는 것이다. 그 부인이 생각하기를 남편과 같이 살라는 꿈의 암시로 알고 강원도에서 모두 정리하여 단호사로 와서 법당 옆에 살았다. 부인은 그 후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불공을 드리고 소원성취 하였다.

충주시 단월동의 단호사와 이곳의 소나무는 득남을 위하여 불공을 드리는 부부의 간절함이 전해지는 곳이다.

단호사는 절을 지키듯이 고목으로 자라는 나무가 몇 그루 있다. 대웅전 앞에서 고목으로 자라는 소나무를 비롯하여 몇 그루의 고목이 자라고 있다. 느티나무 등이다. 느티나무는 단호사 입구에 한 그루가 서 있고, 대웅전 옆







에 또 한 그루가 높게 자라고 있다. 이 느티나무들은 수령이 250~350년이다.

태그 | 충주시, 단월동, 단호사, 철조여래좌상, 느티나무, 와송, 소나무, 보호수



느티나무

충북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212-1
36° 48.471′ N / 127° 25.918′ E

- 지정번호 : 진천28호
- 지정연월일 : 1982. 11. 11
- 수고 : 14m
- 관리기관 : 충북도청
- 수령 : 653년
- 흉고둘레 : 7.3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느티나무는 1982년 11월 11일에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이 느티나무는 1940년대까지 줄기가 3갈래로 갈라져 자랐으나 그 후 한 줄기가 고사하여 현재 2줄기로 자라고 있다.
원줄기 밑동은 충전치료 흔적이 크게 남아 있다.
이 느티나무 자리 잡고 있는 땅은 흙과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즉 경로당과 정자가 있는 쪽은 시멘트의 평탄지이고, 그 뒤쪽은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느티나무 안쪽은 마을 주택이 들어서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수령 653년 이상의 느티나무. 고목의 느티나무가 가까스로 마을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다. 이와 관련한 느티나무의 이야기가 있다.

2014년의 일이다. 문백면 태락리 태랑마을의 마을을 상징하는 느티나무를 포함하는 땅이 공매 처분에 들어갔다. 이 느티나무가 있는 부동산 272㎡가 소유주의 국세 체납으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가 시작되었다.

문제의 땅은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는 지점이다. 또한 그곳은 마을 입구의 진출입로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바로 옆에 경로당이 있는데, 이곳을 밟지 않고는 경로당은 물론 마을 왕래를 할 수 없는 곳이다.

그동안 고목의 느티나무가 버티고 있는 이곳은 땅 소유자가 일체의 임대료 등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미덕을 보여 마을 왕래에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이 느티나무가 있는 땅이 뜻하지 않은 공매 처분으로 비상이 걸렸던 것이다. 자그마한 농촌의 마을 사람들은 큰일이다 싶어 급하게 마을기금으로 공매물건에 응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마을 주민들은 공매진행 과정을 지켜보았다. 혹시라도 악의를 가진 투자자가 응찰하지 않을까 마음 졸인 7개월이었다. 공매는 7회의 유찰 결과 운이 좋게도 그 땅을 낙찰받을 수 있었다.

이 느티나무는 마을 사람들이 대화의 장소이면서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그 곁에 정자도 마련되어 있다. 1941년 청주농업학교 교사였던 일본인 마도노 박사가 충북에서 2번째로 오래된 나무라 하여 귀중하게 여겼다. 이 느티나무는 그 후로 잘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느티나무가 있는 문백면 태락리는 삼국시대에 유일한 교통수단의 역참제도를 실시하였을 때에 역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역의 규모는 역마가 14마리, 역리가 31명, 역노가 70명, 역비가 17명의 관원(官員)이 배치된 곳으로 비교적 큰 역에 속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당시 역사 앞에 이 느티나무가 있었던 것으로 믿고 있다.







태그 | 진천군, 태락리, 역참제도, 공매, 고목, 느티나무, 보호수



느릅나무

충북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755-5
37° 02.915′ N / 128° 23.421′ E

- 지정번호 : 단양-20
- 지정연월일 : 1993. 8. 28
- 수고 : 20m
- 관리기관 : 충북도청
- 수령 : 500년
- 흉고둘레 : 5.9m

| 어떻게 살았을까?

느릅나무는 한반도의 중부권 분포가 많다.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의 느릅나무도 그 중 하나인 듯하다. 수령 500년 이상을 살고 있는 느릅나무이다. 1993년 8월에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이 느릅나무는 신목이다. 그 밑에서 정월 초에 제를 지낸다. 줄곧 금줄이 둘러져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길을 정비한 탓에 빗물의 침투가 약간 더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생육이 양호한 편이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삼국사기(三國史記)'의 평강공주와 온달장군 이야기는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온달이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러 간 내용이 나온다. 고구려 25대 평원왕(559~590년)의 딸 평강공주와 온달과의 만남은 사랑이었다. 어릴 때 유난히 울보였던 평강공주에게 왕은 그렇게 잘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보낸다."고 놀렸다.

그러나 말이 씨가 되었는지 공주가 열여섯이 되었을 때에 보물 팔찌 수십 개를 팔꿈치에 걸고 궁궐을 나와 혼자 온달의 집을 물어 찾아갔다. 눈먼 노모에게 절하고 아들이 있는 곳을 물었다.

그러자 나이가 많은 어머니는 "내 아들은 가난하고 보잘 것이 없으니 귀인이 가까이 할 만 한 사람이 못 됩니다. 지금 그대의 체취를 맡으니 향기가 보통이 아니고, 그대의 손은 부드럽기가 솜과 같으니, 필시 천하의 귀인인 듯합니다. 누구의 속임수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내 자식은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려 산 속으로 간 지 오래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공주가 그 집을 나와 산 밑에 이르렀을 때, 온달이 느릅나무 껍질을 지고 오는 것을 보았다. 공주가 그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니 온달이 불끈 화를 내며 "이는 어린 소녀가 취할 행동이 아니므로 필시 사람이 아니라 여우나 귀신일 것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면서 가버렸다.

공주는 끈질기게도 온달의 초가집 사립문 밖에서 노숙하면서 이튿날 아침에 다시 들어가 드디어 결혼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공주는 글을 모르는 신랑을 교육시켜 장군으로 출세까지 시켰다.

온달은 590년 전쟁터로 나갔다가 온달산성(충북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사적 제264호)에서 전사하였다. 온달산성은 현재 배수구, 우물터 등의 유적이 남아 있고, '삼국사기' 온달열전에서 온달이 아단성 아래에서 전사하였다는 기록에 따라 온달산성이라 하였다.

이렇게 온달장군이 평강공주와 운명적 만남에 등장하는 느릅나무는 그가 최후를 맞이한 곳으로 알려진 단양의 온달산성 일대를 중심으로 충북 북부와 강원도의 영월, 평창, 정선 등지에 고목이 많다.





태그 | 단양군, 가대리, 삼국사기, 온달장군, 온달산성, 느릅나무, 보호수



느티나무

충북 진천군 백곡면 석현리 산 28
36° 53.210′ N / 127° 22.653′ E

- 지정번호 : 진천42호
- 지정연월일 : 2000. 2. 14
- 수고 : 16m
- 관리기관 : 충북도청
- 수령 : 809년
- 흉고둘레 : 5.6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느티나무는 2000년에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마을의 동산 귀퉁이에서 원줄기 밑동과 뿌리목을 드러낸 상태로 자라고 있다. 이 느티나무가 있는 곳은 바위암석으로 되어 있다.
바위암석은 경사를 이루고 있다. 작은 동산에 있는 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시멘트 계단을 만들어 놓았으나 이용이 많지 않은 듯이 보였다. 쉴 수 있는 공간이 좁고, 바위가 있어 불편하다. 그러나 계단 위에서 보면 이 느티나무를 기준으로 앞이 트여 있어 좋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진천군 백곡면 석현리. 산과 들과 시냇물의 산골짜기 마을이다. 석현리는 '돌고개 마을'이라는 뜻이다. 그곳에 돌로 된 고개가 있었으나 신작로를 대대적으로 닦으면서 평지가 딘 듯하다. 석현리는 백곡면의 중심지이고, 제법 큰 '장터'가 있었다. 장터 뒤편 넓은 시냇물 건너의 들길을 지나면 지새울의 마을이다. 뒷산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고 앞으로는 들판과 시냇물이 풍성한 곳이다. 마을의 중심에는 고목의 느티나무가 있다. 보호수이다.

마을 이름의 지새울은 '지곡'이라 쓰는 것으로 보아 '지치의 약초가 나는 골짜기'의 뜻인데, 후에 '지사곡마을(지사리)'로 변경되었다. 강릉김씨 진천 입향조인 김사혁(金斯革)이 '앞날을 훤히 내다보시는 신통력'으로 인하여 주변에서 '지사가 사는 마을'이라 불리게 되었다.

김사혁(1320~1385)은 호가 절정(節亭)이다. 1345년(고려 충목왕 1) 음서로 대관리기관 : 승(大官署丞)이 되어 관계에 입문한 후 병부낭시중과 계금위 등을 거쳐 동북면행영절제부사로 홍건적을 물리쳤고, 1379년(우왕 6년)에 추밀원사가 되었다. 말년에 석현리로 낙향하여 정자를 짓고 아이들을 모아 학문을 가르쳤다. 1382년 12월 20일 그가 돌아가자 후손들이 본관을 진천으로 분관하였다.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1984년 강릉김씨 종중에서 진천군 백곡면 석현리에 김사혁의 묘소와 유허비(遺墟碑) 그리고 절정지(節亭址)를 세웠다.

절정(節亭)은 강릉김씨 진천 입향조인 김사혁이 지사곡마을에 세운 정자이다. 지금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터만 남아 있다. 김사혁 유허비는 없어진 지사곡마을(지새울마을)의 정자 터 느티나무 아래에 있다. 비의 앞면에 '충절공김사혁선생절정유허비(忠節公金斯革先生節亭遺墟碑)'라고 새겨져 있다. 절정 터 동북쪽 계곡에는 1979년 7월에 건립된 김사혁 신도비가 있으며, 산기슭에는 김사혁 묘소와 묘비가 있다.

현재 김사혁 유허비가 세워져 있는 곳에 느티나무가 크고 높게 자라고 있다. 이 느티나무는 진천군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이다.



태그 | 진천군, 석현리, 지사곡마을, 김사혁, 유허비, 느티나무, 보호수



소나무

충남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254
36° 11.489′ N / 126° 53.658′ E

- 지정번호 : 162
- 지정연월일 : 1979. 8. 7
- 수고 : 4m
- 관리기관 : 충남도청
- 수령 : 320년
- 흉고둘레 : 2m

| 어떻게 살았을까?

부여지역 임천관아 터(현재 임천면사무소 옆)에 모양이 특이한 소나무 보호수가 자라고 있다. 수령이 320년 이상이다.
이 소나무는 임천면의 터줏대감 노릇에다가 성흥산(해발고도 268m) 및 성흥산성 주변을 말없이 지키는 이 고을의 수호신이다. 나뭇가지 사이사이로 보이는 구불구불한 곡선은 그 간의 많은 풍파를 이겨낸 흔적처럼 보였다.
옆으로 벋은 줄기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받침대가 놓여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충남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97번길 23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백제의 옛 도읍지는 부여(扶餘)이다. 귀중한 백제시대의 문화재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런 부여의 진산은 부소산(扶蘇山, 106m)이다. 야트막한 산이지만 동쪽과 북쪽의 2봉우리로 나누어져 있다.

부소산의 이름은 조선시대 '세종실록지리지'에 처음 나타난다. 부소(扶蘇)의 뜻은 백제시대 언어로 소나무(松)의 뜻이 있다. 따라서 부소산은 '소나무가 많은 산'으로 보는 학설이 우세하다. 지금도 부소산은 소나무가 군락으로 많이 자라고 있다.

부여군 임천면 중심에 고목의 소나무가 있다. 보호수로 지정된 소나무이다. 임천면사무소 옆의 '임천관아 터'에 있다.

부여군 임천면은 현재 작은 시골의 면이지만 예전에는 번성한 고을이었다. 백제 때는 가림군(嘉林郡)으로 불렀고, 고려 때는 자사(刺史)가 파견될 정도의 중심지이었다. 또한 조선 초기에는 부(府)로 승격되기도 하였다.

옛날 임천현의 관아(官衙)가 있던 자리는 지금 임천면 사무소와 임천초등학교가 들어서 있다. 임천관아의 정문이었던 '배산루'는 일제강점기에 백마강변의 '부소산성'으로 옮겨진 뒤 '사자루'로 현판을 바꿔 달았다. 또한 임천초등학교 자리에 있던 객사 건물도 모두 해체되어 대조사 경내의 원통보전(관세음보살을 모신 전각)을 짓는 데 쓰였다.

임천면사무소 옆의 예전 임천관아 터 소나무는 모습이 특이하다. 높이는 4m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줄기 및 가지가 옆으로 넓게 퍼져 있다. 옆으로 자란 가지는 온몸을 뒤틀며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다. 그 모양이 예사롭지 않다.

이 소나무는 특이한 형상이 오히려 아름답다. 마치 학이 날개를 펴고 막 내려앉는 모양이다. 용트림을 하는 위쪽 줄기는 나무껍질이 벗겨져 붉은빛을 띠고 있어서 보기에 좋다. 임천관아 터는 이러한 고목의 소나무 한 그루만이 남아 옛 흔적을 지키고 있다.

임천관아 터의 소나무. 마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거





의 죽어가던 소나무가 막걸리를 먹고 살아났다. 나무 아래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막걸리를 마시다가 흘리고 버려진 찌꺼기의 영양도 한 몫 하였을 것 같다.

태그 | 부여군, 군사리, 백제, 부소산, 임천면사무소, 임천관아터, 소나무, 보호수





은행나무

충남 당진시 서문2길 28
36° 53.661′ N / 126° 37.692′ E

- 지정번호 : 8-76
- 지정연월일 : 1982.10.15
- 수고 : 22m
- 관리기관 : 충남도청
- 수령 : 820년
- 흉고둘레 : 6.3m

| 어떻게 살았을까?

당진성당 입구의 오른쪽은 은행나무 보호수가 있고, 왼쪽은 커다란 느티나무 보호수가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느티나무와 약간 떨어져 자라는 고목의 호두나무도 보호수이다. 보호수들은 정문을 지나는 길 양쪽에 각각 위치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다.
느티나무 보호수가 있는 곳은 당진성당을 찾아오는 신자들이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임의 장소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 뜨거운 여름철에는 마당에 마련된 주차장에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기도 하며 성당의 분위기와 어우러져 특유의 풍치를 자랑하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천주교 대전교구 당진본당(당진성당)은 1939년에 세워졌으므로 77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당진성당은 2015년 신축공사를 하였으므로 성전이 깨끗하게 보인다. 새 성전 마당이 잘 정돈되었고, 입구도 정비되어 있다. 이곳 입구의 오른쪽 모퉁이에 고목의 은행나무가 서 있다.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이다.

은행나무 주변은 터를 다지고 경계석으로 구역을 구분지어 놓은 상태이다. 당진성당의 은행나무는 암나무이므로 열매를 맺는다. 땅에 떨어진 은행은 신자들에게 뜻밖의 수확이 되기도 한다.

은행나무는 몇몇 고사지와 상처가 눈에 띄지만 생육이 양호한 편이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줄기의 공동이 매우 컸으나 이후 충전하여 현재 공동이 흔적만 보일 뿐이다. 이 은행나무는 큰 공동이 있을 당시에 여성 걸인이 그 공동에 살다가 옷가지에 불이 붙으면서 은행나무 밑동을 태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은행나무는 한해의 풍년과 흉년을 점치기도 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많은 시객들이 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노닐며 시를 읊었던 곳이기도 하다.

은행나무의 반대 입구에 위치한 느티나무 보호수 주변은 토지를 정비하여 깔끔하게 정비하였다. 이 느티나무는 상처나 부패, 공동이 없어 전체적으로 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사람들이 앉아 쉴 수 있도록 벤치의자가 나무 아래 설치되어 있으며 넓은 나무그늘이 특징이다. 은행나무에 비하여 수령이 짧지만 성장속도가 빠르고 생육상태가 좋아 수세나 크기 면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 특히 수관면적이 넓어 풍치목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당진성당은 예전에 졸업사진이나 입학사진 등 기념사진을 찍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현재 은행나무, 느티나무, 호두나무의 보호수는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작은 공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당진성당의 오랜 역사와 함께 오랫동안 자라고 있는 보호수가 역사를 한층 더 깊게 하고 있다.





태그 | 당진시, 읍내동, 당진성당, 느티나무, 호두나무, 은행나무, 보호수



느티나무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141-18
36° 12.783´ N / 127° 04.105´ E

- 지정번호 : 8-26
- 지정연월일 : 1982. 11. 1
- 수고 : 15m
- 관리기관 : 충남도청
- 수령 : 820년
- 흉고둘레 : 6.2m

| 어떻게 살았을까?

성동면 원봉리의 야산 정상에 수령 820년 이상의 느티나무가 서 있다. 생육이 왕성한 고목 옆에 정자가 있어 이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이 느티나무는 2010년에 동쪽으로 벋은 가지가 태풍에 부러져 고사하여 현재 양쪽 가지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다. 갈라지는 곳을 보호하기 위하여 굵은 철사로 휘감아 이어 놓았으나 철사줄은 오랜 세월의 흐름과 함께 나무 속 깊이 파고들어 나무와 하나가 되어 버렸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속칭의 나무이름 중에 '왕재나무'가 있다. 식물학적인 이름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나무이름이다. 성동면 원봉리 사람들은 고목의 느티나무를 왕재나무라 부르고 있다. 듣건대 '왕재'는 논산에서 부여로 가는 국도변의 원봉리 어귀에 불쑥 내민 야산이다. 산이라기보다 앞동산처럼 낮은 산이다.

구전에 따르면 왕재는 풍수지리상 큰 명당자리가 있으나 석성의 '봉무정산'이 보이므로 이곳에 묘를 쓰게 되면 큰 도둑이 나오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곳은 본래 용의 형국이었으나 왕재에 커다란 나무가 서 있어 뱀의 형국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선돌 앞에 있는 대미마을 사람들은 잘 살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 불평이 많았다.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는 왕재의 전설이 있다. 이곳의 뱀이 대미마을의 개구리를 잡아먹기 위하여 기어 갈 때에 대미마을 앞에 있는 쪽다리에 이르면 삼호리의 느티나무에 살고 있는 지네가 와서 방해를 놓았다. 때문에 뱀은 개구리를 잡아먹지 못하고 실패만 하여 대미마을의 개구리는 왕재의 뱀에게 잡혀 먹지를 않게 되었다.

또한 왕재 아래의 하천에 돌이 많이 깔려 있어 이 마을 사람들의 빨래터로 이용하기에 좋았다. 그러나 뱀의 형국이라 뱀의 머리 부분을 빨래 방망이로 두들기면 마을에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하여 빨래터를 석두교 위쪽으로 옮겼다는 구전도 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왕재 정상에 서 있는 고목의 느티나무 가지를 부러뜨리거나 부러진 나뭇가지라도 집으로 가지고 가면 해를 입는 것으로 알았다. 신목으로 여겼다. 그래서 이 느티나무를 신성시하였고, 6.25한국전쟁 직후까지만 해도 칠월칠석에 동신제(목신제)를 지냈다. 지금은 동신제를 지내지 않고 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이 느티나무 속에 큰 뱀이 살고 있어 나무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런가 하면 마을 사람들은 봄철에 느티나무 잎이 활짝 잘 피면 그해에 풍년이 들고, 잎이 잘 피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고 점을 치기도 한다.





태그 | 논산시, 원봉리, 왕재, 뱀, 발래터, 목신제, 느티나무, 보호수



비자나무

충남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 산 20
36° 49.436′ N / 126° 34.439′ E

- 지정번호 : 8-14-11-295
- 지정연월일 : 1982.10.15
- 수고 : 20m
- 관리기관 : 충남도청
- 수령 : 300년
- 흉고둘레 : 4.5m

| 어떻게 살았을까?

비자나무는 제주도에 대군락으로 분포하고, 전남의 백양산과 전북의 내장산에도 자란다. 주로 남부지방에 자라고 있다.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에도 고목의 비자나무가 있다. 제주도에서 가져와 심은 것이다. 수령이 300년 이상의 비자나무이다. 이 비자나무는 1982년 10월 15일에 보호수로 지정되었고, 2008년 4월 10일 충청남도 기념물 제174호로 지정되었다. 이 비자나무는 제주도 또는 남부지방의 따뜻한 기후가 한반도 중부권의 추운 곳에서 적응하여 살고 있는 점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늘 푸른 상록수의 비자나무는 우리 땅에서 본래적으로 자라는 곳이 어디일까. 궁금하겠지만 여기에서 논할 바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간다. 참고가 된다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비자나무 또는 그 숲이 있는 곳이 모두 남부지방이다. 대부분 심어진 것이다.

한반도의 중부지역에 심어진 비자나무 가운데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 있다. 전주이씨(全州李氏, 속칭 예민이씨)와 관련이 있는 비자나무이다.

이 비자나무가 이곳에 심어진 내력이 잘 알려져 있다. 때는 1675년(조선 숙종 1년)의 일이다. 이 마을 입향조 이창주의 증손인 이택(1651~1719)이 과거를 보기 1년 전에 제주도를 갔다가 비자나무를 가져와 고향마을 뒷산에 심은 것이다. 이 마을에 정착한 전주이씨(속칭 예민이씨) 가문의 역사와 거의 궤를 같이 하는 역사성이 깊은 나무이다.

이 비자나무는 마을회관 뒤 야트막한 언덕에 있으며 이곳에 올라서면 마을 전체가 내려다보인다. 현재 주변에는 향나무의 울타리가 둘러쳐 있고 인접부에는 목책이 설치되어 보호되고 있다. 서쪽의 가지에는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다. 원줄기의 대부분은 공동으로 인하여 충전치료의 봉입이 이루어져 있다. 남서쪽과 동남쪽의 가지의 수세가 왕성한 편이다.

한편 서산시에서는 서산의 문화재를 둘러보는 '아라메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1구간의 첫 번째 답사지가 '유기방 가옥'이다. 여미리 비자나무의 소유주는 바로 이 가옥의 주인인 유기방이다.

이 비자나무 앞길이 '아라메길 1구간'에 해당하는 산책로이다. 여미리 마을회관 뒤로 언덕을 넘어가면 전주이씨 신성군파 사당이 있다. 마을회관 앞길로 500m 정도 들어가면 충남 민속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된 '서산 유기방 가옥'이 있다. 1900년 초에 지어진 가옥으로 지역적 특징과 시대적 특징으로 인하여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다. KBS 드라마 '직장의 신' 촬영장소로 유명해졌다.





태그 | 서산시, 여미리, 전주이씨, 이택, 제주도, 아라메길, 비자나무, 보호수



느티나무

충남 예산군 대흥면 중리길 35-11
36° 36.242′ N / 126° 47.348′ E

- 지정번호 : 8-68
- 지정연월일 : 1982.10.15
- 수고 : 19m
- 관리기관 : 충남도청
- 수령 : 1,018년
- 흉고둘레 : 7.5m

| 어떻게 살았을까?

예산지역 좁은 마을길의 언저리에 1,000년 이상을 살고 있는 느티나무가 있다. 수령은 1,018~1,050년이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1982년 보호수로 지정된 이 느티나무는 충남에서 가장 오래도록 살고 있는 나무이다.

한눈에 보기에도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굴곡진 형상이 세월의 연륜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이 느티나무는 원줄기 밑동이 매우 굵고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것이 나무에 오르기 좋게 하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의좋은 형제' 이야기의 고장으로 알려진 대흥면 상중리.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예산 지역에서 호장을 지낸 이성만과 이순 형제의 형제애가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과서에 수록되었는데, 그 우애비(충남도 유형문화재 102호)가 발견된 곳이 상중리이다.

이 마을에는 '의좋은 형제'의 우애비 이외에도 고풍스러운 고목의 느티나무 한 그루가 '중당마을' 뒤쪽의 인가 주변에 자라고 있다.

마을에서는 이 느티나무를 매우 신성시하였다. 음력 2월 초하룻날과 칠월칠석날 두레먹이를 하면서 간단하게 잔을 붓고 고사를 지내왔다. 음력 2월 초하루는 새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분기점으로 인식된다. 때문에 흔히 농민의 생일 또는 머슴날로 부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농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잔치를 베풀고 진종일 노는 것이 관례이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이 느티나무를 위하는 가정이 적지 않았는데, 정월 대보름과 칠월칠석 밤에 개별적으로 제수를 준비하여 치성을 드리곤 하였다. 목신제로 치성을 받는 이 느티나무의 기상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마을에서는 봄철에 나뭇잎이 피는 것을 보고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가령 느티나무의 잎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오면 그해 비가 많이 내리거나 물 사정이 좋아 모내기에 걱정이 없고, 여기저기 층이 져서 잎이 돋아나면 한발이 들어 여러 차례 나누어서 모를 심어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 말하자면 모내기의 지표가 되었던 셈이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이 느티나무를 '배 맨 나무'라고 부른다. 예전에 배를 매었던 나무라는 뜻이다. 그들은 소정방이 이끄는 나당연합군이 백제 부흥군의 마지막 거점인 임존성을 공격할 때에 이 느티나무에 배를 맸다는 전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설 때문에 이 느티나무를 '배 맨 나무'라고 부르고 있다.

구전에 따르면 옛날에는 이 느티나무 밑쪽과 인근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으며, 주변에 있는 샘을 파면 곳곳에서 갯벌의 흙과 짠물이 섞여 나왔다.





태그 | 예산군, 상중리, 형제 우애비, 목신제, 배 맨 나무, 느티나무, 보호수



은행나무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577-1
36° 36.253′ N / 126° 41.057′ E

- 지정번호 : 8-61
- 지정연월일 : 1982. 10. 1
- 수고 : 14m
- 관리기관 : 충남도청
- 수령 : 902년
- 흉고둘레 : 9.7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은행나무는 1982년 10월에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수령은 902년 이상이다. 홍성읍에서 국도 21호선을 따라 예산 방면으로 향할 때에 홍성읍을 벗어나자마자 고가도로가 끝나는 지점 왼쪽에 있다.
이 은행나무는 영험하다는 몇 이야기가 기록과 구전으로 전하고 있어 찾아갈 볼만하지만 현재 주변이 어수선하다.
이 은행나무는 줄기 밑동에서 여러 가지가 갈라져 자라는 점이 특이하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현재 보기가 쉽지 않은 양버들(미루나무의 일종)이 가로수처럼 심어졌던 곳이 있다. 홍성군 금마면이다. 수백 그루의 양버들이 1970년대까지 금마국도 주변에 늘어서 있었다. 지금은 국도 확장공사로 인해서 양버들이 모두 없어졌다. 이들 양버들이 심어진 곳에 아름드리의 은행나무가 높게 자라고 있어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이 은행나무는 양버들을 베어낼 때에 없애자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뜻있는 분들이 나서서 살려내었다.

이 은행나무는 봄에 잎이 돋는 모습을 보고 한해 농사의 풍흉을 알려 주었다. 잎이 왕성하게 돋아나거나 나무 전체에 골고루 나오면 풍년이 들었고, 잎이 시들시들 나오거나 줄기 밑동이나 한쪽에서만 피어나면 흉년이 든다는 구전이 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매년 농사를 예측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원래 이곳의 은행나무는 2그루가 있었으나 홍주목사 김병억이 한 그루를 베어내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장성리 마을 명문의 집안에 예쁜 처자가 있었다. 이 처자가 아비 모를 아이를 낳았다. 가문에서는 이 처자를 목매어 죽이고, 아이를 돌에 묶어 방죽에 던졌다. 그 후 홍주목사 김병헌이 이 처자의 원귀 때문에 민심이 소란하다고 하여 이 은행나무를 베고자 톱을 댔다. 나무를 베고 있는 동안에 김병억 목사의 아내가 죽었다. 이는 원귀의 탓이라 하여 마을의 처자들은 계를 모아 해마다 이 은행나무에다 제사를 드렸다. 또한 이 제계(祭契)에 가입하여 함께 치성을 드리면 얼굴이 예뻐지는 것으로 속전되었다.

또한 이 은행나무는 나라에 큰 변고가 있을 때마다 울음소리를 내어서 이웃주민들이 미리 피신할 수 있도록 영험함을 발휘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은행나무가 영험하다는 소문이 주변에 퍼졌다. 사람들은 은행나무 아래에서 소원을 빌면 모두 이뤄진다고 믿었고, 매년 정초에는 아낙네들이 찾아와서 소원을 빌곤 하였다.

그리고 이 은행나무는 최영 장군이 말을 타고 활을 쏘면서 무예를 연마할 때 쏜 화살이 날아와 박힌 것이 자라난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한다.





태그 | 홍성군, 장성리, 양버들, 김병억, 최영 장군, 은행나무, 보호수



은행나무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속말1길 61-61
36° 46.274′ N / 126° 18.855′ E

- 지정번호 : 8-72
- 지정연월일 : 1982.11.1
- 수고 : 17m
- 관리기관 : 충남도청
- 수령 : 900년
- 흉고둘레 : 7.5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은행나무는 수령이 900년 정도이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이 은행나무는 외형적 손상이 없이 완전하고 겉의 나무껍질도 큰 흉터가 없다.
이 은행나무는 약 4m 높이까지는 외줄기로 되어 있고, 그 위부터 몇 개의 줄기가 곧게 하늘을 향하여 갈라져 있다. 이 은행나무는 수관과 뿌리가 잘 발달되었고 해마다 나무의 밑쪽에서 새순이 무성하게 돋아나는 것이 특징이다.
태안군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는 나무이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백화산(白華山, 284m)은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산이다. 백화산으로 가는 길을 따라 1km 정도 올라가면 그 자락에 흥주사(興住寺)가 있다. 이 사찰은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인 수덕사의 말사이다.

이 사찰의 아래쪽 경사지에 고목의 은행나무 보호수가 있다. 흥주사 만세루(萬歲樓, 충남유형문화재 133오) 앞에 있다. 2001년 6월 30일 충남기념물 제156호로 지정되었다. 이 은행나무는 흥주사를 지키는 사천왕(四天王) 역할을 해왔으며, 신비스러운 나무로 알려져 있다. 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나무이다.

전설에 의하면 아득히 먼 옛날 먼 길을 가던 노승이 백화산 산기슭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눈을 감고 쉬고 있었다. 이때 꿈인 듯이 하얀 산신령님이 나타나 노승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리키며, "이곳은 장차 부처님이 상주할 자리이니 지팡이로 이곳에 표시를 하라"는 말을 하였다. 노승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한 노승은 꿈에 산신령이 알려준 그곳에 지팡이를 꽂아두고 불철주야 기도를 하니 신비스럽게도 지팡이에서 은행나무 잎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노승은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을 짐작하고 더욱더 기도에 전념하니 또다시 산신령님이 나타나 "이 은행나무에 자식 없는 자가 기도를 하면 자식을 얻게 되고 태어난 자식들이 부귀영화를 얻어 부처님을 잘 모실 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사라졌다. 그 후 몇 십 년이 지났을 때에 산신령님이 말한 것처럼 그 자손들에 의하여 사찰이 지어졌다.

이 은행나무는 '남근(男根) 은행나무'로 부르고 있다. 유주지가 나오는 모양에서 비롯된 이름인 듯하다. 흥주사 스님과 마을 사람들은 목신제로서 막걸리를 올리며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고 있다.

이 은행나무 위쪽 경사지에는 느티나무 보호수가 있다. 고목의 느티나무는 앞에서 보면 여성상이고 뒤에서 보면 남성상을 하고 있다. 위쪽 줄기를 자세히 처다 보면 뭉뚝한 가지가 사슴머리 모양을 한다고 하여 '사슴나무'라 부르기도 한다.





태그 | 태안군, 상옥리, 흥주사, 느티나무, 남근나무, 은행나무, 보호수



소나무

충남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34-3
36° 12.497′ N / 127° 13.512′ E

- 지정번호 : 8-7-9-101
- 지정연월일 : 1982. 11. 1
- 수고 : 5m
- 관리기관 : 충남도청
- 수령 : 270년
- 흉고둘레 : 2m

| 어떻게 살았을까?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에 작은 절이 있다. 송불암이다. 이곳의 미륵불은 현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미륵불을 보호하였던 소나무는 오랜 세월을 버텨서 그런지 비록 지지대에 기대어 있긴 하지만 기품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소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옆으로 퍼진 모양이 특이하며, 생육이 양호하다.
한편 이 소나무와 30m 정도 떨어진 반대쪽에는 배롱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절의 이름이 송불암이다.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에 있는 절이다. 송불암은 전체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절이다. 작은 절이지만 미륵불(문화재자료 제83호)이 있는 곳이다. 이곳의 미륵불은 예전에 소나무 가지에 붙어 있었다. 이것이 마치 소나무가 미륵불을 보호하는 형상이라고 하여 유명해졌다. 이곳의 소나무는 곧고 높이 자라지 않고 옆으로 퍼져 둥그스름하게 자라고 있으며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송불암의 미륵불은 고려 때의 양식이다. 대웅전 왼쪽에 있는 미륵불은 현재 소나무에서 약간 떨어져 있지만 2000년도까지만 해도 처진 소나무의 아래에 있어 마치 소나무가 미륵불을 보호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희한한 모양의 소나무가 미륵불을 보호하고자 원력수생(願力樹生)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런데 소나무가 고목이 되면서 점점 밑으로 쳐져 미륵불이 소나무를 이고 있는 것처럼 되어 근래에 미륵불을 지금의 대웅전 왼쪽 자리로 조금 옮겼다.

이곳의 소나무와 미륵불의 전설이 몇 갈래로 전하고 있다. 그 중에 잘 알려진 이야기를 소개하면, 고려시대 어느 노스님이 이 마을을 지나다가 날이 저물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청년의 집에 하루 묵게 되었다. 다음날 노스님은 청년의 어머니를 보고 사흘 후에 죽을 운명이었으므로 조심히 청년에게 어머니의 명당자리를 일러주면서 당부하였다. 노스님이 "범바위골에 묘를 쓴 후에 황금의 돌을 건드리지 말았으면 한다."라고 말하자 청년은 화가 나서 노스님을 내쫓아 버렸다. 스님 말대로 사흘 후에 어머니가 돌아갔다.

청년은 노스님이 일러준 말 가운데 범바위골 만이 떠올랐다. 땅속에 황금의 돌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만 그 돌을 건드리고 말았다. 그 돌 밑에 살고 있던 왕벌이 나와 노스님 때문에 살던 곳을 빼앗겼다며 노스님을 쏘아 그 자리에서 열반하게 만들었다.

그 후 마을에 십년 홍수, 십년 가뭄에다 전염병 등으로 재앙이 끊이지 않자 광산김씨 문중에서 노스님의 넋을







위로하고 부처님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부처님 곁에 소나무 한 그루가 생겨 나와 부처님을 향하여 옆으로만 자라고 있다. 이 후부터 사람들은 이 소나무가 노스님의 후신이라 믿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소원성취 한다는 설이 전해진다.

태그 | 논산시, 연산리, 송불암, 미륵불, 배롱나무, 반송, 소나무, 보호수



은행나무

충남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353-1
36° 11.408′ N / 127° 00.662′ E

- 지정번호 : 8-25
- 지정연월일 : 1982.11.1
- 수고 : 25m
- 관리기관 : 충남도청
- 수령 : 520년
- 흉고둘레 : 5.2m, 3m, 2.7m

| 어떻게 살았을까?

조선 중종 때의 전우치는 문장이 뛰어난 선비이었다. 귀신을 다스리는 도술과 둔갑술에 능한 기인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죽은 뒤에도 살아 있는 사람에게 책을 빌려갔다는 이야기에다가 입에 물고 있던 밥을 내뿜어 하얀 나비 떼를 만들었다.
천도(天桃)를 따기 위하여 새끼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있다. 흥미가 있지만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전우치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전우치가 심었다는 은행나무가 논산시 개척리에서 520년 이상 살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실존 인물의 도술가이었던 전우치(田禹治)가 신통력을 부려 자라난 은행나무가 있다. 강경읍과 성동면을 거쳐 부여로 가는 지방도를 따라 석성면 방면으로 6km쯤 가면 성동면 개척1리에 이르는데, 이곳 도로변에 아주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다. 이 은행나무가 조선시대 중종 때의 전우치와 관련된 나무이다.

기인(奇人) 전우치가 심었다는 은행나무 지팡이 원목은 오래 전에 고목이 되어 부러지고, 또다시 자라난 가지가 옛날의 전우치의 능통했던 신술을 느끼게 해준다고 전하고 있다. 줄기는 4갈래로 갈라져 하늘로 뻗어 있다. 충남기념물 제152호로 지정해 보호하는 나무이다.

전우치의 지팡이는 520년 이상의 세월을 거치며, 커다란 은행나무로 거듭났다. 두둑을 올린 것처럼 보이는 언덕 위에 홀로 서 있는 은행나무는 한 가문의 안녕, 혹은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며 긴 세월을 살았다.

중종 14년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한양에서 미관말직을 지내던 전우치도 연루되었다. 조광조와 같이 개혁적인 선비들과 교류하였던 탓에 전우치도 그들처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전우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으로 도망을 갔다.

그러던 중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의 언덕에 잠시 쉬었다.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마을 풍경은 자신의 다급한 처지와 달리 평화로워 보였다. 평화로운 마을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를 표시하기 위해 그는 지팡이를 땅에 꽂았다. 지팡이를 꽂으면서 “이 지팡이가 살아서 자라면 전씨가 번창할 것이며, 죽으면 전씨는 남의 그늘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말하곤 떠났다. 그 후 지팡이에선 잎이 돋고 가지가 자라났는데, 그 나무가 바로 개척리의 은행나무이다. 잘 자라고 있는 이 은행나무는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조선의 선비 전우치의 절박한 희망과 염원이 담긴 나무이다.

해마다 남양전씨 문중에서는 정월 대보름에 가문의 평안과 번영을 빌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곳은 은행나무의 사연을 말해주는 비석과 표지판이 있다. 이젠 이곳





은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 있다.

태그 | 논산시, 개척리, 도술가, 전우치, 지팡이, 남양전씨, 은행나무, 보호수



느티나무

충남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803
36° 24.271´ N / 127° 11.715´ E

- 지정번호 : 4-29
- 지정연월일 : 1993.7
- 수고 : 8m
- 관리기관 : 충남도청
- 수령 : 750년
- 흉고둘레 : 8.8m

| 어떻게 살았을까?

계룡면 내흥리의 난댕이마을은 길쭉한 산줄기의 골짜기마다 안말, 밭가운데, 동산말, 고비골 등의 4개 자연마을이 있다.
이들 마을은 맑은 공기에다 경치도 좋고, 전형적인 시골 마을 풍경이 펼치는가 하면 주변에 세종시가 가까워 서인지 전원주택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다.
이 마을에 수령 750년이 넘는 고목이 자란다. 이 느티나무의 원줄기는 울퉁불퉁하고, 몇 곳에 충전치료를 한 흔적이 있으나 생육이 왕성하다. 수형이 보기에 좋다.

| 어떻게 찾아갈까?

충남 공주시 계룡면 윗난댕이길 57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는 본래 이름이 난당(蘭堂)이었다. 이는 마을이 난초 모양의 산에 둘러싸여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 어르신들은 마을에 난초가 군락으로 자라기 때문인데서 유래되었다고 구전하고 있다. 난당의 이름은 다시 난댕이마을로 부르게 되었다. 300여 년 전에 전주이씨와 창녕성씨가 집성촌을 이루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난댕이마을 은 인구가 늘면서 아래마을과 위쪽 마을로 나누어졌다.

난댕이마을은 예로부터 산 중턱에 산신당이 있어 산신(山神)에게 마을의 안녕과 복을 빌어 왔다. 요즈음은 산신당 대신 '무불정사'라고 하는 민속신앙의 신당이 들어서 한쪽에 산신당을 차려 놓았다. 이곳 마을의 전통적인 세시풍속으로는 궤목제, 거리제, 쥐불놀이, 땅 밝기 등이 있었다.

최근에는 마을 한복판의 '동산말'에 서 있는 고목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이 느티나무 아래에는 제를 지낼 수 있는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괴목단'이라 이름하고 있다.

이 느티나무가 있는 '괴목단'에서 지내는 당산제(목신제)는 마을의 안녕과 6.25한국전쟁 전사자, 그리고 동학란 전사자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제사이다. 당산제를 지내는 날은 정월대보름, 칠월칠석이었으나 앞으로는 정례화하여 매년 격식에 맞추어 지낼 예정이다.

예로부터 계룡산은 영험의 상징과 같은 곳이었다. 때문에 계룡산 줄기에 기대어 사는 마을은 산신에게 제사를 올리며 한해의 무사안녕을 기원하여 왔다. 내흥리(난댕이마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산신제를 지내왔다. '대산제'라 하여 엄격한 제의식을 전승하였다.

그러다가 산신제는 1970년대 초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고 근대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미신으로 치부되어 중단되었다. 그 후 한참동안 지내지 않았던 산신제는 2008년부터 난댕이마을 한복판에 위치한 고목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새롭게 목신제를 지내고 있다. 주민들은 산신제의 복원과 전통을 잇기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



태그 | 공주시, 난댕이마을, 난초, 동산말, 당산제, 산신제, 느티나무, 보호수



은행나무

충남 금산군 추부면 신평길 12-14
36° 13.589′ N / 127° 30.408′ E

- 지정번호 : 8-7
- 지정연월일 : 1982. 11. 1
- 수고 : 25m
- 관리기관 : 충남도청
- 수령 : 800년
- 흉고둘레 : 6.5m

| 어떻게 살았을까?

금산군은 고목의 은행나무들이 여러 곳에 있다. 남이면 보석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65호)는 보석사를 창건할 때에 조구대사와 5제자가 심은 6그루가 자라면서 얽혀 한 그루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추부면 요광리의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84호)는 머리가 둔한 아이를 밤중에 이 나무 밑에 한 시간쯤 세워두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며, 잎을 삶아서 먹으면 노인의 해소병이 없어지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추부면 신평리에 자라는 은행나무도 잘 알려져 있다. 고목의 보호수이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금산군하면 인삼이 제일이다. 그 다음의 특산품은 깻잎이다. 우수한 깻잎은 대부분 추부면에서 생산된다. '추부깻잎'이라 부른다. 깻잎 고유의 향이 다른 지역의 깻잎보다 훨씬 강하고 쓴맛과 떫은맛이 적으며 단맛이 약간 있다. 깻잎을 생산하는 마을은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생산, 유통, 판매를 원활하게 하고 있다.

또한 금산군의 나무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것이 은행나무이다. 금산군은 아주 오래된 은행나무들이 여러 곳에 있다. 그중에서 남이면 석동리의 보석사(寶石寺)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65호), 요광리의 행정(杏亭)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84호)가 잘 알려져 있다.

이들 은행나무는 수령이 1,000년 정도이다. 오랜 세월 동안 조상들의 생활과 문화 속에서 살아온 문화적 자료로서의 가치와 오래되고 큰 나무의 생물학적인 가치가 높다. 또한 마을사람들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중심으로서의 향토적 가치, 역사적 가치도 인정받고 있다.

금산군은 이밖에도 보호수로 지정된 고목의 은행나무가 있다. 추부면 신평리에 위치하는 은행나무이다. 보호수이다. 마을 사람들은 요광리 은행나무와 보석사 은행나무와 비길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령이 800년으로 알려져 있으나 마을 사람들은 1,000년 이상이라 말하고 있다. 전체 수형이나 생육상태도 다른 지역의 것보다 좋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신평리 은행나무는 금산추부깻잎정보화마을에서 개최하는 '추부은행나무제'와 '추부포도주담기 체험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장소이다. 축제는 마을화합을 목적으로 주민들의 명랑운동회, 자원봉사팀의 수지침 등 봉사와 추부 신평리 마을에 있는 은행나무제를 마을 주민들이 지내고 사물놀이로 행사를 알리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은행나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 매년 정월대보름에 동신제를 지내고 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인근의 주민들은 종종 이 은행나무에 떡시루가 걸려 있는 꿈을 꾼 후 찾아가 치성을 드렸다. 이 은행나무도 다른 노거수에서 전하는 일반적인 전설이 전한다.





이 은행나무에 정성을 들여 빌면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를 비롯하여 마을에 큰 일이 생길 기미가 있으면 소리를 내어 대비하도록 예고한 이야기 등이 그것이다.

태그 | 금산군, 신평리, 천년수, 천연기념물, 신목, 동신제, 은행나무, 보호수











전라지역

광주광역시 / 전주시 / 순창군 / 남원시 / 부안군 / 임실군 / 진안군 / 구례군 / 영암군 / 순천시 / 여수시 / 강진군 / 해남군 / 진도군 / 고흥군 / 함평군

52	왕버들	광주	남구 구만산길 31 ····· 130
53	왕버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170 ····· 132
54	회화나무	전북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1246 ····· 134
55	소나무	전북	남원시 주천면 덕치리 산6 ····· 136
56	느티나무	전북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 138
57	은행나무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178-1 ····· 140
58	소나무	전북	진안군 주천면 도촌길 32 ····· 142
59	산수유	전남	구례군 산동면 계천리 199-1 ····· 144
60	느티나무	전남	영암군 서호면 엄길리 539 ····· 146
61	은행나무	전남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597 ····· 148
62	느티나무	전남	여수시 오림동 422-2 ····· 150
63	곰솔	전남	영암군 덕진면 덕진리 261 ····· 152
64	느티나무	전남	강진군 군동면 화산리 652-1 ····· 154
65	느티나무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 ····· 156
66	곰솔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4212 ····· 158
67	느티나무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935 ····· 160
68	느티나무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 162
69	느티나무	전남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 208 ····· 164





왕버들

광주광역시 남구 구만산길 31
35° 05.561′ N / 126° 50.730′ E

- 지정번호 : 2010-5
- 지정연월일 : 2010.7.26
- 수고 : 20m
- 관리기관 : 광주시청
- 수령 : 600년
- 흉고둘레 : 5.8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왕버들은 수령이 600년 이상이다. 이 왕버들은 북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자라며, 직경 30cm 정도의 느티나무 한 그루와 붙어 있다. 이 왕버들은 1번 국도의 광주를 벗어날 즈음의 표충사 입구를 찾고, 표충사로 직진하여 마을 안도로 잠시 들어가면 만날 수 있으나 이 안내처럼 훤히 트인 곳에 위치하지 않는다. 골목길 모퉁이에 자라고 있어서이다.
물가를 좋아하는 이 왕버들은 바로 옆에 연못이 있어 생육조건이 매우 좋은 곳에서 자라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광주광역시 남구 구만산길 31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광주의 3류(柳) 3목(木)으로 알려진 나무가 있다. 충효동의 왕버들, 수완동 왕버들, 원산동의 왕버들이다.

그 중 광산이씨 종가가 있는 원산동의 한옥마을 입구에 있는 왕버들은 위용이 대단하다. 이 왕버들은 조선시대 세종 때의 대학자였던 필문 이선제(李先齊, 1389~1454년)가 심은 나무로 알려져 있다. 이에 얽힌 이야기가 구전한다. 그는 이 왕버들을 심으면서 "이 왕버들이 죽으면 가문도 점차 쇠락할 터이니 각별히 관리를 잘하라"는 말을 후손들에게 남겼다. 이 말을 새겨들은 후손들은 옛날 과거에 급제할 경우 이 왕버들에 급제자의 이름과 북을 걸어 놓고 축하연을 열었다.

이 왕버들의 별칭 유래의 이야기도 있다. 이 왕버들에 북을 걸어두었다고 하여 괘고(掛鼓)라 부르는데, 괘고정(掛鼓亭)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왕버들 옆에 정자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현재 이 왕버들은 '괘고정수(掛鼓亭樹)'라 부르는데, 이는 괘고정 옆에 있는 나무라는 뜻이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다. 1589년(선조 22년)이었다. 그의 5대손 이발(李潑, 1544~1589)이 기축옥사 때 정여립(鄭汝立)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그의 가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자 이 왕버들도 말라죽기 시작하였다. 후에 이발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자 이 왕버들도 죽은 지 300여 년이 흐른 뒤에 다시 새잎이 나오며 살아나 가문의 중흥을 예고하였다.

구전하는 말에 따르면 당시 마을에 살던 이주신이란 사람이 죽은 왕버들를 없애려고 불을 질렀으나 타지 않았다. 불에 탈 것 같았던 왕버들은 오히려 새싹이 돋아 되살아났다. 광산이씨는 이를 중흥의 징조라 생각하여 이 왕버들을 광산이씨 문중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

한편 광산이씨는 기축옥사 때의 심문관인 송강 정철에게 모진고문을 받은 일로 인하여 지금도 앙금이 남아있다. 광산이씨는 연일정씨와 혼사를 맺지 않는단다.

한편 이 왕버들이 있는 곳과 인접하여 광주광역시 민속자료 제7호로 지정된 이선제부조묘가 있다. 부조묘는 나라에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을 기려 그 신주를 영원토록 모시도록 건립한 사당이다.





태그 | 광주시, 원산동, 광상이씨, 이선제, 과거시험, 기축옥사, 왕버들, 보호수



왕버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170
35° 47.252′ N / 127° 08.222′ E

- 지정번호 : 9-1-13
- 지정연월일 : 1982.9.20
- 수고 : 14m
- 관리기관 : 전북도청
- 수령 : 485년
- 흉고둘레 : 5.6m

| 어떻게 살았을까?

전주시 평화동의 왕버들은 수령이 485년 이상이다. 수형이 넓게 퍼져 보기에 좋다. 아파트가 들어선 도심에서 잘 자라고 있다. 이 왕버들 바로 옆에 평화정(平和亭)과 운동시설이 있다. 정자와 함께 3갈래 길의 길모퉁이에 자라면서 오고 가는 주민들을 줄곧 지켜보고 있다.

한편 평화동은 완산구에 있는 동이다. 남쪽으로 완주군에 닿아 있다. 예전에는 완주군 우전면 지역이었으나 1957년에 다른 마을과 함께 전주시에 편입되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몇 년 전에 출간된 '나무할머니의 옛날이야기'에 전주시 평화동의 왕버들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다. 이 책자의 저자는 전주시 보호수를 스토리텔링으로 엮었는데, 전주시 평화동의 학산 골짜기에 있던 작은 왕버들이 맛내골 정자 옆으로 옮겨와 자리 잡게 된 이유를 이야기로 풀어나갔다.

이야기는 물가에 자라는 왕버들이 뱀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왕버들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뱀들이 그 은혜 갚음으로 비가 올 때마다 흔들리지 않게 왕버들의 뿌리목을 잡아주었다는 것이다. 이 왕버들은 뱀들의 은혜 갚음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안전하게 뿌리를 내려 자랄 수 있었다.

이곳의 마을 사람들은 뱀의 일기예보를 구전하고 있다. 즉 이 왕버들 근처에 뱀이 나타나면 어김없이 비가 내렸다는 것이다. 뱀은 비가 올 때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 역시 왕버들이 닥쳐올 비바람에 미리 대비함과 아울러 빗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미리 점지하여 주는 뱀의 은혜 갚음인 듯하다.

이 왕버들은 마을의 입구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하였다. 오랜 세월동안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전하고 있다. 이 왕버들은 한적하였던 마을이 아파트 단지로 변할 때에 베어 없애지 않고 남겨 둔 것이라고. 물길이 있는 도랑을 메우면서 2그루의 아름드리나무가 잘려 없어졌지만 이 왕버들은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고목은 강인함이 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항상 변함이 없는 강인함이다. 그리고 고목이 있는 곳에는 고향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옛 마을의 어귀를 지키고 있던 이 왕버들을 바라보면서 지난날의 고향을 생각하게 하고 있다. 이 왕버들은 고향의 이정표이었다.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아파트 단지마을의 입구에 자리를 잡은 왕버들은 높이 솟아 오른 건물과 길가 사이에서 제법 모양새를 갖추고 서 있다. 이 왕버들 바로 옆의 넓은 정자는 마을을 오가는 행인들이나 어르신들이 쉬기에 아주 적당하다.







태그 | 전주시, 평화동, 뱀, 일기예보, 이정표, 왕버들, 보호수





회화나무

전북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1246
35° 25.633′ N / 127° 13.517′ E

- 지정번호 : 9-12-68
- 지정연월일 : 2005. 7. 1
- 수고 : 10m
- 관리기관 : 전북도청
- 수령 : 300년
- 흉고둘레 : 5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회화나무는 관계기관의 자료에서 수령이 300년 이상이지만 안내판의 수령은 500년을 기록하고 있다. 나무 높이도 자료의 기록과 안내판의 기록이 다르며, 실측도 오차범위이지만 이보다 약간 높다. 회화나무 주변에 나무의자가 만들어져 마을 주민들이 쉼터로 활용하고 있다.

이 회화나무가 있는 곳은 마을의 좁은 길가이다. 위쪽 줄기가 치료흔적으로 잘린 부분이 여러 곳이지만 시골에 심은 고목의 회화나무가 오래도록 살아가는 것의 의미가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회화나무를 뜻하는 한자이름에서 생겨난 마을 이름이 더러 있다. 더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도 많지만 더러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한자의 '괴(槐)'자가 회화나무 이외에 느티나무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순창군 적성면의 괴정리(槐亭里)는 예전에 고목의 회화나무가 있어 '회쟁이'로 불렀다. 그러다가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회쟁이를 비롯하여 서림, 마계 마을을 통합하여 괴정리로 부르게 되었다. 괴정리는 '회화나무 괴'자를 써서 부른 이름이다. 후에 신월마을을 편입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의 산 중턱에는 어은공(漁隱公) 양사형(楊士衡)이 세운 천태암(天台庵)의 암자가 있다. 옛날에는 이 암자에서 공부하면 과거에 급제한다는 소문이 퍼져 많은 유생들이 모여 들었다. 그리고 유생들은 과거시험을 보기 전에 괴정리의 커다란 회화나무를 찾았다. 이 회화나무 주변을 100회 이상 돌면서 소원을 빌면 장원급제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 회화나무는 신목의 구실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회화나무가 '출세나무'라고 알려진 나무이므로 이에 맞게 예의를 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전에 회화나무를 서원이나 명문가 집안에 많이 심은 뜻도 학습, 학자와 관련이 깊은 나무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장원급제의 어사화를 하사할 때에 회화나무의 꽃을 주었다.

마을에서는 1970년 중반까지만 해도 이 회화나무 아래에서 당산제를 지냈다. 이 회화나무는 신목이며 당산목이었던 것이다. 당산제는 정월대보름에 밥을 차려 놓고 마을 주민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을 제사이다.

이 당산제는 의례절차가 엄격하였는데, 제물을 충분히 준비하고, 2~3개월 전에 마을에서 추천받은 사람만이 제주가 되었다. 이때는 부부 사이도 멀리하고, 사흘 동안 목욕하며, 밥도 먹지 않았고, 제사를 지낼 옷을 갖춘 상태에서 화장실도 가지 않았다.

이 회화나무는 1995년 태풍 '페이'와 1999년 태풍 '올가' 때에 큰 가지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지만 재난 조치 후 새로운 가지가 뻗어 아름드리의 나무로 자라나 그늘을 만들고 있다. 생육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태그 | 순창군, 괴정리, 천태암, 과거시험, 당산목, 회화나무, 보호수



소나무

전북 남원시 주천면 덕치리 산 6
35° 24.550′ N / 127° 30.542′ E

- 지정번호 : 제2013-10호
- 지정연월일 : 2013.10.29
- 수고 : 17m
- 관리기관 : 서부지방산림청
- 수령 : 250년
- 흉고둘레 : 3.2m, 2.9m, 2.6m, 2m

| 어떻게 살았을까?

남원시 덕치리의 소나무는 원래 수세가 좋은 소나무 6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그 중 2그루는 태풍에 손실되어 현재 4그루가 자라고 있다. 나란히 자라고 있다.

이들 소나무는 나무껍질 모양이 특이하고 아름다우며, 생육상태가 양호하다.

이 소나무가 있는 곳은 최근 각급기관과 주민들이 함께 '지리송 주산제'를 올리는 장소이기도 하다.

250년 이상을 살고 있는 고목이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남원시 주천면 덕치리의 노치마을은 한반도의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마을이다. 노치마을은 7월 백중에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당산제를 지낸다. 할아버지 당산은 마을 뒷산의 소나무와 토석단이 결합된 형태이고, 할머니 당산은 마을회관 앞 500년 수령의 느티나무 또는 큰 바위이다.

할아버지 당산의 소나무는 조선시대 초 경주정씨가 터를 잡고 경주이씨가 들어와 노치마을을 형성하면서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기 위하여 심은 것이다. 이곳의 소나무는 당산제의 당산목이다. 보호수이다.

이 소나무는 백두대간의 정령치에서 여원재로 가는 중간의 산자락에 위치한다. 백두대간 종주자는 반드시 마을 안길의 '노치샘'을 경유하여 보호수 소나무 곁을 지나야한다. 따라서 이 소나무는 마을 전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목이기도 하지만 백두대간 등산객이 합장하고 지나가는 기원목이기도 하다. 소나무 아래에 '천룡후토지지신(天龍后土地之神)'을 모신 신주를 세웠다.

한편 소나무를 당산목으로 하는 노치마을 당산제의 유래에 대한 구전이 전하고 있다. 옛날 노치마을에는 짚신을 만들어 팔았던 가난한 거지가 있었다. 추운 겨울에 거지가 죽자 동네 사람들이 그를 묻어 주려고 하였으나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묻을 만한 곳이 없었다. 그런데 우연히 관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눈이 녹아 있는 땅을 발견하고 그곳에 묻어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곳이 명당이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이 산에 보답하기 위해서 음력 1월 1일 밤 12시에 주산제(主山祭), 곧 당산제를 지내게 되었다.

또한 노치마을 당산제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월 1일에 지내다가 몇 년 전 자손이 없던 마을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면서 전답을 동네 당산답으로 기증을 한 이후에 어르신을 위하여 7월 백중으로 옮겨서 지내고 있다.

덕치리의 노치마을은 해발 500m의 지역이다. 서쪽에는 구룡폭포와 구룡치(九龍峙)가 있으며 뒤에는 덕음산이 있다. 지리산의 관문이라고 말하는 고리봉과 만복대





를 바라보고 있으며 이들 산줄기의 높은 곳은 갈대로 덮여 있어 '갈재'라 하고, 이를 한자로 '노치(蘆峙)'라 쓴 것이다.

태그 | 남원시, 노치마을, 백두대간, 당산제, 당산목, 소나무, 보호수



느티나무

전북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35° 37.026´ N / 126° 35.244´ E

- 지정번호 : 9-15-2
- 지정연월일 : 1982.9.20
- 수고 : 20m
- 관리기관 : 전북도청
- 수령 : 650년
- 흉고둘레 : 7.5m

| 어떻게 살았을까?

부안군 내소사의 천왕문 앞에 있는 할머니 당산목(들당산)은 1982년에 보호수로 지정하였다.
일주문을 통과하여 사천왕이 노려보는 천왕문을 무사히 지나면 중생에게 잠시 쉬어가라는 듯이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이다. 내소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생육 상태가 양호하여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있다.
650년 이상을 살고 있는 고목이다. 또한 이 느티나무 이외에도 내소사 초입의 일주문 옆에 비슷한 고목의 느티나무가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내소사(來蘇寺)는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에 있는 사찰이다. 백제시대에 건립되었다. 내소사는 전나무 숲길, 수령이 650년 정도의 할머니 느티나무, 비슷한 수령의 할아버지 느티나무, 봉래루 앞의 수령 300년 된 피나무(속칭 보리수) 등 고목들이 있다.

내소사로 가는 일주문 앞에 느티나무 당산목이 서 있는데, 이 느티나무는 절 안에 있는 할머니 당산목과 짝을 이루는 할아버지 당산목(날당산)이다. 할머니 당산목은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 앞에 서 있다.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는 입암마을 동제를 잇고 있으며, 민간주도에 의하지 않고 사찰(내소사) 주도하에 전승되어 왔다. 이 당산제의 형태는 불교신앙과 민간신앙(토속신앙)의 결합에 의한 복합신앙을 띠고 있다. 이는 토속신앙을 받들고 있는 기층민들을 사찰 내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임으로서 불교신앙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포교를 병행하는 형태로 기존의 당산제와는 그 형식과 의식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마다 정월대보름에는 할머니 당산목 느티나무 앞에서 내소사 스님들이 제물을 준비하고 독경을 하며 입암마을 사람들과 함께 당산제를 지냈다. 해방 전까지는 당산제가 끝난 후 동서 또는 남녀로 나누어 줄다리기를 하여 그 해 농사의 길흉을 점쳤다. 줄다리기 후 그 줄은 당산목에 감아두어 풍년을 기원하였는데, 이를 '당산 옷입힌다'고 하였다. 지금은 금줄만 쳐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

당산제는 전통에 의한 제의식과 함께 소원을 적는 소원성취 행사, 풍물패 공연, 용줄 남녀 줄다리기, 소지 태우기 등의 행사가 열린다. 당산제는 문헌상 정립된 기록이 없어 역사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느티나무 당산목의 수령에 비추어 볼 때 고려시대에 시작됐다는 설과 조선시대 민속신앙이 기층민들의 생활 깊숙이 전파되어 시작됐다는 설 등이 있다.

특히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는 1980년 후반에 명맥이 끊길 위기가 있었지만 2009년부터 내소사 사찰과 민간이 일정부문의 원형을 복하였다. 당산제 때문인지 이곳





의 당산목 느티나무는 연중 어느 때이건 금줄을 두르고 있다.

태그 | 부안군, 내소사, 입암마을, 당산목, 동제, 피나무, 느티나무, 보호수



은행나무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812-1
35° 37.019´ N / 127° 16.783´ E

- 지정번호 : 9-7
- 지정연월일 : 1982.9.20
- 수고 : 24m
- 관리기관 : 전북도청
- 수령 : 700년
- 흉고둘레 : 4.5m

| 어떻게 살았을까?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서 학문을 닦고 연구한 것에서 유래한 '행단(杏壇)'은 흔히 선비들이 학문을 정진하는 곳을 뜻하는데, 은행나무 열매처럼 학문을 수확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는 향교에 은행나무를 심은 여러 이유 중 하나이다.
임실향교에도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다.
700년 이상을 살고 있는 고목이이다. 2그루 중 한 그루가 2013년에 벼락을 맞아 나무껍질이 벗겨지기도 하였으나 현재 생육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임실향교는 1984년 전북문화재자료 제26호로 지정되었다. 창건 연대와 당시의 위치는 알 수 없으나 현 위치에 이전된 것은 1413년(태종 13)이다. 매년 춘추로 석전(釋奠)을 지내고, 이와는 별도로 매월 삭월과 망일마다 분향례(焚香禮)를 지내고 있다.

임실향교는 1854년(철종 5) 대성전이 크게 중수되고, 1878년(고종 15) 교궁이 수리되는 등 수차에 걸쳐 중수되었다. 1986년에는 서재와 명륜당이 보수되었고, 1988년에는 대성전과 명륜당의 마루와 기와가 보수되었다.

임실향교의 대성전으로 올라가는 동재와 명륜당 사이에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다. 2그루의 은행나무이다. 1413년(태종 13)에 임실향교가 옮겨질 때에 심은 나무로 알려져 있다.

이 은행나무는 2013년에 벼락을 맞아 길가의 바깥으로 향한 나뭇가지가 부러졌고, 줄기의 몸체는 세로로 길게 상처를 남겼다. 강풍으로 고사한 가지를 잘라낸 흔적이 많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벼락에 맞아 조각난 은행나무 조각이 트럭 2대분이나 되었다. 그리고 벼락을 맞은 이 은행나무 가지를 집안에 걸어두거나 지니고 있으면 액운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어 몇몇 사람들이 그 가지를 가져갔다.

이 은행나무는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열매를 많이 맺었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병(경술국치) 이후 열매가 잘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사람들은 한민족의 수난사를 아는 나무로 칭송되었으며, '애국나무'로 별칭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임실향교의 은행나무는 나란히 2개가 서 있다. 큰 나무가 형이고, 작은 나무가 아우로 부르기도 한다. 대체로 이 은행나무의 새싹은 형 나무가 먼저 잎이 나고 나면 동생 나무가 그 뒤를 잇는다.

한편 향교에 고목의 은행나무가 많다. 임실향교를 비롯하여 서산향교, 예산향교, 익산향교, 횡성향교, 전주향교 등이 그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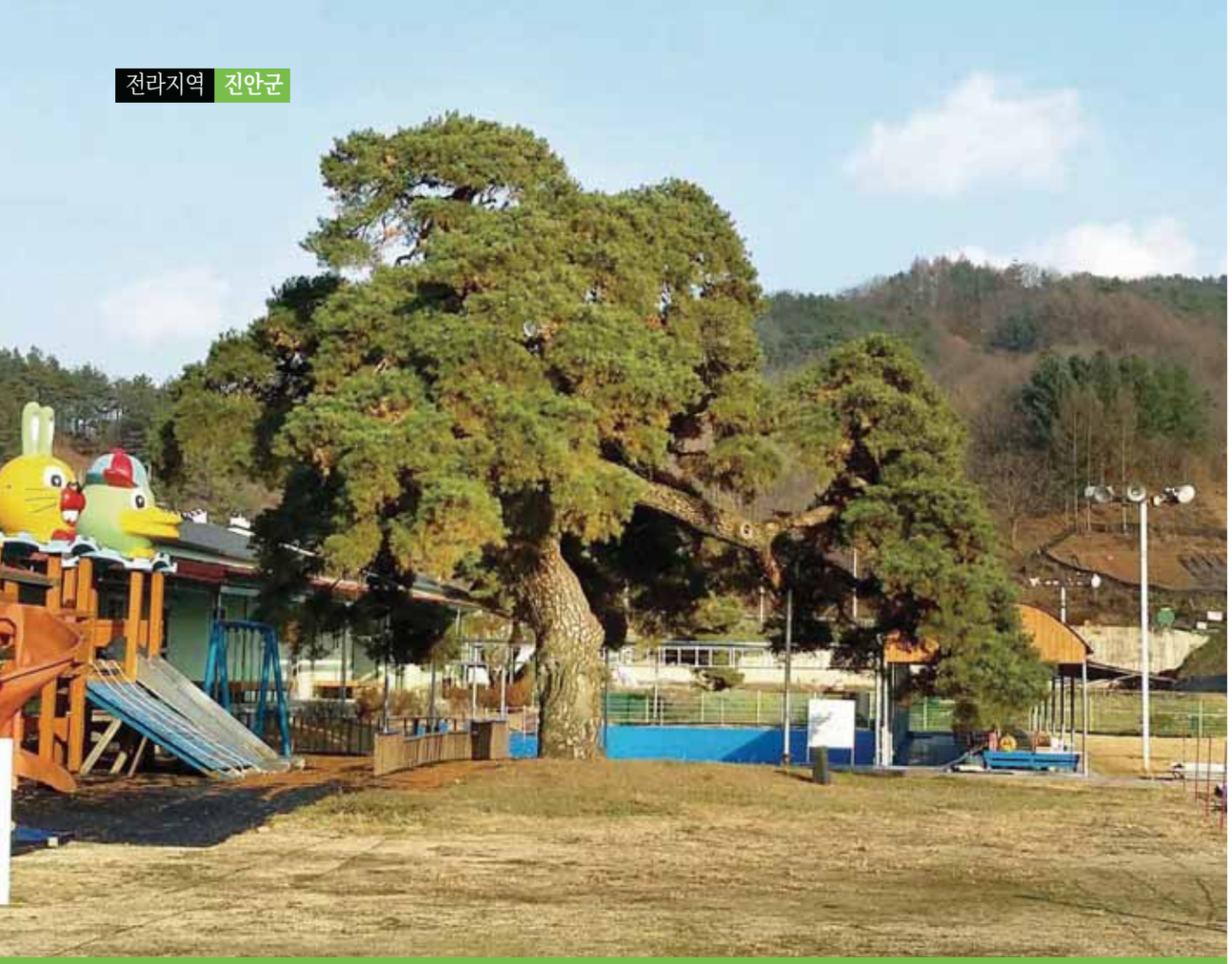
옛날 우리나라 향교에 은행나무를 심은 이유는 은행나무가 열매에 독성이 있어 해충이나 벌레를 멀리하는 습성을 반영하였는데, 향교 출신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을 때에 은행나무처럼 뇌물이나 청탁을 멀리하고 청렴한 관직생활을 하라는 의미 때문이란다.







태그 | 임실군, 이도리, 향교마을, 한일합병, 은행나무, 보호수



소나무

전북 진안군 주천면 도촌길 32
36° 00.423′ N / 127° 26.057′ E

- 지정번호 : 9-7-12
- 지정연월일 : 1982.9.20
- 수고 : 12m
- 관리기관 : 전북도청
- 수령 : 520년
- 흉고둘레 : 3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소나무는 1982년에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수령은 520년 이상이다. 이 소나무는 줄기가 곧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줄기 밑동에서 약하게 용트림을 한 것처럼 휘어지듯이 자라고 있다. 수관은 가지들이 옆으로 늘어지거나 굽어 있어 전체적으로 넓게 퍼져 있다. 가지 한쪽은 지면 쪽으로 자라고 있는 모양이다. 이 소나무는 가지 몇 개가 잘려나갔지만 이대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나무이다.
폐교가 되기 이전에는 학교에서 관리하였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대촌(큰말), 도촌(섬뜸), 미적, 산제의 자연마을이 있는 곳이 주천면 용덕리이다. 주천면에서 충남 금산군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의 마을이다. 이 마을은 돌탑과 당산목에서 동제(당산제)를 지내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용덕리는 '광대정이 고개'에 있던 정자목를 베어 내고 도로를 낸 후부터 마을에 재난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동제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미적 마을은 탑제를 지내고, 산제, 대촌, 도촌 마을은 합동으로 산신제를 모신다. 산신제는 산제 마을의 산제당에서 행하여진다.

이곳은 큰 소나무가 있었으나 벼락을 맞고 고사하여 현재 작은 돌탑만 남아 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제를 지낸다. 산제당을 시작으로 도촌 마을의 '솔정자'에서 제를 지낸다.

산제당의 신목인 '솔정자'는 예전 용덕초등학교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이다. 소나무가 있는 이곳은 원래 용두초등학교 자리였는데 폐교되고 현재 자연학습원이 들어섰다.

이 소나무는 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을 달리 한다. 사람들은 고고한 자태의 이 소나무를 솔정자 이외에 용송(龍松)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소나무는 학교 현관 바로 앞에 서 있었다. 옛 교정의 소나무이므로 누군가는 수차례 올랐을 나무이다. 짝사랑하던 친구나 동료 학생들에게 기상을 보여주기 위하여 올랐을 수도 있다. 그걸 보는 선생님들은 늘 걱정하였을 것이다. 말리고 때려도 소용없었을 것이다. 모르긴 해도 이 나무에서 놀다가 떨어져 다친 이들도 많았을 터이다.

용두초등학교는 이농현상으로 지난 1992년에 학교의 역할을 다하고 폐교되었고, 그 부지는 소나무 보호수만 제외하고 입찰 매각되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소나무가 자라는 곳과 소나무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마을에 환원하여 줄 것을 군과 교육청에 요구하고 나서기도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월대보름과 시월초삼일에 이 소나무에 모두 모여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은 이 소나무를 마을의 보물처럼 관리하고 있다.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태그 | 진안군, 용덕리, 도촌마을, 용두초등학교, 당산제, 소나무, 보호수



산수유

전남 구례군 산동면 계천리 199-1
35° 20.275′ N / 127° 26.251′ E

- 지정번호 : 15-9-8-11
- 지정연월일 : 2001.2.21
- 수고 : 7m
- 관리기관 : 전남도청
- 수령 : 500년
- 흉고둘레 : 4.3m

| 어떻게 살았을까?

구례지역의 산수유는 산동면의 산골짜기 하위마을, 상위마을, 월계마을, 현천마을, 대평마을, 반곡마을, 달전마을 등지에 넓게 퍼져 있다. 달전마을의 산수유는 고목으로 자라고 있다. 산동면의 대표적인 산수유마을은 위안리의 상위마을이다. 만복대(1,433m) 기슭에 자리한 상위마을은 마을 전체에 30,000여 그루의 산수유가 빼곡하게 심어져 있다. 계천리 계척마을의 산수유는 보호수이며, 수령은 자료에서 500년, 현지 안내판 및 안내석에 1,000년이라 기록하고 있다. 어쨌건 오래도록 살고 있는 고목이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산수유는 꽃이 일찍 나온다. 잎이 나오기 전에 노란빛의 꽃이 나와 핀다. 열매는 붉은빛으로 익는다. 씨를 빼낸 과육을 약재로 쓴다. 술로 담그거나 끓여서 차로 마시기도 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당뇨, 고혈압, 관절염, 부인병, 신장계통을 다스린다. 원기도 보충하여 준다. 소문대로 남자는 물론 여성의 건강과 미용에도 좋다.

예전에는 산수유 열매의 씨를 입으로 빼냈다. 어릴 때부터 이빨을 이용하여 씨를 빼냈기 때문에 앞니가 많이 닳았다. 소녀가 그랬고, 아낙네들이 그랬다.

산수유가 구례에서 특산품으로 재배되었다. '산림경제, 동국여지승람, 승정원일기,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에서 알 수 있다. 산수유가 이 지역의 특산물이 된 것은 조선시대이다. 임진왜란을 피해 온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산수유를 많이 심었다. 깊은 산골에서 농사를 짓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구례는 대한민국 제일의 산수유 주산지이다. 대한민국 산수유 열매의 70% 이상이 구례에서 생산되고 있다. 산수유로 가장 유명한 곳은 구례에서도 산동면이다.

산동면 계척마을은 산수유가 처음으로 심어진 곳이다. 산수유 시목(始木) 지역이다. 이곳의 산수유는 해마다 산수유의 풍년을 가져다달라는 소망과 함께 제례를 받는 나무이다. 풍년기원제와 함께 '산수유꽃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제례가 이 산수유 시목 앞에서 시행된다. 마을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심었다는 계척마을의 산수유를 '할머니 나무'라 부르고 달전마을의 산수유를 '할아버지 나무'라 부르고 있다.

시목의 산수유는 수령 1,000년(현지 안내판 및 안내석)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산수유는 옛날 중국 산동성(山東省)에 사는 처녀가 시집오면서 씨앗을 가져와 심었다는 나무이다. 마을 이름이 '산동(山洞)'인 것도 여기서 유래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중국과 대한민국의 '산동'은 모두 산수유 주산지이다.

구례 산수유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정자가 세워져 있다. 정자에서 내려다보이는 산골짜기 풍광이 일품이다. 산수유 꽃이 한창일 때는 냇가, 밭고랑, 돌담 사이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을 전체가 노란빛이다.







태그 | 구례군, 계척마을, 시목지, 할머니나무, 중국 산동성, 산수유, 보호수



느티나무

전남 영암군 서호면 엄길리 539
34° 45.279′ N / 126° 35.561′ E

- 지정번호 : 15-15-8-1
- 지정연월일 : 1982.12.2
- 수고 : 23m
- 관리기관 : 전남도청
- 수령 : 800년
- 흉고둘레 : 8.4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느티나무는 수령은 800년 이상이다.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자라고 있다. 넓게 퍼진 가지는 전체 모양을 보기 좋게 만들었다. 수관은 너비 20~25m이다.

수세가 왕성하다.

태풍 피해로 부러진 가지의 치료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 있다.

이 느티나무 주변은 마을 주민들을 위한 정자(천수정)가 마련되어 있고, 그 주변에 각종 운동 기구가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느티나무는 대한민국의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다. 마을마다 어귀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정자목으로 흔히 심었기 때문이다. 생장이 좋고 수형이 잘 발달하여 공원, 정원 등에 심었다.

그리고 오래된 느티나무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자 당산목으로 여겨 제를 지내고 특별히 보호하였다.

서호면 엄길리에 수형이 잘 발달한 고목의 느티나무가 자라고 있다. 길가와 맞닿아 위치하지만 마을로 들어서는 마을길과 약간 떨어져 있다. 농경지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곳에 홀로 서 있다.

이 느티나무는 엄길리 마을의 상징인 동시에 영암군 지역의 대표적인 노거수이다. 예전에는 마을 당산제의 당산목이었다. 정월대보름에 마을의 안녕과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제를 올렸다. 그리고 이 느티나무가 있는 곳에서 지신밟기 등의 행사를 하였다.

이 느티나무는 1982년에 보호수로 지정되어 보호되면서 당산제가 중단된 이후 당산목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 이곳은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쉬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구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고려시대 말의 일이다. 이 마을에 '민정'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느티나무 밑에서 합격의 소원을 매일 빌었다. 그렇지만 아들이 처음으로 치른 과거시험에 낙방하였다.

이 느티나무는 아들이 과거시험에 떨어진 해부터 갑자기 나뭇잎이 마르기 시작하여 다음해가 되자 거의 고사하였다. 그런데 아들이 몇 년 후 과거에 급제하자 이 느티나무는 말랐던 잎이 다시 돋아나 과거시험의 합격을 축복하였다고 전한다.

이 느티나무가 있는 곳에서 마을의 안쪽으로 가면 마을의 다리 입구에 영암 장동사가 있다. 임진왜란 때의 장수 전몽성, 전몽진, 전몽태 3형제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사우(祠宇)인데, 그 인근에 또 다른 보호수가 자라고 있다. 보호수로 지정된 곰솔(해송)과 회화나무가 마을이 들어선 곳에 위치하고 있다. 엄길리는 고목의 여러 보호수를 볼 수 있어서 좋다.







태그 | 영암군, 엄길리, 당산목, 노거수, 과거시험, 느티나무, 보호수



은행나무

전남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597
34° 55.742′ N / 127° 32.362′ E

- 지정번호 : 15-3-8-2
- 지정연월일 : 1982.12.3
- 수고 : 27m
- 관리기관 : 전남도청
- 수령 : 700년
- 흉고둘레 : 8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은행나무는 수령이 70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은행나무는 줄기가 크게 3갈래로 갈라져 진 후 다시 10여 개의 큰 가지로 갈라져 자라고 있다. 마을회관 옆의 경사지 위에 우뚝 서 있다.

이 은행나무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암나무이다. 마을회관으로 뻗은 가지는 팔을 올리면 손에 닿을 정도로 퍼져 있다. 열매를 딸 수도 있다.

전남지역 은행나무 중 고목에 속하는 나무 중의 하나이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대가마을. 순천금당지구를 지나 제일 교회 앞에 있는 철길을 넘어 조금 가면 길 왼쪽으로 대가마을 표지판이 나온다. 대가마을은 원래 '큰 가산'이라 부르던 마을이름이 일제강점기 때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바뀐 이름이다. 마을 사람들이 전하는 마을 이름의 유래이다.

그리고 마을 남쪽에 있는 남가마을과 서쪽에 있는 서가마을까지 모두 합쳐서 '가산리'라 부르던 명칭도 이때 남가리(南佳里)로 바뀌었다. 보다 자세한 마을 이름의 내력은 전하지 않지만 이 마을은 왕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마을에 터를 닦고 그 다음 노씨, 조씨, 제주양씨 등이 들어와 살았다. 현재는 제주양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대가마을의 표지판을 따라 마을의 길로 접어들어 마을회관으로 향하는 골목길로 들어서면 높게 자란 은행나무가 눈에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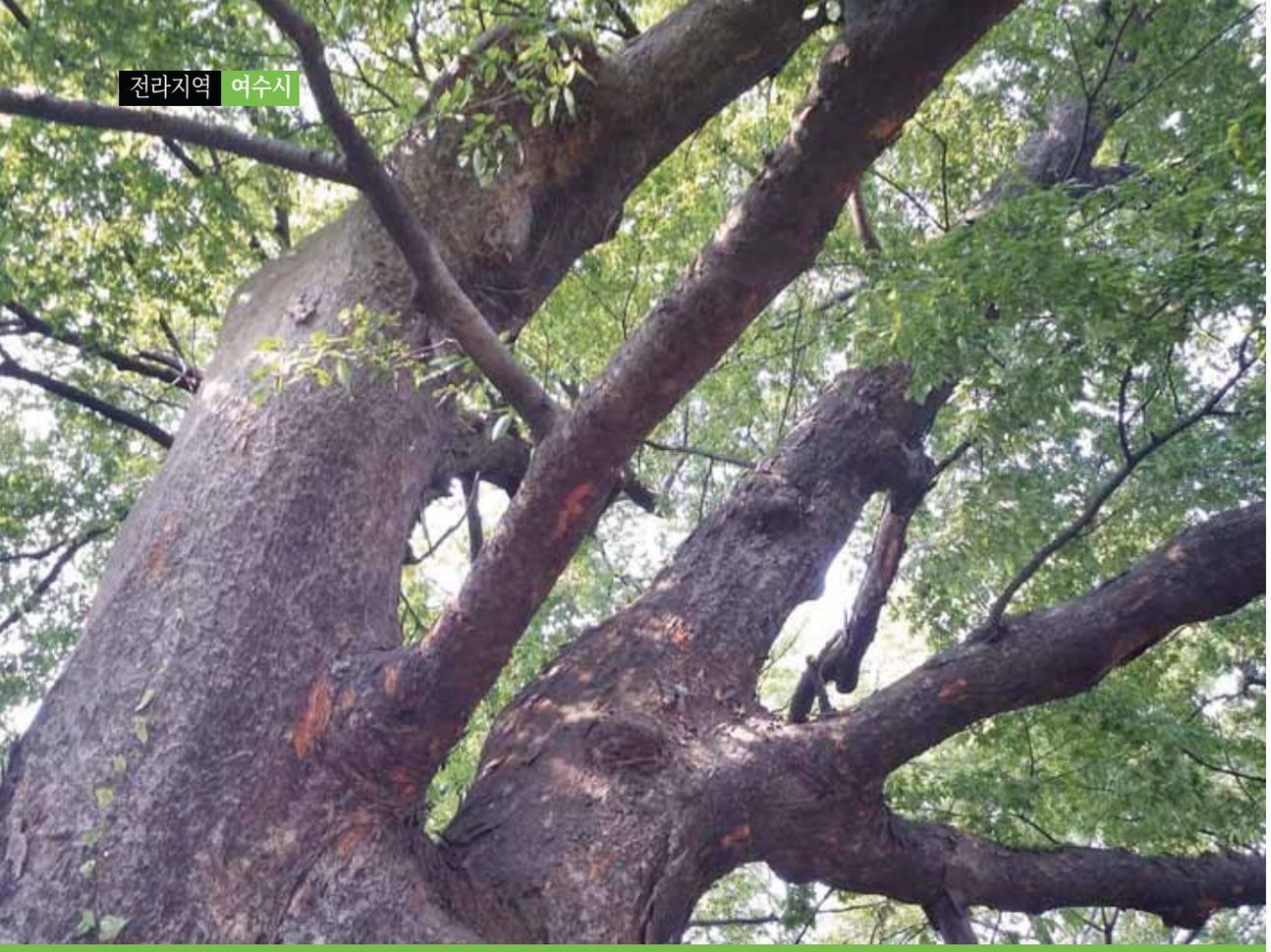
마을 사람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지금은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하여 줄기를 단정하게 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지만 예전에는 어린 아이들이 가지가 번질번질하도록 오르내리면서 놀았다. 그리고 열매를 따다가 떨어지기도 많이 하였다. 그렇지만 누구하나 죽거나 크게 다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신통한 나무였기에 마을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대가마을은 이웃 마을과 달리 여순사건이나 6.25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도 젊은이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 이 은행나무 목신이 마을을 보살피고 있기 때문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은행나무 주변은 몇 대의 주차가 가능한 너른 마당이 있는 마을회관, 즉 가산문화회관과 가산경로당이 있다. 그리고 가산정(佳山亭)이 자리하고 있다. 이 은행나무 뒤에는 담장을 경계로 하여 오래된 정자의 은행정(銀杏亭)이 있다.

여기에서의 가산은 아름다울 가(佳)와 뫼 산(山)이므로 아름다운 산이 있는 동네라는 뜻이다. 이상한 것은 이 은행나무가 있는 곳은 남가리이다. 좀 더 좁히면 대가마을이다. 그런데 마을회관 등의 이름은 가산을 쓰고 있다. 예전 마을 이름의 가산리를 잊지 못하는 것 같았다.

태그 | 순천시, 남가리, 대가마을, 노거수, 가산정, 은행정, 은행나무, 보호수



느티나무

전남 여수시 오림동 422-2
34° 45.512′ N / 127° 42.845′ E

- 지정번호 : 15-2-12-1
- 지정연월일 : 1982.12.3
- 수고 : 26m
- 관리기관 : 전남도청
- 수령 : 600년
- 흉고둘레 : 6.8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느티나무는 수령이 600년 이상이다. 이 느티나무는 2008년에 불에 탄 적이 있다. 느티나무 밑동 가로 30cm, 세로 1m 가량과 중간 부분 가로 2m, 세로 3m 가량이 불에 타 심하게 훼손되었다. 무속인이 주술행위를 하기 위하여 고목 아래에 켜놓은 촛불이 줄기의 빈 공간에 설치한 보온용 스티로폼에 옮겨 붙었던 것이다.
주민들은 느티나무 아래에 쉼터 정자를 지어 사람들이 쉬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여수시 오림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대로변에 수령 600년이 넘는 느티나무 2그루가 정답게 서 있다. 이 느티나무가 있는 자리는 옛날 좌수영성 서문에서 5리 지점으로 오리정이 있던 곳이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분들이 이 느티나무를 찾아 합격을 기원하면 뜻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찾기도 하였다.

이 느티나무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옛날에 이곳에서 젊은 부부가 토막집을 짓고 살았다. 남편은 과거시험 합격을 목표로 글공부에 전념하고, 부인은 남편을 돕기 위하여 떡장수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은 알 수 없는 병을 얻어 투병생활을 하게 되었다. 부인이 갖은 정성을 다하여 간호를 하였으나 병은 더욱 악화되어 회복되지 않았다. 부인은 남편의 시신을 안고 통곡을 하였으나 한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남편의 시신을 거두어 삼일장으로 장례를 치른 후부터 밤이 되면 죽은 남편의 가냘픈 울음소리가 문밖에서 들려 문을 열고 나가보면 아무 흔적도 없고 문을 닫고 들어오면 또 다시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와 같은 일이 밤마다 계속되는 어느 날 부인이 대들보에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하는 순간 길을 가던 노승이 목이 말라 물을 얻어먹으려고 주인을 찾다가 이 같은 현장을 목격하였다. 노승은 "당신의 남편은 한 많은 원귀가 되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고 있으니 남편의 영혼을 위하여 만인공덕을 쌓아야 극락을 가게 된다"고 말하였다.

부인은 "나는 재물이 없으니 어찌 만인 공덕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스님은 "만인공덕은 재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성에 있는 것이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개천에 돌다리를 놓으며, 길가는 행인에게 쉬는 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모두 만인공덕인 것"이라 일러주고 길을 떠났다. 그 후 부인은 남편의 극락왕생을 위한 만인공덕을 생각한 끝에 느티나무 한 쌍을 심었다. 미진하였던 사랑을 나무를 통하여 이루어 보고, 이 나무가 크게 자라서 푸른 그늘이 우거지면 오고가는 행인이





쉬어가는 자리가 되면 만인공덕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2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었다.

태그 | 여수시, 오림동, 시외버스터미널, 무속인, 주술행위, 불, 느티나무, 보호수



곰솔

전남 영암군 덕진면 덕진리 261
34° 49.191′ N / 126° 41.706′ E

- 지정번호 : 15-15-2-3
- 지정연월일 : 1982.12.3
- 수고 : 15m
- 관리기관 : 전남도청
- 수령 : 600년
- 흉고둘레 : 2.6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곰솔은 2009에 고사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 1982년부터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해 온 이 곰솔은 갑자기 나뭇잎이 갈색으로 변하여 말라갔던 것이다.
갈변현상이 나무 전체로 퍼지며 건강이 악화될 무렵에 나무병원의 전문가의 도움으로 원기를 회복하여 고사의 위기를 모면하였다. 원인은 '솔껍질깍지벌레'라는 해충 때문이었다.
원인을 찾은 후 약제 살포 및 영양제 주사 등의 처방으로 치료를 하였다. 지금은 생육이 양호하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마을 이름의 유래가 특이한 곳이 있다. 영암군 덕진면 덕진리이다. 이 마을은 영암천 유역의 넓은 평지에 위치한다. 덕진개가 있으므로 덕진개 또는 덕진포, 덕진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 마을 이름이 어느 여인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예전에 이곳에서 주막을 경영하던 과부가 있었다. 이름이 '덕진'이었다. 과부 덕진은 이 지역에 다리가 없어 많은 행인들이 불편한 것을 보고 푼푼이 모아 둔 돈을 모두 털어 큰 돌로 다리를 놓았다. 이 다리 이름은 과부의 이름을 따서 덕진교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구전이 있다. 전설이지만 한 여인의 이름에서 덕진교라는 이름이 생겼으니 이것이 마을이름의 유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마을에 수령 600년 이상의 곰솔(해송)이 있다. 이 곰솔은 지표면 바로위에서부터 줄기가 3갈래로 크게 갈라져 성장하여 넓은 수형을 이루고 있고, 수관의 너비는 사방 17~22m이다. 받침대를 설치하여 아래로 처진 가지들을 받쳐 주고 있다.

덕진리 내촌마을의 곰솔은 마을 경작지 부근에 자라고 있어 농사철에 농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수령이 오래되어 역사적 가치가 크고, 수형이 아름다워 마을의 상징수로서 보호받고 있다. 또한 마을의 당산목으로 이용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 곰솔을 호신수라 하여 신목으로 믿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각종 질병을 물리치고 만수무강을 바라는 뜻에서 매년 유둣날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 곰솔 밑에서 지내는 마을의 제사를 '덕진리 내촌 당산제'라 부르고 있다. 마을의 평안을 비는 뜻에서 공동으로 지내는 제사이다.

당산제는 이 곰솔이 신목이며 당산목이다. 주민들은 이 당산목을 '당산할머니'라 부른다. 음력 6월 15일(유두) 오전 10시경에 마을의 남녀노소 모두가 이 곰솔 주변에 모인다. 장만한 제물을 진설하고 유교식으로 절을 하면서 당산할머니에게 당산제를 모신다. 이 당산제는 마을의 단합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여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







태그 | 영암군, 덕진리, 내촌마을, 당산제, 당산목, 곰솔, 보호수



느티나무

전남 강진군 군동면 화산리 652-1
34° 39.621′ N / 126° 49.410′ E

- 지정번호 : 15-13-6
- 지정연월일 : 1982.12.3
- 수고 : 18m
- 관리기관 : 전남도청
- 수령 : 420년
- 흉고둘레 : 7.2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느티나무는 수관 너비가 20~33m이다. 수령이 420년 이상이다. 1982년에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이 느티나무는 오랜 세월동안 풍상을 이기고 살아온 탓에 줄기 밑동에 옹이가 많다.

이 느티나무는 10여 년 치료를 받은 뒤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밑동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왔다. 점차 사람 얼굴의 모양으로 잡혀갔다. 달마 모양을 닮은 형상이 되었던 것이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달마는 보리달마(菩提達磨)의 약칭이다. 남인도 향지국의 셋째 왕자로 알려져 있다. 중국 남북조시대에 선종을 창시한 인물이라지만 실존 인물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불가의 그림 중 달마도는 달마의 모습을 그린 화상인데, 그림 속 달마가 눈을 무섭게 부라리는 이유는 수련 중 졸음을 이기지 못한 눈꺼풀이 내려 앉아 이를 막기 위해 아예 눈꺼풀을 잘라버렸다는 일화가 있기 때문이다.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면 좋은 기운을 받는다고도 한다.

군동면 화산리 화방마을에는 특별한 느티나무가 있다. 달마를 닮은 나무이다. 마을 입구의 도로변에 자라고 있다. 이 느티나무는 초봄에 잎이 한꺼번에 풍성하게 활짝 나오면 그해 풍년이 들고, 이파리가 일찍 핀 것 늦게 핀 것이 있어서 활짝 피지 못하면 그해 흉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느티나무를 마을의 큰 어른으로 생각하며 매년 유둣날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마을의 평온을 유지하고 악귀를 쫓아내 줄 것을 기원한다. 호칭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주민들은 이 느티나무를 이야기할 때 '저 양반'이라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느티나무 아래에 정자를 짓고 여름이면 그곳에 모여 더위를 피했다.

이 느티나무는 밑동 줄기가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왔다. 밑동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사람이 앉아있는 무릎을 연상케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커지고 귀가 커졌다. 벗겨진 머리와 툭 튀어나온 배, 땅에 편하게 주저앉아 환한 미소를 보내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달마 모양이었다. 커다란 얼굴은 해학이 넘쳐났다. 더욱이 달마상이 동쪽을 향하고 있어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을 연상하게 하였다.

주님들은 이 모양을 그냥 '달마상'이라 부르고 있다. 달마상의 느티나무가 매스컴에 오르내린 후 이 나무를 보기 위하여 방문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무속인들은 달마대사 얼굴모양의 옹이를 만지며 굿을 하고 소원을 빌기도 한다. 일부 무속인들은 이 느티나무 달마상이 화대화상(돈주머니를 찬 스님)의 모양이므로 마을에 돈다발을 가져다 줄 것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무속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꺼리고 있다. 그들이 빌고 가면 마을의 기운을 빼앗아가는 꼴이 되기 때문이란다.

태그 | 강진군, 화산리, 달마, 무속인, 당산목, 느티나무, 보호수



전라지역 해남군

느티나무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
34° 28.257´ N / 126° 38.014´ E

- 지정번호 : 15-14-2-3
- 지정연월일 : 1999
- 수고 : 22m
- 관리기관 : 전남도청
- 수령 : 1,100년
- 흉고둘레 : 7.5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느티나무는 수령 1,100년 이상이다. 당당한 위압감이 잠시 넋을 놓게 할 정도의 고목이다.
해남군의 나무 중에 수령이 가장 많다.
이 느티나무는 태풍 피해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고, 몇 년마다 잎이 무성하지 않고 성글게 달리기도 하지만 현재 생육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두륜산 위쪽의 만일암터 옆에 자라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해남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바닷가 근처에 우뚝 솟은 산이 두륜산(703m)이다. 남서쪽의 대둔산(672m)과는 자매봉을 이룬다. 흔히 대둔산, 대흥산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산자락에 조계종 제22교구의 본사인 대흥사(일명 대둔사)가 있어서이다. 두륜산의 정상에 서면 멀리 완도와 진도를 비롯하여 다도해의 작은 섬들이 바라다 보인다. 식생은 난대성 상록 활엽수와 온대성 낙엽 활엽수가 주종이다.

두륜산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정상 가까이에 다다르기 전에 이르면 만일암 오층석탑을 만날 수 있다. 만일암은 17세기 후반에 지은 대흥사의 산내 암자라지만 정확한 기록이 없다. 만일암의 모든 전각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겨우 고려시대의 석탑 양식을 볼 수 있는 오층석탑만 남아 있다. 만일암 터의 오층석탑 인근에 하늘 높이 자라는 노거수의 느티나무가 있다.

이 느티나무는 오래 살고 있는 만큼 그럴싸한 전설도 있다. 북미륵과 남미륵을 조성할 때 날이 저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해를 잡아맸다는 이야기이다. 천상계와 인간계가 이어지는 이야기이다.

옛날 옥황상제가 사는 천상에 천둥과 천녀가 살았는데, 이들은 천상계율을 어겨 죄를 짓고 하늘에서 쫓겨났다. 이들이 다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하루 만에 바위에다 불상을 조각하는 일이었다. 천동과 천녀는 하루 만에 불상을 조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해가 지지 못하도록 만일암의 느티나무에다 해를 매달아 놓았다.

그리고 천동은 남쪽 바위에 서 있는 불상을 조각하고, 천녀는 북쪽 바위에 앉아 있는 불상을 조각하였다. 천녀는 앉아 있는 좌상의 불상을 양각으로 조각했기 때문에 서 있는 모습을 음각으로 조성한 천동보다 먼저 조각할 수 있었다. 불상 조각을 다 마친 천녀는 먼저 하늘에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생겨 느티나무에 해를 매달아 놓은 끈을 잘라 버렸다. 해가 지자 금세 어둠이 찾아왔다. 천동은 더 이상 불상을 조각할 수 없었다. 천동은 결국 하늘에 올라갈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의 전설은 천년수 느티나무와 미륵의 지나온 시간을 신비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태그 | 해남군, 구림리, 두륜산, 대흥사, 만일암, 미륵, 느티나무, 보호수



곰솔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4212
34° 22.170′ N / 126° 11.991′ E

- 지정번호 : 15-21-5-13
- 지정연월일 : 2005.3.22
- 수고 : 13m
- 관리기관 : 전남도청
- 수령 : 220년
- 흉고둘레 : 3.1m

| 어떻게 살았을까?

진도군에 삼별초의 지휘관 배중손의 사당이 있다. 이 사당에는 '고산 윤선도 선생 사적비'가 있고, 그 옆에 커다란 곰솔(해송)이 자라고 있다. 이 곰솔은 고산 윤선도가 심었다고 전하고 있다. 보호수이다.

이 곰솔은 220년 이상이나 바닷가에 접한 곳에서 만고풍상을 다 겪으면서도 어느 가지하나 병충해와 공해에 오염되지 않고 우람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사당 및 유적비와 함께 의미를 둘만한 고목이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소리의 고장 진도. '옥주(沃州, 비옥한 땅)'라 불리며 그 비옥함을 자랑했던 곳. 한 해 농사를 지으면 3년 먹을 만큼 풍요로운 곳. 진도의 풍부한 먹거리는 고려시대 삼별초가 군사요충지로 삼았던 연유가 되었다. 고려를 침략한 몽골군과 이에 항복한 고려 왕권에 저항한 삼별초는 진도에 성을 세우고 군사를 키웠다. 삼별초의 지휘관은 배중손(裵仲孫 ? ~1271)이다.

배중손은 진도의 남도석성 전투에서 패한 후 굴포리(또는 백동리)의 해안 쪽으로 이동하다 최후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배중손 사당은 이에 의거하여 임회면 굴포리에 마련되었다. 1270년(원종 11)에 몽골침략에 대항하여 거병한 삼별초 항쟁의 지도자 배중손의 위패를 봉안한 사당이다. 정충사(精忠祠)라 부른다. 이곳은 옛날에 할머니당을 모시는 신당이었으나 이를 헐고 배중손 사당을 신축하였다. 할머니당의 당산목은 그 곁에 자라는 고목의 보호수 곰솔(해송)이다. 현재 배중손 사당의 정충사 오른쪽에는 옛날 할머니당을 모셨던 '굴포 신당 유적비'가 있고, 그 옆에 '고산 윤선도 선생 사적비'가 있다. 이 사적비가 세워진 이유는 윤선도의 간척사업과 곰솔을 심은 이유가 많이 적용되었다.

16세기 해남에 근거를 둔 고산 윤선도(1587~1697)의 가문은 해남, 진도, 완도 지역에서 간척사업을 하였다. 바다를 메우는 최초의 민간 간척사업이었다. 진도는 굴포리 신동마을부터 연동마을까지 60만㎡의 바다를 메웠다. 당시로서는 규모가 매우 크고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 덕에 굴포리의 마을 주민들은 대대손손 터를 잡고 밭을 일구고 있다. 주민들은 윤선도의 고마움에 대한 보은으로 정월대보름에 윗마을의 윤선도 사당과 배중손 사당의 옆에 있는 고산 사적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

굴포리처럼 포구의 입구가 좁고 안쪽 수심이 낮으며 갯벌이 발달한 지역은 간척에 적합한 장소이었다. 당시 윤선도는 지금의 제방(도로)보다 100m 앞쪽을 연결하였다. 둑을 쌓는 일이 쉽지 않았다. 구전에 따르면 둑이 자꾸 터졌다. 윤선도는 깊은 시름에 빠졌을 때에 꿈속에서 큰 구렁이가 둑을 기어가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제방에 가보니 구렁이가 기어간 흔적 같은 것이 있어 그곳으로 석축을 쌓아 막았더니 무너지지 않았다. 또 다른 전설은 윤선도가 배중손 장군의 사당에 공을 들였더니 둑이 무너지지 않고 쌓을 수 있었다.

태그 | 진도군, 백동리, 굴포리, 삼별초, 배중손, 윤선도, 신목, 곰솔, 보호수



느티나무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935 34° 36.526′ N / 127° 17.011′ E	· 지정번호 : 15-9-1-2 · 지정연월일 : 1982.12.3 · 수고 : 25m · 관리기관 : 전남도청 · 수령 : 800년 · 흉고둘레 : 5.9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느티나무는 수령 800년 이상이다. 1982년 12월에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보호수의 느티나무는 봉황산 아래의 고흥천(남계천) 언저리에 자라고 있다.
이 느티나무는 줄기가 여러 개의 굵은 가지로 갈라졌다.
때문에 수관이 넓게 퍼져 있다. 수관은 작은 하천 및 길가 쪽으로 절반 정도씩 펼쳐져 있다.
줄기의 훼손흔적이 거의 없고, 생육상태가 양호하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보호수는 특별한 나무이다. 때문에 안내판(표지판)을 세워 알려준다. 더불어 울타리 등의 특별한 보호시설을 갖추어 보호한다. 그러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곳도 있다.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의 느티나무 보호수가 그렇다.

이 느티나무 주변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수선하였으나 현재 잘 정비되어 있다. 안내판도 새롭게 세워졌고, 나무 아래에 앉아 쉴 수 있는 시설도 마련하였다. 일반 평상을 놓았던 자리는 그럴 듯한 지붕이 있는 정자(홍교정)를 지었다. 그 앞은 보행자 도로가 정비되어 있다. 제대로 된 작은 공원(쉼터)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주변에 화장실을 갖추지 않은 점이 흠처럼 여겨졌다.

이 느티나무는 다른 곳의 보호수가 있는 곳처럼 높다란 울타리를 두르지 않았다. 울타리가 없는 느티나무이므로 아이들이 곧잘 나무타기를 하며 놀이를 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줄기가 넓고 큰 보호수이므로 아이들이 나무타기 놀이를 하기가 쉽지 않은 듯이 보였다. 인가와 접하여 있어서인지 어르신들의 만나고 쉬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 느티나무는 고려시대에 누군가 심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있던 느티나무 종자가 날아와 뿌리내리고 자라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을 것이다. 숱한 전쟁을 치르고도 살아남았다. 온갖 아픔과 생채기를 지켜보면서 살아온 나무이다. 몇 해 전에는 태풍으로 굵은 가지 하나가 부러졌다.

이 느티나무는 고흥읍의 가운데로 흐르는 작은 고흥천(남계천) 바로 옆에 서 있다. 고흥천은 고흥군의 중심 남계리를 지난다. 남계리는 고흥군청이 있는 중심가이며 남쪽으로 봉황산(鳳凰山, 199m)이 있고 고흥천과 복대천이 만나고 있다.

느티나무가 있는 이곳의 자연마을은 송곡, 학림, 신계, 원동, 남계, 봉남, 봉계가 있다. 송곡은 고개 근처에 마을이 있으며 소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남계는 고흥천(남계천) 가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봉남은 봉황산 아래 있는 마을이라 봉황산의 봉과 남계리의 남을 따 붙인 이름이며, 봉계는 봉황산의 봉과 남계리의 계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태그 | 고흥군, 남계리, 고흥천(남계천), 봉황산, 느티나무, 보호수



느티나무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34° 34.383′ N / 126° 35.940′ E

- 지정번호 : 15-14-1-1
- 지정연월일 : 1982
- 수고 : 12m
- 관리기관 : 전남도청
- 수령 : 500년
- 흉고둘레 : 4.5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느티나무는 수령이 500년 이상이다. 1437년(세종 19년)에 식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82년에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지정 사유는 노거수이고, 해남군청의 풍치 및 경관에 가치가 있어서이다.
이 느티나무는 여름의 기나긴 폭염에 사람들의 피서장소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어느덧 군청의 느티나무 아래는 세상소식을 듣는 제일의 장소가 되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해남군청은 막혀있는 담장이 없어 출입이 쉽다. 드나드는 것이 자유롭다. 때문에 여름이 되면 해남군청 마당의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많다.

해남군청 마당에 서 있는 고목의 느티나무가 여름철의 사랑방이다. 여름을 나는 어르신들은 자연이 주는 바람과 그늘이 있는 느티나무 둘레에서 땀을 식힌다.

해남군청의 느티나무 사랑방은 지역 어르신뿐만 아니라 외지서 온 민원들이 잠시 쉬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해남군청 정면은 천연기념물 제430호의 곰솔(해송)이 하늘 높이 치솟아 있다. 울타리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다. 이 곰솔은 '수성송(守城松)'이라는 안내판(표지판)과 표지석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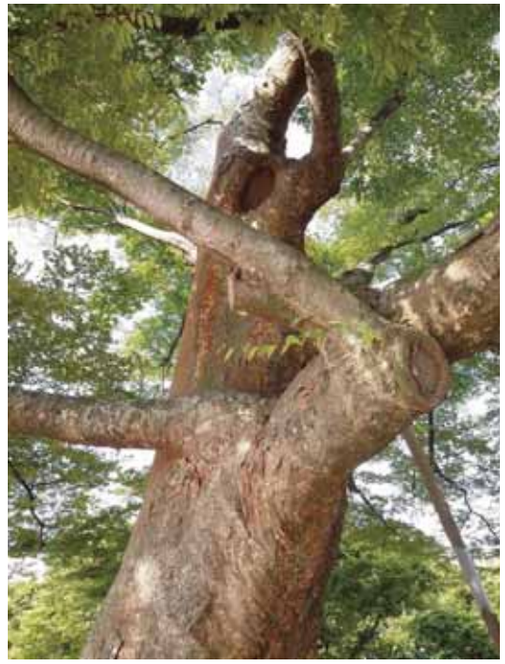
느티나무는 천연기념물의 곰솔 옆에 늠름히 서 있다. 해남군청 민원실 앞에 위치한다. 노거수의 보호수이다. 광장에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마련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울타리처럼 둥그스름하게 돌아가면서 놓인 목재 벤치가 보호를 하고 있다. 이 벤치가 바로 폭염을 이겨내는 그늘 쉼터이고 사랑방이다.

이 느티나무는 옛날에 제를 모실 때 제당으로 쓰였다. 당연히 신목이었고, 당산목의 역할을 하였다. 나뭇잎 빛깔이 좋고, 수형도 아름답다. 곰솔(수성송)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해남군청 건물과 함께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다만 줄기의 공동이 많아 많은 부분이 충전되어 있는 점이 아쉽다. 느티나무의 수세에 영향이 없는 공동이었으면 한다.

이 느티나무는 2014년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옷을 입었다고 하여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한 사회단체가 리본과 배 등 세월호를 상징하는 작은 뜨개질 조각들을 한 달에 걸쳐 만들어 하나로 연결하고 느티나무에 감쌌다. 회원들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킨 느티나무처럼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느티나무에 옷을 선물하였다. 또한 해남과 안산시가 함께 아파하고 잊지 말자는 의미를 담았다. 보호수에 덮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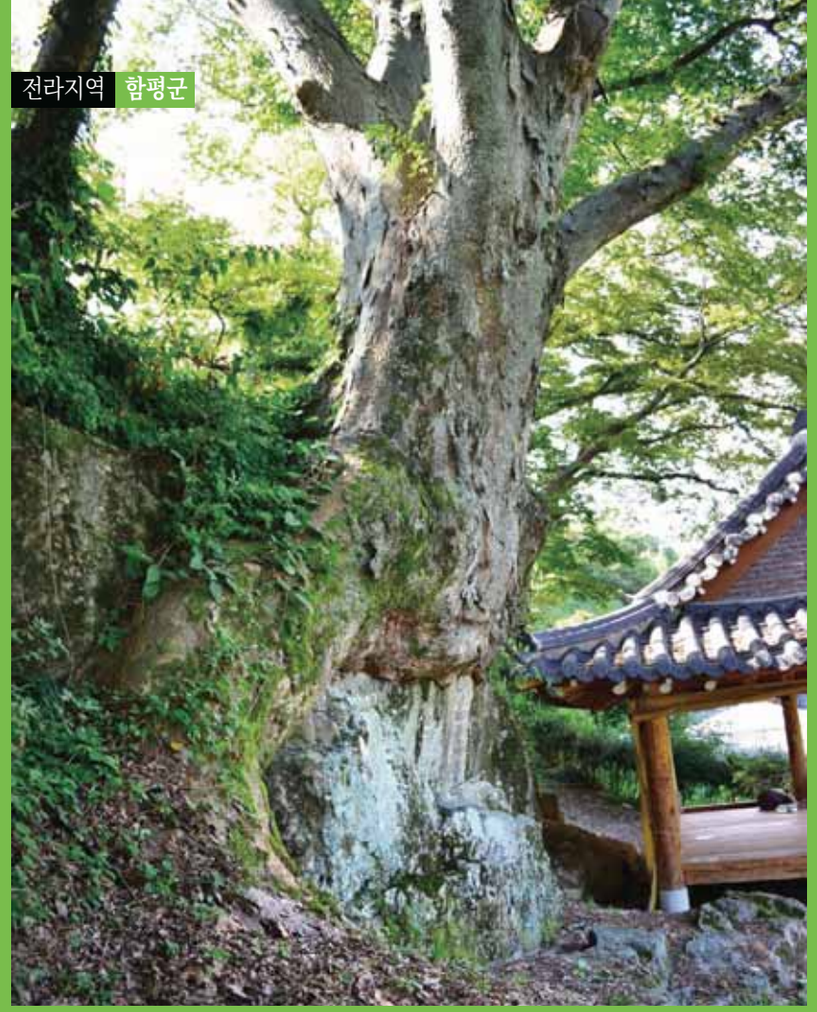






를 입히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에 가능하였다.

태그 | 해남군, 성내리, 해남군청, 쉼터, 곰솔(수성송), 느티나무, 보호수



전라지역 **함평군**

느티나무

전남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 208 35° 10.296′ N / 126° 32.246′ E	· 지정번호 : 15-17-8-6 · 지정연월일 : 1998.12.7 · 수고 : 24m · 관리기관 : 전남도청 · 수령 : 300년 · 흉고둘레 : 4.4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느티나무는 수령이 300년 이상이지만 수령이 대한민국 보호수 중 하위에 속한다. 특별히 구전하는 이야기도 거의 없다. 그렇지만 이 느티나무는 '용천사권 개발'에 맞춰 더욱 알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바위에 붙어 자라는 고목의 희귀성이 관광 상품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느티나무는 의미가 있다. 광암리는 2016년에 '새뜰마을사업'에 선정되어 '용천사권 개발'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느티나무의 명성이 널리 퍼질 날도 머지않았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몇 년 전에 '용천사권 개발'이 함평관광의 화두로 등장한 바가 있다. 국회의원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함평군은 2015년 '용천사권 개발'의 군민제안을 공모하였다. 용천사(龍泉寺)는 해보면 광암리의 모악산(母岳山)에 있는 절이었다. 용천사권은 백제시대 창건되었다는 용천사가 있고, 남한 최대 석산(꽃무릇) 군락지인 '꽃무릇 공원' 등이 있어 매년 수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이다. 함평군은 이 권역을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적인 지역발전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용천사는 대웅전 주변에 있는 사방 1.2m 가량의 샘에서 유래되었다. 서해로 통하는 이 샘에 용이 살다가 승천하였다고 하여 용천이라 불렀으며, 용천 옆에 지은 절이라 하여 용천사라 하였다. 용천사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보수와 중창을 거치다가 정유재란과 6·25한국전쟁으로 많은 건물이 소실되었다. 1990대 이후 복원에 힘을 쓰고 있다.

'꽃무릇 공원'은 자연 100경 중 48경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꽃무릇 군락이다. 가을이면 융단을 펼쳐놓은 듯이 온 사방을 붉게 물들인 광경을 연출한다. 이곳에서는 매년 9월에 꽃무릇 축제가 열리고 있다.

이 일대의 행정구역은 광암리이다. 광암리는 자연마을로서 운암(雲岩)과 광동(光洞) 마을이 있다. 광암리는 광동과 운암의 지명 한 글자씩을 따서 붙인 지명이다. 운암은 마을 뒷산에 '굴바위'라는 동굴이 있는데, 굴이 삼층으로 되어 있어 멀리서 보면 구름과 같이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광암리의 운암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산간벽촌이다. 용천사로 가는 길목에 있다. 지명 이름이 말해주듯이 운암 마을을 들어설 때에 커다란 바위가 길가에 드러나 있다. 그 바위 곁에는 정자가 있다.

정자는 바위의 높이와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하여 약간 높게 지어져 있다. 정자의 그늘은 노거수의 느티나무가 제공하고 있다. 이 느티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늘의 쉼터를 제공하며 함께 살아온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느티나무는 줄기가 커다란 수직 바위에 붙어 자라고 있다. 뿌리는 지면을 넓게 덮고 있으나 표토가 유실되면서 일부가 노출되었다.

태그 | 함평군, 광암리, 운암마을, 용천사, 꽃무릇(석산), 느티나무, 보호수









경상지역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주시 / 영양군 / 안동시 / 청도군 / 영주시 / 울릉군 / 성주군 / 구미시 / 울진군 / 포항시 / 양산시 / 함안군 / 거창군 / 산청군 / 하동군 / 합천군 / 진주시

70	느티나무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294	168
71	회화나무	부산	사하구 괴정동 1244-5	170
72	느티나무	대구	북구 연경동 879	172
73	은행나무	대구	북구 매천로37길29-12	174
74	회화나무	울산	중구 우정동 276-43	176
75	느티나무	경북	경주시 내남면 부지1리 714	178
76	은행나무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 431	180
77	느티나무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종가길 62	182
78	이팝나무	경북	청도군 풍각면 덕양리 1803	184
79	은행나무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98	186
80	향나무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34	188
81	후박나무	경북	울릉군 서면 남양리 143-1	190
82	은행나무	경북	성주군 초전면 봉정리 536	192
83	왕버들	경북	구미시 장천면 금산리 626	194
84	팽나무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367-1	196
85	느티나무	경북	포항시 신광면 마북리 91-1	198
86	소나무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대광천길 60-1	200
87	느티나무	경남	양산시 북부동 327-2	202
88	시무나무	경남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541-2	204
89	느티나무	경남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662	206
90	은행나무	경남	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1049	208
91	감나무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262	210
92	느티나무	경남	하동군 화개면 목압길 104	212
93	푸조나무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34	214
94	노간주나무	경남	합천군 봉산면 권빈리 산204	216
95	굴참나무	경남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산1	218



느티나무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294
35° 21.874′ N / 129° 14.932′ E

- 지정번호 : 2-10
- 지정연월일 : 1978.8.12
- 수고 : 25m
- 관리기관 : 부산시청
- 수령 : 1,300년
- 흉고둘레 : 8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느티나무는 2003년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가지가 많은 피해를 입어 치료를 하였다. 나무가 병균, 해충, 기상 또는 그 밖의 어떤 원인으로 생긴 상처가 그 이상 확대되거나 썩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였던 것이다. 그로 인하여 수형이 원래 모습과 약간 달라졌다. 푸르고 깨끗한 잎이 무성한 가지들은 아름답게 휘어졌다. 생육은 양호한 편이다. 이 느티나무는 태풍 '매미'때 한쪽 가지가 부러져나가 외과수술을 받는 일도 근년에 있었지만 전혀 쇠약하여 보이지 않는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느티나무 중 가장 오래도록 살고 있는 느티나무가 부산에 있다. 수령 1,300년으로 추정된다. 1978년 8월 12일 기장군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나무껍질은 조각조각 떨어져 나간 부분이 많다.

이 느티나무는 긴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킨 나무로 지역의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장안읍지'에 따르면 통일 신라 시대 원효(元曉)가 장안사 위쪽에 척판암을 지을 때 문무왕이 근처를 지나가다 심었다고 전한다. 또한 애장왕이 탄 가마가 여기서 쉬어 갔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느티나무는 하장안마을의 당산목이다. 상장안마을에 있던 할배나무는 고사하여 없어졌고, 하장안마을의 느티나무가 할매나무이다. 소원을 들어 주며 마을을 지켜 주는 신목(神木)이다.

이 느티나무 아래는 하장안마을의 '하장안할매당산' 제당이 있다. 이 느티나무 옆에는 당집도 지어져 있다. 마을 사람들이 해마다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매해 음력 정월 14일 밤에서 15일로 넘어가는 자정(12시)과 음력 6월 14일 밤에서 15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제를 올린다. 이 마을의 이장과 부녀회장이 제를 주도하고 있다.

이 느티나무는 수세를 보고 풍흉을 점치기도 한다. 나뭇잎이 먼저 나는 쪽 논에 풍년이 든다고 믿는 것이다. 새잎이 동쪽에서 먼저 나면 동쪽 들판 농사가 풍년이고, 서쪽이면 서쪽 농사가 풍년이라는 구전이다.

이 느티나무는 1999년 12월 28일 산림청에서 '밀레니엄나무'로 지정한 바 있다. 이 느티나무는 기장군 장안읍에서 장안사로 가는 장안로의 오른쪽 편에 위치하고 있다. 2011년에 데크를 설치하였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이 느티나무 밑에서 놀았던 아이들은 다 자라 이곳을 떠났다. 그러나 이 느티나무는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 앞으로도 이 느티나무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태그 | 부산시, 장안리, 밀레니엄나무, 당산목, 당산제, 신목, 느티나무, 보호수



회화나무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1244-5
35° 05.860′ N / 128° 59.481′ E

- 지정번호 : 2-9
- 지정연월일 : 1993.10.12
- 수고 : 20m
- 관리기관 : 부산시청
- 수령 : 600년
- 흉고둘레 : 6.5m

| 어떻게 살았을까?

샘터공원의 회화나무는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 제316호로 지정되었으나 안타깝게도 1993년 5월 '나무의 생육공간이 좁아서 보존 및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제되었다. 이 회화나무는 1993년 10월 12일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샘물과 인접하여 자라는 회화나무는 수령 60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줄기 밑동 1m 정도의 높이에서 큰 가지가 3갈래로 갈라져 자라고 있다. 가지가 갈라지는 부분은 공동(空洞, 물체 속에 아무것도 없이 빈 구멍) 피해가 있어 외과수술이 진행된 흔적이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185번길 48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槐亭洞). 회화나무의 한명 '괴목(槐木)'에서 괴정이라는 지명이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곳에는 회화나무 2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하나는 '팔정자(八亭子)나무'로 부르는 것(부산 사하구 괴정동 1247-24번지)이고, 다른 하나는 회화나무샘터공원에 있는 것이다.

샘터공원의 회화나무는 '통샘' 또는 '단물샘'으로 부르는 샘 뒤쪽에 자라고 있다. 이 샘물은 가뭄이 들어도 물이 줄지 않고 맑아 주민들의 식수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도로가 생기고 대형 건물이 속속 들어서면서 샘물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물대신 설치한 벽천과 빨래터의 물은 지하수를 올려 공급되고 있다.

이 회화나무는 마을의 안녕을 지켜 준다는 전설이 있어 봄과 가을 연 2회 동제를 지내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동민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 회화나무 아래에서 득남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회화나무에도 전설이 있는데, 임진왜란 당시 마을 사람들이 나무 아래에 모여 '왜군이 물러가게 해 달라'고 빌었다.

그런데 누군가의 밀고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왜군이 나무를 베기 위하여 마을로 들어왔다. 이때 여러 마을 사람들이 이를 막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 왜군은 죽은 사람들을 잘린 나무와 함께 그곳에 묻어 버렸다.

그 후 잘린 나무에서 여러 개의 가지가 새롭게 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가지의 수가 죽은 사람들의 수와 같은 것을 보고 놀라워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후부터 이 회화나무 아래의 우물을 떠서 음식을 만들어 제사를 올려 죽은 이들을 위로하였다.

현재 이 회화나무 주변은 마을 공동체의 여러 요소를 그대로 품어 있고, 역사와 테마가 살아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정비되었다. 2,230㎡의 넓은 공간의 '회화나무샘터공원'으로 거듭났다. 특히 회화나무에서 떨어진 종자를 발아시켜 후계목을 키우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태그 | 부산시, 괴정동, 샘터공원, 당산목, 신목, 천연기념물 해제, 회화나무, 보호수



느티나무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879
35° 56.720′ N / 128° 37.047′ E

- 지정번호 : 5-1
- 지정연월일 : 1982.10.30
- 수고 : 17m
- 관리기관 : 대구시청
- 수령 : 1,000년
- 흉고둘레 : 6.8m

| 어떻게 살았을까?

이곳은 2그루의 느티나무가 자라고 있다. 동쪽의 느티나무는 높이 17m, 흉고둘레 6.8m, 밑동둘레 7.9m 정도이다. 수령은 1,00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줄기 및 가지가 동쪽 9m, 서쪽 8.5m, 남쪽 10.5m, 북쪽 11m 정도로 퍼져 있다.
서쪽의 느티나무는 높이 12m, 흉고둘레 4.5m, 밑동둘레 5.7m 정도이다. 수령은 30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줄기 및 가지는 동쪽 3.5m, 서쪽 7m, 남쪽 6m, 북쪽 5.5m 정도로 벋었다. 서쪽의 느티나무는 2000년 9월 제14호 태풍 '사오마이'의 피해로 큰 가지가 부러진 상태이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대구의 숱한 나무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나무가 연경동에 있다. 대구 북구 동화천으로 흘러드는 연경천 인근에 자라는 천년수의 느티나무이다. 2그루의 느티나무가 6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동서로 마주 서 있다.

이 2그루의 느티나무는 넓은 공지에 서 있어서 잘 보호되고 있다.

예전에는 이 느티나무가 당산목이었다. 이곳에서 해마다 정월대보름에 당산제를 지냈다. 당산목의 이름은 태봉마을에서 동쪽편의 큰 느티나무를 '할배나무'라 불렀고, 서쪽편의 느티나무를 '할매나무'라고 불렀다. 이와 함께 내려오는 설화로는 남녀가 이곳 나무 아래에서 사랑을 맹세하면 영원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천년수의 이 느티나무는 복잡한 세상의 빠른 흐름 속에서 옛 일을 오롯이 간직하고 시간의 속도를 붙잡고 있다. 천년수가 위치한 연경동의 지명 설화도 흥미롭다. 연경동은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 군대와 싸우기 위하여 이곳을 지나다가 새벽에 어디서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들려와 조심스럽게 지나갔다고 하여 후세 사람들이 연경(硏經)이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다.

연경동이 속한 무태조야동에 대한 설화도 왕건과 연관이 있다. 왕건이 이곳을 가다가 새벽 일찍이 공자 사당에 제를 올리는 모습을 보고 "도덕을 잘 숭상하는 동네로구나"라고 하였다. 지금의 무태조야동의 북서쪽 안골의 속명인 도덕(道德)은 여기서 유래하였다.

대구에서 유일하게 1,000년 이상의 수령을 가진 나무. 이 나무가 위치한 연경동과 그 주변을 둘러싼 다양한 설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귀중한 문화유산이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현재 거의 방치한 상태의 느티나무가 앞으로 가족과 연인들의 사진 촬영지, 영화 촬영지, 행사 개최지 등으로 각광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역사탐방길'을 조성하여 관광지화하는 방안도 희망하고 있다.

태그 | 대구시, 연경동, 왕건, 설화, 천년수, 당산목, 설화, 느티나무, 보호수





은행나무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로37길 29-12
35° 54.829′ N / 128° 32.355′ E

- 지정번호 : 북구5-4
- 지정연월일 : 1982.10.30
- 수고 : 20m
- 관리기관 : 대구시청
- 수령 : 800년
- 흉고둘레 : 6.3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은행나무가 있는 곳의 지명은 매천동이다. 지금은 칠곡이 아니라 대구에 속하는 곳이다. 마을 이름은 광해군 때 아헌 송일기가 지금의 이곳으로 내려와 '매양서원'을 세우고 후진을 양성하였다는 데서 '매남'이라는 이름이 생겼고, 앞의 하천인 팔거천과 뒤쪽 소나무로 둘러싸였다는 데서 '송천'의 지명이 유래되었다. 8.15광복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매남과 송천을 합하여 '매천'으로 부르게 되었다.
매천동의 은행나무는 수령 800년 이상 살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정자목은 집 근처나 길가에 있는 큰 나무이다. 정자를 지어놓고 그늘과 의지할 수 있게 심어놓은 나무이다.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하여 그 그늘 밑에서 사람들이 모여 놀거나 쉬기에 좋은 나무이다. 마을에서 보이는 나무 중에 가장 크고 우람하며 오래된 나무가 정자목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당산목은 마을을 지켜 주는 역할을 한다. '애머니즘(Amenism)' 사상과 관련이 있다. 애머니즘은 모든 사물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사상이다. 특히 고목에 이런 신성한 영혼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아름드리의 나무를 동네에서 따로 관리하고 소원을 빌기도 하며, 명절에는 이 나무 아래에서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이러한 정자목 또는 당산목은 보통 마을의 입구에 있거나 어디서든 잘 보이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고목이 그 마을을 대표하거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구 북구 매천동의 은행나무는 마을 골목길을 굽이굽이 돌아가서야 만날 수 있다. 물론 이 은행나무는 지금처럼 인가가 들어서기 전의 시골 마을이었을 때는 훤히 보이는 곳에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은행나무는 매천초등학교 뒤쪽 골목 몇 개를 지난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이 은행나무는 가까이 가기 전까지 골목길에 가려 참모습을 보여주지 않지만 막상 가까이 가면 그 웅장함에 압도된다. 마을 중앙의 약간 높은 곳에 자라고 있어 마을을 지켜주고 있는 듯하다.

이 은행나무에 얽힌 이야기가 전한다. 해마다 음력 정월에서 삼월 사이에 몸집이 작고 입이 긴 새가 이 은행나무를 찾아왔다. 그리고 그 새는 썩은 둥지를 부리로 콕콕 쪼았다. 그러면 '쪼르릉 쪼르릉' 소리가 났다. 이 소리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데, 이 소리가 나는 해는 풍년이 들고, 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해는 흉년이 드는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새가 찾아오지 않는단다.

예전에는 이 은행나무 아래에서 제를 지내기도 하였고, 소원을 빌거나 잘못을 빌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요즈음은 예전처럼 제를 지내거나 소원 빌기를 하는 사람이 줄었다.





태그 | 대구시, 매천동, 정자목, 새, 풍년, 은행나무, 보호수



회화나무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276-43
35° 33.253′ N / 129° 18.917′ E

- 지정번호 : 2009-11
- 지정연월일 : 2009.12.7
- 수고 : 11m
- 관리기관 : 울산시청
- 수령 : 700년
- 흉고둘레 : 4.7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회화나무는 수령 700년 이상이다. 이곳의 주민들은 수령, 높이(수고) 등 보호수의 이력이 바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이를 두고 떨어진 남쪽의 것은 40도 가량 기울어 자라고 있다. 아래쪽은 외과수술을 한 흔적이 커다랗게 남아 있다.
줄기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간 가지는 남쪽의 집 옥상까지 뒤덮었다. 북쪽의 것은 10도 가량 북쪽으로 기울어 자라고 있다.
높이 3m 지점에서 4개의 큰 가지가 벋어 있다. 도심 인가의 틈 사이에 있으나 잘 자라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성황단(城隍壇)은 성황당(城隍堂, 서낭당)과 비슷한 뜻이 있다. 그러나 성황단은 한 고을의 수호신을 모신다는 점에서 마을의 수호신을 모신 성황당보다는 그 품격이 높다. 울산시의 성황단은 중구 북정동과 옥교동, 성남동, 교동 일원에 걸쳐 있는 울산읍성에 있었다. 성황단은 조선시대 후기에 당산목 회화나무가 있는 우정동으로 옮겨졌다.

울산시의 수호신 계변천신을 모신 성황단이 우정동으로 옮긴 후 성황당으로 그 품격이 낮춰진 이유와 시기는 알 수가 없다. 그런 성스러운 곳이기에 길상목(吉祥木) 회화나무가 자라고 있다. 회화나무는 서원이나 명문 집안의 정원에서 볼 수 있는 선비들의 학자 나무이다. 옛날에는 양반이 이사를 갈 때에는 쉬나무와 회화나무의 종자는 꼭 챙겨갔다. 회화나무는 자신이 고고한 학자임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심었다.

사람들은 회화나무를 집뜰에 심으면 후손 중에서 유명한 학자가 태어나는 것으로 알았다. 회화나무가 3그루가 있으면 대길(大吉)한 일만 생긴다. 선조들은 회화나무를 아주 상서로운 나무라고 해서 최고의 길상목으로 쳤다. 회화나무는 출세의 나무로도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에는 학자나 권세 있는 집뜰에만 심었다.

평민들은 회화나무를 집뜰에 심지 않았지만 신목(神木)처럼 여겼다. 예컨대 농사의 풍흉을 알려주는 신통한 나무이다. 그것은 회화나무의 꽃이 필 때 위에서 먼저 피면 그 해 농사가 풍년이지만 아래에서 먼저 피면 흉년이 든다고 믿었다.

우정동의 회화나무는 마을 안길보다 높은 곳에 비스듬히 서 있다. 축대를 쌓은 뒤에 그 위에 철재 울타리를 세워놓았다. 이 회화나무는 부지의 남쪽에 치우쳐 있다. 이 회화나무는 한 그루인데도 마치 2그루처럼 보인다. 가운데 부분이 썩어 오래 전에 외과수술을 한 바람에 두 부분으로 나뉜 탓이다.

이 회화나무 옆에 당집이 있고,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울타리의 담장 바깥은 성황당과 함께 이 회화나무의 유래에 대한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태그 | 울산시, 우정동, 성황단, 성황당, 당산목, 신목, 학자수, 회화나무, 보호수



느티나무

경북 경주시 내남면 부지1리 714
35° 46.019′ N / 129° 11.669′ E

- 지정번호 : 11-26
- 지정연월일 : 1982.10.29
- 수고 : 20m
- 관리기관 : 경북도청
- 수령 : 1,000년
- 흉고둘레 : 6.1m

| 어떻게 살았을까?

부지리 마을의 중앙에는 작은 하천이 인접한 '천면쉼터'가 있다. 이 천면쉼터에 고목의 느티나무가 있다. 생육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수형도 아름답다. 천년의 세월을 살고 있는 나무이다.
이 느티나무에는 늠름한 기상과 상서로운 기운이 넘쳤다.
이 느티나무는 수령이 1,000년 이상이다. 수형은 줄기가 사방으로 잘 퍼져서 아름답다. 고목의 보호수이므로 몇 년에 한 번씩 영양주사를 맞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경주시 내남면에 부지리가 있다. 예전에 서쪽의 산이 마치 오리가 산 앞으로 흐르는 내(하천)를 굽어보고 있는 형상이라 하여 이름이 붙여진 '내면부락(內面鳧落)' 또는 '천면부락(川面鳧落)'이 있었는데, 부지리는 내면부락의 '부'자와 와지리의 '지'자를 합하여 만든 이름에서 유래한다. 이 마을에 고목의 느티나무가 자란다.

이 느티나무는 경주최씨 시조인 고운 최치원의 5세손인 최제안 정승이 마을의 표목으로 심었다. 특이한 점은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목 또는 상징목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 느티나무에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신목이지만 동제를 지내지 않는다.

동제는 예로부터 지내지 않았다고 전해져서 주민들도 이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지만 최씨 집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동제를 지내지 않는 진짜 이유는 동제를 지내면 최씨 집안이 이 느티나무에 의지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란다. 오히려 동제를 지내지 않으면 이 느티나무가 최씨 집안을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느티나무가 점잖다고 말한다. 다른 마을에서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당산목이 있을 경우 동제를 지내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지만 이 느티나무는 동제를 지내지 않아도 그런 일이 절대 없기 때문이란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이 느티나무가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대구, 부산, 울산 등지의 외지인들도 이 느티나무에게 소원을 빌고 대접을 하고 가기도 한다.

예로부터 전승하는 이야기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이 느티나무를 목재로 쓰기 위하여 베어 가려고 하였을 때에 부지리 남녀노소가 합심하여 베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길게 벋은 한 가지만 잘라 갔다는 것이다.

가지를 잘라간 또 다른 이야기는 이 느티나무의 생육을 살피는 병해충 관리자가 예전에 벼락을 맞은 한 가지를 몰래 베어갔다고 구전되고 있다.







태그 | 경주시, 부지리, 경주최씨, 당산목, 동제, 느티나무, 보호수



은행나무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 394-2
36° 36.708′ N / 129° 04.188′ E

- 지정번호 : 11-16-3
- 지정연월일 : 1982.11.10
- 수고 : 20m
- 관리기관 : 경북도청
- 수령 : 430년
- 흉고둘레 : 6m

| 어떻게 살았을까?

연당리의 서석지에 고목의 은행나무가 자란다. 보호수이다. 아마을에는 이 은행나무 이외에도 청기천 주변에 수령 250여 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데, 매년 동제를 올리는 당산목이다. 그리고 이 느티나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돌부처가 금줄을 두르고 앉아 있다. 연당리 석불좌상이다. 몸은 깨어지고 얼굴은 문드러졌지만 3단의 대좌와 연화문과 구름무늬가 새겨진 광배를 모두 갖추고 있다. 오른손은 땅을 가리키는 항마촉지인, 왼손은 약 그릇을 들고 있는 약사여래불로 통일신라 말기의 것이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조선시대의 조그마한 연못이 영양군에 있다. 조선 광해군 때 성균관 진사를 지낸 석문 정영방(1577~1650)이 조성한 연못이다. 정영방은 성균관 진사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고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에 은거하였다. 그는 마을 들입에 솟은 선바위와 남이포를 석문이라 이름 짓고 외원이라 하였다.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인 터에 정자와 연못으로 작은 정원을 꾸미고 내원이라 하였다.

정영방이 조성한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의 서석지(瑞石池)는 담양의 소쇄원, 완도 보길도의 세연정과 더불어 조선시대 3대 민가 정원으로 손꼽힌다. 아담한 토담에 둘러싸인 서석지는 연꽃을 감상하는 정자의 경정(敬亭)을 비롯하여 서재였던 주일재(主一齋) 등이 있다. 정원의 공간을 둘러싼 담은 낮다. 네모난 연못은 마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평지에 연못을 파서 물을 들이고 돌을 놓고 연꽃을 심었다. 북쪽에는 네모난 단을 내어 매실(매화), 국화, 소나무, 대나무를 심고 사우단(四友壇)이라 하였다.

서석지는 못 가운데 기이한 형태의 돌들이 많은데서 이름이 지어졌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이 돌들이 본래부터 이 자리에 있던 것들이라는 점이다. 이런 서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충분히 이용하여 못을 꾸몄던 것이다. 20여 개의 돌들이 물에 잠기거나 드러난 채로 있다. 돌이 놓인 모양이 너무도 기이하여 믿기 어려울 만큼의 오묘한 풍경을 나타내고 있다.

서석지의 담 모퉁이에는 수령 430년 이상의 커다란 은행나무가 자라고 있다. 서석지가 400여 년 전에 만들어질 때 이미 몇 십 년 지난 은행나무를 심었다고 할 수 있다. 고목의 암나무이다. 이 은행나무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수나무의 짝이라는 구전이 있다. 또한 이 은행나무는 정영방 부인이 작은 묘목을 가져와 심은 것으로 전한다.

이 은행나무는 연당리에 들어섰을 때에 높게 자라고 있으므로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서석지의 많은 면적을 차지할 정도의 거대한 은행나무는 서석지와 함께 오랫동안 살고 있다. 가지는 담장 안쪽의 모퉁이와 낮은 담장을 넘어 마을길의 위까지 넓게 덮고 있다.

태그 | 영양군, 연당리, 정영방, 서석지, 토담, 은행나무, 보호수



느티나무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종가길 62
36° 32.363′ N / 128° 31.053′ E

- 지정번호 : 11-14-5-4
- 지정연월일 : 1982.10.26
- 수고 : 18m
- 관리기관 : 경북도청
- 수령 : 600년
- 흉고둘레 : 11m, 7.7m, 2.3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느티나무는 하회마을에 있는 많은 나무들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또한 마을을 대표하는 나무이다. 풍수 지리적으로 이 나무는 마을의 혈(穴)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데, 정월대보름이면 이곳에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동제(洞祭)를 올린다.

이 느티나무는 밑에서부터 왕관 모양으로 줄기가 갈라져 나왔다. 가운데는 넓고 굵다.

마을 사람들이 신목으로 부르는 게 이해가 될 정도로 경외감이 드는 고목이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안동 하회마을은 2010년 유네스코가 경주 양동마을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곳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전통 유산이다. 하회마을은 하회탈(병산탈 2개, 하회탈 11개, 국보 제121호)과 징비록(懲毖錄, 류성룡이 쓴 임진왜란의 기록, 국보 제132호)을 비롯하여 유무형 문화재가 10개가 넘는다. 하회마을 자체가 중요민속자료 제122호이다.

하회마을은 종종 이름이 널리 알려진 외국인이나 국빈의 방문으로 화제가 되는 곳이다. 1981년 프랑스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하회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1999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하회마을에서 73번째 생일을 맞이한 바 있다.

하회마을은 풍산류씨가 600여 년간 대대로 살아온 민속촌이다. 그곳은 정겨운 이야기와 다채로운 풍경이 담겨 있다. 그 중 주목되는 것 중의 하나는 한 그루의 느티나무인 삼신당(三神堂)이다. 수령이 600년을 넘은 느티나무이다. 류종혜 공이 이곳에 처음으로 터를 내릴 때에 심은 것으로 알려진 나무이다.

이 느티나무는 하회마을의 중심에 있는 고목이다. 하회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가야 만날 수 있다.

이 나무는 삼신당 신목(神木)으로 불린다. 삼신할머니는 아기를 점지해주고 출산과 성장을 돕는 우리 전통의 조상신이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들이 애달프게 치성을 드리는 모습을 이 느티나무는 얼마나 많이 지켜보았을 것인가. 언제나 나무 둘레에는 방문객의 소원을 적은 흰 종이가 빼곡히 매달려 있다. 1년에 한 번씩 날을 받아 소원 쪽지를 열어보고 태워 연기를 올려 보낸다. 소원은 건강, 부, 성적(고시, 입시) 순이다.

이곳의 삼신당은 마을에 있는 3사당 중 하나이다. 정월대보름 밤에 마을의 안녕을 비는 동제(洞祭)를 상당과



중당에서 지내고, 다음 날 아침에는 이 느티나무에서 제를 올린다. 그리고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시작된다. 삼신당 느티나무가 있는 하회마을은 수많은 외지인이 들락거리고 있다.

태그 | 안동시, 하회마을, 풍산류씨, 삼신당, 소원 쪽지, 느티나무, 보호수



이팝나무

경북 청도군 풍각면 덕양리 1803
35° 37.095′ N / 128° 37.152′ E

- 지정번호 : 11-16-01
- 지정연월일 : 2011.8.9
- 수고 : 9m
- 관리기관 : 경북도청
- 수령 : 450년
- 흉고둘레 : 4m

| 어떻게 살았을까?

이곳의 이팝나무는 수령이 450년 이상이다. 이 이팝나무는 수형이 아름답고 꽃이 필 때에 만발하기 때문에 좋은 경관을 제공하고 있다. 수관은 사방으로 15m 정도의 직경으로 퍼져 있다.
전체적으로 둥그스름하다. 이 이팝나무는 줄기 높이 3.5m 지점에서 3갈라져 있고, 일부 가지를 정리한 상태지만 보기에 좋은 수형을 유지하고 있다. 가지 일부는 잘려 나가 외과 수술을 받았다.
줄기에 큰 공동이 있으나 이를 충전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자라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하얀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고목의 나무가 이팝나무이다. 이런 이팝나무가 청도군 풍각면 덕양리의 송월마을 앞 도로변에 자란다.

이 이팝나무는 벼락을 맞은 중심부에 공동(빈 공간)이 생겼는데, 원줄기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나 비어 있다. 공동에는 썩기 쉬운 환경이고 점점 썩고 있는 상황이므로 충전이 필요하다. 1980년대에 벼락을 맞은 적이 있고 인위적인 불로 약간 탄 일이 있어 빈 공간이 더욱 넓어졌다.

공동을 충전하지 않은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 충전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 느티나무가 충전을 하더라도 큰 이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형 그대로 보존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팝나무는 전체적인 생육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팝나무를 당산목으로 잘 숭배해야 마을에 액운이 없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흘 13시에 동제를 지낸다. 영험한 나무로 생각하고 있다. 6·25한국전쟁 당시에 마을의 전사자가 한 명도 없었던 사실도 이 이팝나무의 영험 때문으로 여기고 있다.

지금도 이팝나무에 치성을 잘 드리면 마을에 좋은 일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 이팝나무는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 역할도 하고 있다. 당산목의 역할과 함께 정자목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을의 경관 형성과 주민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팝나무 앞에 표지석이 있다. 관리는 덕양리 이장이 하고 있다.

옛날에 덕양리는 3성씨(단양우씨, 달성서씨, 밀양박씨) 집안이 모두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3곳의 장소에 3종류의 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가 구전하고 있다.

이 이팝나무가 있는 곳과 인접하여 꽤나 오래 살고 있는 듯이 자라고 있는 팽나무, 회화나무가 있다. 다른 곳은 팽나무, 굴참나무, 음나무의 3종류가 오래도록 자라고 있으며, 또 다른 곳은 느티나무, 모과나무, 팽나무를 심었으나 일부가 고사하였다.







태그 | 청도군, 송월마을, 원형 보존, 당산목, 정자목, 이팝나무, 보호수



은행나무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98
36° 55.641′ N / 128° 34.679′ E

- 지정번호 : 11-68
- 지정연월일 : 1982.10.26
- 수고 : 21m
- 관리기관 : 경북도청
- 수령 : 1,100년
- 흉고둘레 : 5.6m, 4.1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은행나무는 1,100년 이상을 살고 있다. 커다란 줄기는 2개이다. 이 은행나무는 줄기가 2그루의 은행나무처럼 1m 이상의 사이를 두고 떨어져 자라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2개의 은행나무가 아니라 하나의 은행나무가 역사적 사건을 함께 하면서 가운데의 기둥 줄기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은행나무는 그루터기에서 어린 나무가 자라고 있다. 줄기의 썩은 부분 일부가 치료되어 잘 자라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영주시 순흥면의 금성단(錦城壇) 서북쪽에 '충신수'라 부르는 고목의 나무가 있다. 은행나무이다. 기록으로 수령이 1,100년을 넘긴 나무이다.

이 은행나무가 유명한 것은 1457년(세조 3년) 정축지변(丁丑之變)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 현장을 지켜보며 순흥도호부(順興都護府)와 함께 죽었다가 200여 년이 지나 순흥도호부가 회복되자 다시 새싹을 내밀며 살아났다는 구전 때문이다. 즉 1457년 순흥도호부가 폐부(廢府)되었을 때에 이 은행나무도 줄기 밑동만 남고 위쪽 가지가 대부분 불에 타서 죽었다가 1643년(인조 21년) 새순이 돋아 가지가 자라기 시작하더니 1683년(숙종 9년) 순흥도호부가 다시 설치되자 잎가지가 무성해졌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1757년(영조 33년) 부사 조덕상(趙德常)이 쓴 금성단의 '흥주고부은행수기(興州故府銀杏樹記)'에도 어느 노인이 지나가다가 이르기를 '흥주(興州, 지금의 순흥)가 폐해지면 은행나무가 죽고, 은행나무가 살면 순흥이 회복될 것이다'는 말을 남겼다는 내용이 있다.

금성단과 더불어 순흥면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증언하며 우뚝 서 있는 이 은행나무는 순흥도호부와 흥망성쇠를 처음부터 함께한 신목(神木)이다.

금성단은 이 은행나무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정축지변 당시에 관리들이 마을의 상징목이며 금성대군 유배지의 은행나무에 불을 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은행나무는 줄기 2개가 떨어져 있다. 구전을 종합하면 원래 한 줄기가 밑동에서 3개의 줄기로 갈라져 자라다가 가운데 줄기를 잃었다는 것이다. 금성대군이 이곳에서 참화를 당했을 때에 이 은행나무도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은행나무는 삼척의 늑구리 은행나무와 서로 부부관계라고 전하고 있다. 부부나무라는 두 곳의 은행나무가 떨어진 거리는 직선으로 60 km 정도이다.





예전에는 마을에서 고유제라는 이름으로 이 은행나무 밑에서 매년 동제를 지냈다. 요즈음은 마을 사정에 따라 동제를 지내지 않을 때도 있단다.

태그 | 영주시, 순흥면, 정축지변, 순흥도호부, 금성단, 신목, 은행나무, 보호수



향나무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34
37° 29.083′ N / 130° 54.525′ E

- 지정번호 : 11-74
- 지정연월일 : 1998.10.26
- 수고 : 4m
- 관리기관 : 경북도청
- 수령 : 2,000년
- 흉고둘레 : 2m

| 어떻게 살았을까?

울릉도 도동의 향나무는 도저히 나무들이 자랄 것 같지 않은 절벽에 뿌리를 내리고 도도하게 그 자태를 뽐내고 있다. 본 글에서 사진은 보호수 인근의 향나무도 함께 실었다.
이 향나무는 여객선터미널을 마주하고 있어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상징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울릉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향나무 중 수령이 제일 많은 노거수이므로 학술적 및 자연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등이 있다. 더 이상의 태풍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저히 보호 관리하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공원이나 운동장에 심어진 향나무와 달리 기암절벽에 자라는 향나무가 있다. 울릉도 도동항에서 오른쪽 행남봉으로 가는 길의 삼형제봉 끝쪽 절벽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향나무가 서 있다. 곧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울릉도 여객선터미널 뒤쪽의 능선을 바라보면 군데군데에 자라는 향나무를 볼 수 있다. 사람들의 접근이 매우 어려운 지형에 있다. 이곳의 향나무는 일제강점기에 울릉도 곳곳의 향나무를 베어 가구, 목공예품으로 사용할 때도 절벽 사이에 있어 살아남은 모진 목숨이다.

이 향나무는 수령이 정확하지 않다. 울릉군발전연구소가 수령 5,000~6,000년으로 추정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수령 2,000년으로 여기고 있다. 이 향나무는 무려 2,000년 이상이나 한 자리에서 울릉도의 도동항을 지켜보고 있다. 생육에 매우 부적합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 천 년을 견디며 버티어 오고 있다. 제반 입지적 조건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여 기형으로 자라고 있다.

이 향나무는 1985년 태풍 브랜다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때 그 바람이 도동의 향나무에도 어김없이 몰아쳐 오른쪽 몸통 일부를 부러뜨렸다. 그 가지는 경매로 팔린 바 있다. 독도박물관 입구 기념품 가게에 가면 용이 승천하는 모양으로 조각, 전시되어 있다.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오르는 모습이다.

태풍에 한쪽 팔을 잃은 도동의 향나무는 아주 위태위태하게 보여서 뿌리가 드러난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바르고 나무의 몸통 줄기는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쇠밧줄로 고정하여 놓았다.

울릉도의 향나무는 '울향'이라 한다. 울향 중에서도 바위를 비집고 자라고 있다고 하여 '석향'이라 한다. 석향은 맵지 않고 순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향으로 꼽고 있다. 석향은 사람의 피부병을 고치며, 정신을 맑게 하고, 뭔가에 집중하게 한다. 이곳의 향나무 제품은 쉽게 썩지 않아 최고의 골동품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태그 | 울릉도, 도동, 절벽, 기형목, 최고령, 노거수, 향나무, 보호수



후박나무

경북 울릉군 서면 남양리 143-1
37° 27.792′ N / 130° 51.356′ E

- 지정번호 : 11-75
- 지정연월일 : 1982.10.26
- 수고 : 19m
- 관리기관 : 경북도청
- 수령 : 550년
- 흉고둘레 : 5.2m

| 어떻게 살았을까?

울릉도에서 이 후박나무가 자라는 곳은 급경사의 농경지가 접하여 있고 자연석 축대와 포장된 마을길이 계곡을 따라 이어졌다. 마을길은 이 후박나무를 사이에 두고 2갈래져 있다.
이 후박나무는 포장도로 때문에 생육공간이 좁으며 뿌리가 노출되는 등 입지조건이 불량한 곳에 자라고 있다.
뿌리목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시멘트로 채워진 부분이다.
그러나 수세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수령 550년 이상이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울릉도의 남양리는 서면사무소 소재지이다. 울릉도에서 겨울의 기온이 가장 따뜻한 남단의 지대라 하여 남양동의 지명이 붙여졌다. 골짜기가 많다는 골계, 산으로 둘러있는 입구의 큰 바위가 문의 역할을 한다는 돌문골, 닥나무로 한지를 만들던 곳이라는 지통골, 지대가 높고 해변이 길어 가물가물 보인다는 가물개 등의 자연부락이 있다.

또한 남양리는 골짜기가 통처럼 생겼으며, 거북이 모양의 암석이 통속으로 기어들어 가는 형상이라 하는 통구미의 자연부락이 있다.

이 마을의 민가를 사이에 두고 포장된 마을길을 따라 조금 오르다 보면 마을을 벗어나는 마지막 민가의 마당 옆에 고목의 후박나무가 서 있다.

이 후박나무가 있는 곳은 마을 수호신을 모시는 당집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음력 3월 3일에 이 후박나무 당집의 제당 앞에 풍성하게 제물을 차려 놓고 풍어 및 어민들의 안전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제사를 올리고 있다.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므로 동네 주민들이 모두 신성시하여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후박나무는 옆집의 바람막이 역할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곳의 당집은 통구미마을의 동제당이며, 마을회관과 경로당 근처에 남서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면 3.2m, 측면 2.8m 규모의 시멘트 블록 건물이며, 당집 뒤에는 후박나무 고목이 있다. 내부 뒷벽에 길이 170cm, 너비 40cm의 제단을 설치하였고, 제단 위에 '본부산령지위(本府山靈之位)'라고 적힌 신위를 모셨다. 예전에는 음력 정월대보름에 제를 올렸으나 현재는 중단되었고, 삼짇날(음력 3월3일)에 동제를 지내고 있다.

후박나무는 일부 위장병이나 천식을 치료하는 한약재로 이용하는데, 울릉도에서는 후박나무의 진액과 열매로 엿을 만들었으며, 그런 엿을 '후박엿'이라 불렀다. 하지만 후박엿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발음의 혼동으로 '호박엿'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지금 울릉도에서는 후박나무의 진액이나 열매를 넣고 엿을 만드는 것보다 재배하는 호박으로 엿을 만드는 곳이 늘어났다.

태그 | 울릉도, 통구미마을, 당산목, 후박엿(호박엿), 후박나무, 보호수



은행나무

경북 성주군 초전면 봉정리 536
35° 59.972′ N / 128° 15.630′ E

- 지정번호 : 11-3-44
- 지정연월일 : 1982.10.26
- 수고 : 17m
- 관리기관 : 경북도청
- 수령 : 700년
- 흉고둘레 : 5.9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은행나무는 줄기 밑쪽에 커다란 구멍이 있었던 흔적이 있다. 어린 아이들이 그 사이를 오가며 놀이를 할 정도의 커다란 공동이었다. 지금은 충전처리 후 왕성한 생육으로 그 구멍이 많이 메워졌다. 아래로 처진 가지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도록 쇠파이프로 부축이 되어 있다. 보호를 받고 있어서인지 왕성한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다. 어느 해는 너무나 많이 달린 열매를 이기지 못하고 큰 가지 하나가 부러지기도 하였다. 당시에 이 가지에서 따낸 열매가 3가마이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성주군에 전설이 깃든 고목이 있다. 초전면 봉정리의 무징이마을에 자라는 은행나무이다. 수령은 700년 이상이지만 800년으로 기록한 경우가 많다. 성주군지에는 고려 인종(1122~1146) 또는 고려 희종(1204~1211)부터 자란 나무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주변에는 봉두산 기슭에 나씨 집성촌 있었는데, 그곳의 주민들은 이 은행나무를 마주목(馬駐木, 말을 매는 나무)이라 불렀다.

이 은행나무는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몽골의 침입 때에도 견디었고,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동학혁명 등의 난리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은행나무를 당산목(성황목)으로 여겨 그 아래에서 동제를 모셨다. 지금은 매년 마을의 상황에 따라 제를 지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은행나무가 영험을 지녔기에 가까운 곳에 다른 수나무가 없어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으로 믿었다. 지금도 많은 열매를 다는 까닭에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마을 기금으로 쓴다. 주민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이 은행나무에서 수확되는 열매는 매년 15가마 이상이다.

마을 사람들이 말을 빌리면, 이 은행나무는 영험하다. 이 은행나무에 올라가 놀다가 잘못하여 떨어져도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 오래된 가지가 부러질 때는 그 아래에 있던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미리 꺾어지는 소리를 크게 내어 피할 시간을 주는 신령한 나무이다.

이 은행나무가 있는 곳은 성주군 초전면소재지에서 2km 김천방향으로 진행하면 왼쪽에 커다란 바위덩어리로 제작된 마을 표지석이 보이는데 '봉정리'라 새겨져 있다. 그 길을 따라 가면 된다.

봉정리와 무징이의 관계는 그 표지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봉정리라는 커다란 글자 아래에 조그맣게 '무징이'라는 글자가 표기되어 있다. 무징이는 마을에 냉천(冷泉)과 큰 정자가 있어 수정(水亭)이라 하였으며, 무징이는 수정의 한글 표기이다.





태그 | 성주군, 무징이마을, 풍치목, 당산목, 신목, 은행나무, 보호수



왕버들

경북 구미시 장천면 금산리 626
36° 09.599′ N / 128° 31.041′ E

- 지정번호 : 2002-2
- 지정연월일 : 2002.3.21
- 수고 : 15m
- 관리기관 : 경북도청
- 수령 : 500년
- 흉고둘레 : 5.4m

| 어떻게 살았을까?

구미시 금산리 왕버들은 높이에 비하여 수관(나무갓)이 넓게 발달하였다. 즉 줄기 및 가지가 옆으로 퍼져 있어 수관이 넓게 퍼졌다. 마을 입구의 마을길과 밭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왕버들은 고목으로서 보존 가치가 높아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지금은 동신목의 역할과 함께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으나 정자 등의 휴식터는 이 왕버들과 약간 떨어진 길목에 시설되어 있다.
500년 이상을 살고 있는 고목이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주로 농촌의 시골 마을에서 행하는 마을제사 중에 꽤나 잘 알려진 동신목(洞神木)의 숯골 동제(洞祭)가 있다. 어느 지역의 의례인지를 알아보았더니 구미시 장천면 금산리에서 지내는 마을제사이었다.

금산리는 자연마을로서 남실, 바깥마, 숯골 등이 있다. 남실은 금산리에서 가장 크고 사람들이 생활에 여유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며, 바깥마는 숯골 북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숯골은 뒷산에 숯을 구웠던 굴이 있다는 지명유래를 지닌 곳이다.

그러니까 숯골은 금산리의 한 자연마을이다. 숯골은 금산리의 남실마을 서쪽에 있다. 숯골 동제는 숯골마을에서 지내는 의례행사이다.

이 제사의 동신목은 마을 어귀에 자라고 있는 왕버들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금산리 보호수 및 동신목 기록은 모두 '떡버들'로 표기되어 있고, 그 보호수의 설명도 떡버들이다. 실제 금산리에 자라는 보호수 또는 동신목은 왕버들로 조사되었기에 여기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떡버들 대신 왕버들로 기록한다.

숯골 동제는 음력 7월 7일에 오전 11시에 마을 공동으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지내고 있다. 이 동제는 마을에 있는 왕버들을 '골매기 서낭님' 또는 '골매기 할매'로 모시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이 마을 제사를 '동사' 또는 '동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고려시대부터 숯골마을에 처음 들어온 성씨는 홍씨, 황씨, 박씨 순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마을의 당산목 왕버들이 수령 500년이므로 마을에 처음 정착한 홍씨가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금산리의 숯골 동제는 원래 1월 15일 자정에 지냈으나 오래 전에 제관이 없어 중단된 적이 있었다. 그 후 2000년대에 마을 주민들이 동제를 다시 지내기로 하면서 음력 7월 7일 오전 11시로 바꾸었으며, 제관 1명이 한 번 잔을 올리는 것으로 간소화하였다.

이 왕버들은 출산의 소원 빌기를 위하여 찾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 왕버들에 기도하여 득남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태그 | 구미시, 숯골마을, 동제, 동신목, 당산목, 떡버들, 왕버들, 보호수



팽나무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367-1
36° 48.118′ N / 129° 27.156′ E

- 지정번호 : 11-73
- 지정연월일 : 1982.10.26
- 수고 : 15m
- 관리기관 : 경북도청
- 수령 : 500년
- 흉고둘레 : 4.1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팽나무는 노거수로서 1982년 10월 26일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신지동마을 세터 옆의 국도변에서 500년 이상을 살고 있으나 지금도 생육이 양호하다.

수형은 위쪽이 편평할 정도로 퍼져 있고, 가지가 국도의 길가로 뻗어 있다. 이 팽나무 곁에 당집(성황당)이 있다.

한편 도로 바로 옆에 자라고 있어 주차 공간이 없다.

관상을 위한 불편을 견뎌야 한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울진군 기성면의 7번국도를 가다보면 도로와 인접하여 자라고 있는 커다란 고목을 볼 수 있다. 척산리의 신지동마을 팽나무이다.

이 팽나무는 마을의 중요한 동신목이며 당산목이다. 지금은 이 팽나무 아래에서 '자산마을 동제'라 하여 제법 의례절차를 갖춘 마을 제사를 지내고 있다. 매년 봄과 가을에 두 번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 팽나무를 동신목으로 하는 동제는 300여 년 전 척산리 음곡동마을에 입향한 황씨, 남씨 두 씨족이 터전을 잡은 후 성황당을 짓고 매년 정월대보름날에 마을의 안녕을 빌면서 제를 지낸 것이 시작이다.

자산마을 동제는 마을의 풍년과 평화를 위하여 지내는 마을 제사이다. 척산리 자산마을은 예로부터 순흥안씨의 집성촌이다. 이곳의 동제는 과거부터 순흥안씨 문중이 주관하여 왔으며, 이 문중의 일로 귀속되어 치러졌다. 그러나 제를 지낼 때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준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공동으로 해결하여 결속력을 다진다.

자산마을의 당집(제당)인 동신당을 '골맥이당'이라고 한다. 당집(제당)은 7번국도를 중심으로 척산리 자산마을과 기성리가 마주보고 있으며, 기성리 쪽에 좀 더 가깝다. 슬레이트 지붕에 시멘트 벽면의 단칸짜리로 지어졌으며, 멀리서도 제당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잡목이 세워져 있다. 내부에는 할매신과 할배신의 신위 두 기가 모셔져 있다.

지리적으로 마주보고 있는 이곳에서는 제를 지내는 시간도 유사한데, 과거에는 척산리 자산마을에서 제를 올릴 때에 건너 기성리에서도 제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질병이나 고난을 당할 때에 당산목에게 빌면 효험이 있다고 믿고 있다. 당산목의 팽나무 앞에는 12개의 작은 바윗돌이 있는데, 이 돌들은 척산리 팽나무를 무척 좋아한 한 장수가 놀기 위하여 공깃돌 12개를 집어다가 던져 놓은 것이다.

또한 구전에 의하면 봄에 이 팽나무의 나뭇잎이 일시에 싹이 트면 모내기를 일시에 할 수 있고, 나뭇잎이 드문드문 나면 가뭄이 들어 모내기를 한 번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태그 | 울진군, 척산리, 자산마을, 동제, 당산목, 팽나무, 보호수



느티나무

경북 포항시 신광면 마북리 91-1
36° 11.066′ N / 129° 15.271′ E

- 지정번호 : 11-15-1
- 지정연월일 : 1982.10.29
- 수고 : 16m
- 관리기관 : 경북도청
- 수령 : 700년
- 흉고둘레 : 6.9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느티나무는 수령 700년 이상이다. 포항시에서 가장 오래살고 있는 최고령 나무이다. 1982년 경북 보호수 제1호로 지정된 나무이다. 이 느티나무는 수몰에 직면하여 옮겨 심을 때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큰 가지 2개가 고사하였으나 2003년에 포항시의 개토작업과 외과수술 등 지속적인 생육관리 덕분에 현재 왕성한 생육을 하고 있다. 원래 높이가 16m로서 높이 자라는 나무이었으나 현재 높이가 10m 정도로 줄었다.
현재 이 느티나무 뒤에는 후계목이 왕성하게 자라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오래된 나무에 막걸리를 주어 기력을 회복시키는 민간요법은 예로부터 전하는 전통지식이다. 막걸리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 아미노산, 유기산과 각종 미네랄이 오래된 고목의 생육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막걸리를 마시는 고목으로 유명한 나무가 있다. 일명 '권씨 할배나무' 또는 '무자천손나무'라 부르는 나무이기도 하다. 느티나무이다.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마북리에 자란다.

이 느티나무는 700여 년 전에 마북리에 입향하여 자리를 잡은 안동권씨가 신당으로 모시기 위하여 77-2번지에 심은 나무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느티나무는 1996년 마북저수지의 확장 공사로 수몰될 위기에 처하자 1998년 3월 9일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 보호받고 있다. 당시에 지역의 민간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원래의 위치에서 남쪽으로 200m 떨어진 산기슭에 옮겨 심은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월대보름에 이 느티나무 앞에서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동제를 지낸 후 마치 후손이 된 것처럼 노거수를 둘러보고 막걸리를 대접하고 천수를 다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이 느티나무는 유형이 당산목이다. 또한 시민단체와 마을 사람들은 2002년부터 해마다 칠월칠석 또는 단오에 이 느티나무 주변에 모여 건강과 장수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막걸리를 노거수 주변에 뿌려주며 만수무강을 기원한다. 이것이 막걸리를 마시는 나무로 알려진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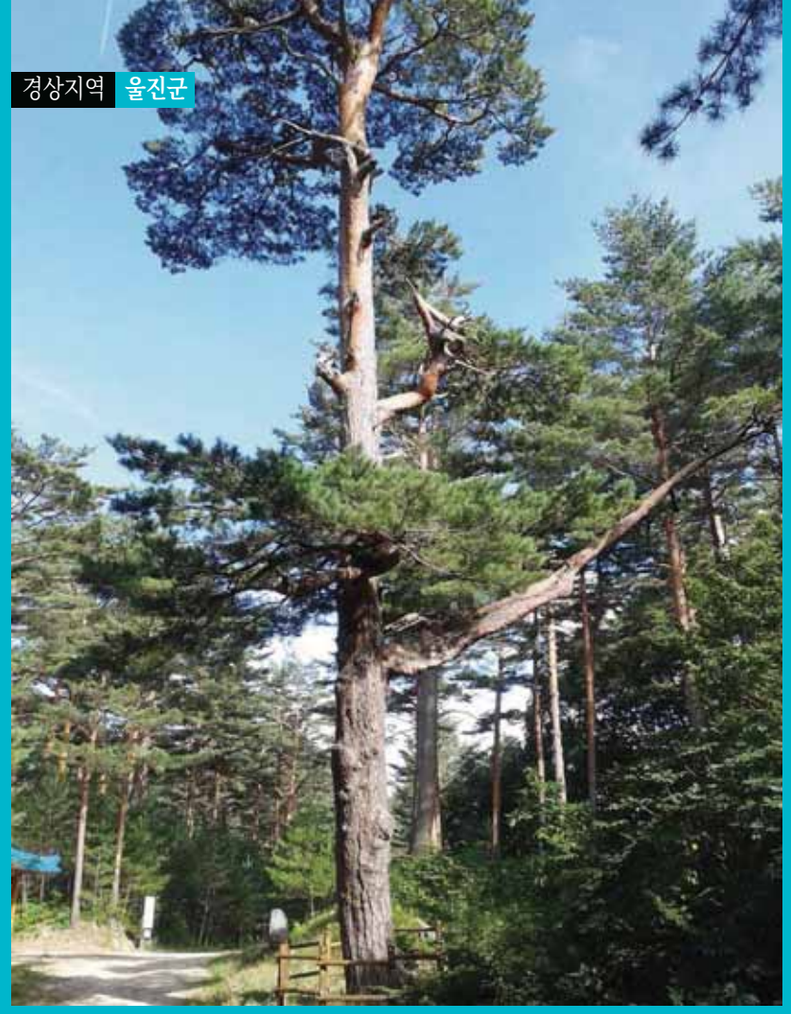
이 느티나무는 앞의 돌에 주민들과 함께 장수를 기원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그 내용은 '나무사랑 컸음에 노거수 있고/ 노거수 있음에 의연한 삶 가꾸더이다/ 나무여 큰 나무여 오래오래 살고지고/ 우리랑 더불어 울창하게 살고지고'이다.

이 느티나무 주변은 비교적 넓은 면적을 확보하여 둥그스름하게 경관수를 심어 놓았다. 지면은 편편한 곳에서 웃자란 초본을 수시로 깎아 주는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태그 | 포항시, 마북저수지, 수몰, 이전, 막걸리, 당산목, 느티나무, 보호수



금강소나무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대광천길 60-1
37° 01.760′ N / 129° 12.522′ E

- 지정번호 : 16-2
- 지정연월일 : 1995.3.30
- 수고 : 25m
- 관리기관 : 경북도청
- 수령 : 520년
- 흉고둘레 : 3.2m

| 어떻게 살았을까?

이곳의 금강소나무는 황장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송금정책 등으로 특별히 보호하였다. 조선시대 숙종 때(1679년)는 금강소나무를 보호할 목적으로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바위에 경계표를 새긴 '황장봉계표석'을 세우기도 하였다. 황장봉계표석은 황장목이 있는 산을 봉산(封山)으로 지정하여 경계를 표시한 돌의 뜻이며, 돌에는 일반인이 출입해 벌채를 하면 중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관리자를 두어 지킬 만큼 금강소나무 군락지가 매우 중요한 곳이었음을 보여준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대한민국에 십이령(十二嶺)이 있다.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금강송면 소광리를 지나 봉화군 동부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옛 보부상들이 울진장 등에서 해산물을 구입하여 봉화, 영주, 안동 등 내륙지방으로 행상을 할 때 넘나들던 12개의 고개이다. 이 고개의 길을 '십이령길'이라 불렀다. 십이령 12고개의 길목에 위치한 두천리 일대는 보부상들이 많이 머물면서 주막과 마방(馬房)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십이령 옛길 곳곳에서는 예전 주막이 있던 터를 발견할 수 있다. 주막은 1950년대 이후 보부상들의 활동이 끊어지면서 없어졌다.

이 십이령길에 금강소나무 군락지가 있다. 이 군락지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그 구역은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곳에 노거수의 금강소나무가 있다.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표본전시실'이 있는 작은 광장에서 삿갓재로 올라가는 길옆에 있다. 형질이 우수하여 학술시험 및 연구 등 보존 가치가 높은 나무이다.

이 금강소나무는 수령 520년 정도이다.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가장 오래도록 살고 있는 금강소나무이다.

이 금강소나무는 소광리 나무숲의 역사를 말해 주고 있어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관계기관에서 이 금강소나무와 그 군락지에 쏟는 관심이 각별하다. 특별한 학술조사나 연구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이곳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있다.

주민들은 지금도 소광리의 이 금강소나무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많다. 마을 언덕에 있는 금강소나무를 성황목(당산목)으로 여기고 있다. 매년 제를 올리지 않지만 이 금강소나무를 '서낭소나무'라 부르며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다.

금강소나무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이고 원형적인 나무이다. 금강소나무는 예전에 건축물을 짓거나 왕실의 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많이 썼다. 조선시대에는 황장봉계표석을 세워 금강소나무 숲을 보호할 정도로 귀하게 여겼다.







태그 | 울진군, 소광리, 십이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성황목, 금강소나무, 보호수



느티나무

경남 양산시 북부동 327-2
35° 20.772′ N / 129° 02.479′ E

- 지정번호 : 12-26
- 지정연월일 : 1978.8.12
- 수고 : 10m
- 관리기관 : 경남도청
- 수령 : 818년
- 흉고둘레 : 7.4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느티나무는 원줄기 가운데가 너비 2m 이상의 공동이 생기면서 큰 가지가 사방으로 나와 둥그스름한 수형을 이루고 있다. 공동은 현재 충전처리가 되어 원줄기의 밑동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큰 줄기 잎 가지는 지표면 높이 2m 정도에서 7~8개가 사방으로 퍼져 있는 모양이다.

이 느티나무는 주위를 둘러싼 건물들로 인하여 그 일부가 가려져 있다. 주변은 정자, 데크, 의자 등을 구비하고 있다.

안내판도 잘 정비되어 있다.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양산시 북부동은 뒤쪽으로 동산, 성황산, 천성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병풍처럼 드리워졌으며 앞쪽으로 양산천을 굽어본다.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형태라 하여 명당의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 양산시노인복지회관이 있으며, 그 곁에 잘 정비된 쉼터와 함께 고목의 느티나무가 자라고 있다. 수령이 818년 이상의 느티나무이다. 고려시대에 심어졌다는 문헌상의 기록에 근거하는 듯하다.

이 느티나무는 이 느티나무는 목신에 제를 지내는 토속신앙인 북안동제(北安洞祭)의 제당이 되는 신목이다. 마을의 당산목 구실을 하여 매년 정월에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내면 주민이 평안하게 된다고 한다.

양산군 시절에는 매년 정월에 군제(郡祭)를 지냈으나 양산시가 된 이후에는 매년 음력 3월 3일에 동제(洞祭)를 지낸다. 제물은 일반 제사 음식과 동일하게 마을 이장이 준비하고, 제주는 주민들 가운데 부정을 타지 않은 사람을 선출한다.

이 느티나무는 옛 선비들이 과거보러 갈 때 꼭 들러 빌던 나무이다. 지금도 입시철 합격기원의 치성을 드리는 주민들이 있다.

이 느티나무는 고려시대에 현재의 자리에 터를 잡았으며, 이 일대는 동헌과 향교가 위치한 양산읍성의 요지였다. 또한 현재 춘추원에 있는 삼조의열단의 비석도 원래 이곳에 세워져 있었으며, 일제의 수탈을 피하여 당시 군민들이 이 느티나무의 뿌리가 속한 땅에 묻어두었다가 1877년(고종 8년)에 복원되어 현재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역사적 기록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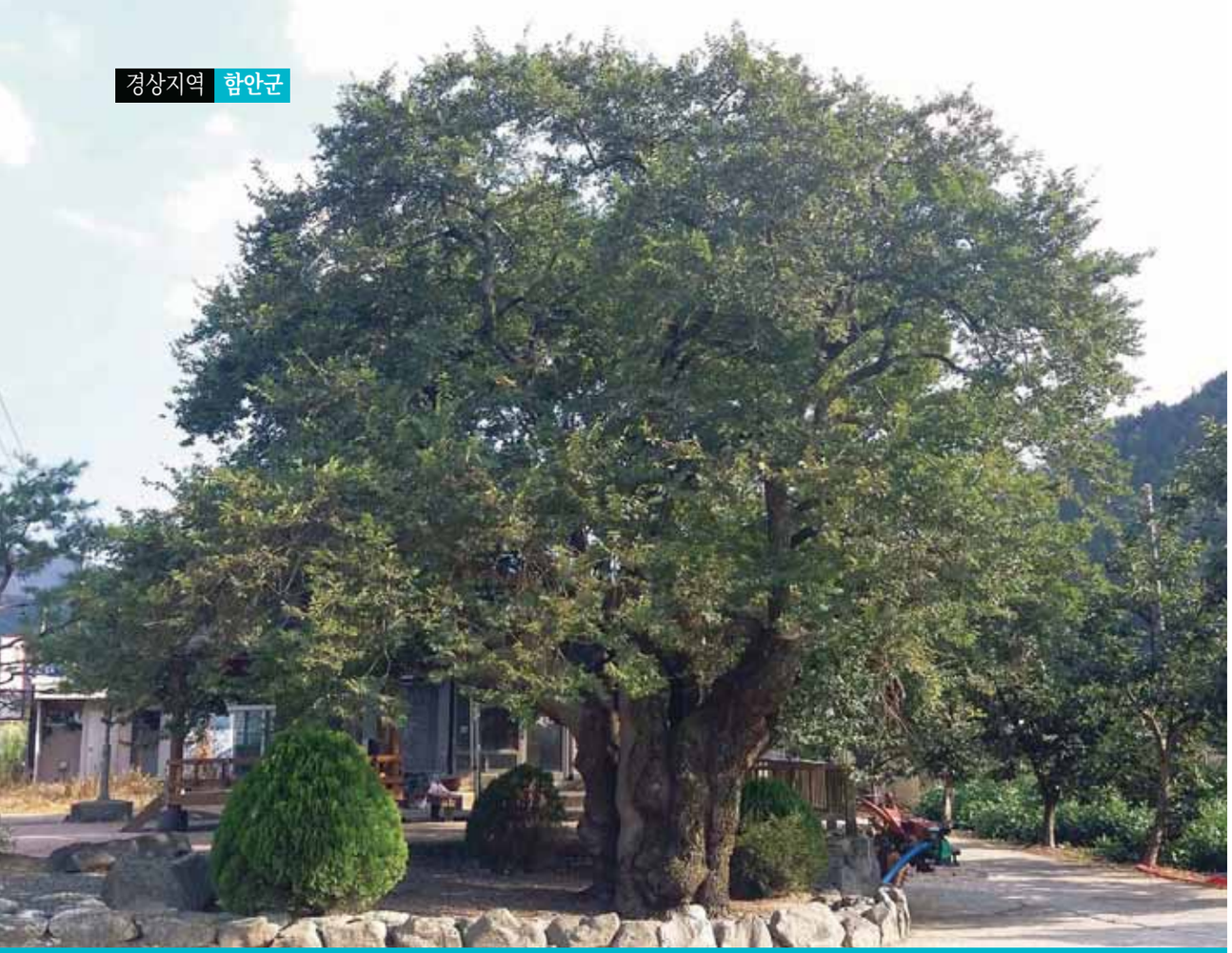
전하는 바에 따르면 임진왜란의 화마로 손실된 이 느티나무는 신기하게도 광복과 함께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뿌리가 깊은 탓인지 나뭇가지에 잎이 생기며 소생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초에 양산군청(당시)은 전문가를 동원하여 이 느티나무를 치료하였고, 그 결과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여 오늘날의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변하였다.







태그 | 양산시, 북부동, 양산시노인복지회관, 당산목, 동제, 느티나무, 보호수



시무나무

경남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541-2
35° 14.353′ N / 128° 21.458′ E

- 지정번호 : 12-00-45
- 지정연월일 : 2000.12.29
- 수고 : 8m
- 관리기관 : 경남도청
- 수령 : 600년
- 흉고둘레 : 5.9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시무나무는 600년 이상을 살고 있다. 마을로 들어서는 길옆에서 매일 오가는 차량의 매연을 견디어 내야 하기 때문인지 모질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잎은 여름이 시작될 무렵부터 파릇파릇하였던 것이 어느 사이에 흙먼지가 쌓여 고유의 빛깔을 나타내지 않았다.
줄기는 일그러져 있고, 원줄기 밑동은 대부분 울퉁불퉁하게 충전처리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마을 어귀에 자라는 시무나무의 고목은 위풍당당하였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대한민국의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시무나무가 있다. 시무나무는 느릅나무 및 참느릅나무와 비슷하다. 느릅나무와 참느릅나무는 열매 양쪽에 날개가 있으나 시무나무는 한쪽에만 날개를 가진다. 잎은 참느릅나무와 거의 닮았으나 가장자리의 톱니가 둔하고 크며 밑쪽이 비뚤어지지 않았다.

시무나무는 흔히 볼 수 있지만 오래도록 자라고 있는 고목을 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의 길옆에 가면 고목의 시무나무를 볼 수 있다.

동촌리의 큰 도로를 가다보면 서촌마을이라 쓴 커다란 비갈이 세워져 있고, 그 옆에는 보호수로 지정한 시무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다. 이 시무나무는 보호수 지정당시 수령이 600년이다. 줄기는 오래도록 살고 있어서인지 울퉁불퉁하다.

서촌마을의 시무나무는 과거 선조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였으며,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구실을 하였다. 이 시무나무는 마을의 안녕을 위하여 매년 정월대보름에 동제를 지냈으나 현재 제를 지내지 않고 있다. 일부 사람들이 찾아와 소원 빌기를 하는 정도이다. 지금은 옆의 정자와 더불어 정자목의 주민 휴식처로 활용하고 있다.

이 시무나무 바로 앞에는 다듬지 않은 자연그대로의 돌이 세워져 있다. 이 돌에는 '백수정(白壽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는 아마도 이 시무나무 아래에서 유유자적하며 오래도록 살고 싶은 사람들의 소원을 담은 것처럼 보인다.

한편 조선시대에 과거시험을 보기위하여 길을 떠나는 선비들이나 보부상들은 큰 마을을 찾아갈 때에 장승이나 솟대를 이정표로 삼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적한 산길의 수많은 갈림길은 무엇인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5리 남짓한 가까운 거리에는 오리나무, 거리가 먼 10리나 20리에는 시무나무를 심어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길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그래도 길을 잃을까







염려되었던지 나그네들은 신고 다니던 짚신이 헤어지면 이정표 나무나 당산목에 걸어두었다.

태그 | 함안군, 서촌마을, 백수정, 정자목, 당산목, 시무나무, 보호수



느티나무

경남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662
35° 45.612′ N / 127° 50.251′ E

- 지정번호 : 12-26-3
- 지정연월일 : 1982.11.23
- 수고 : 18m
- 관리기관 : 경남도청
- 수령 : 600년
- 흉고둘레 : 7.3m

| 어떻게 살았을까?

황산리는 18세기 중엽에 황고(黃皐) 신수이(愼守彛) 선생이 입향하면서 번성한 거창신씨 씨족마을이다. 조선시대 영조 이후 인물이 연이어 배출된 마을이다. 황산리는 2명의 왕비를 배출하였으며, 높은 벼슬의 수많은 무인과 문인이 등장한 명품마을이다. 이 마을에 600년 이상을 살고 있는 느티나무가 있다. 보기 좋은 수형으로 자라고 있다.
이 느티나무는 주변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을 사람들의 보호를 듬뿍 받고 있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는 일제강점기 때 정자와 정자나무가 많다고 하여 대정리라 불렸으나 1995년 거창군 조례에 의하여 지금의 황산리로 바뀌었다. 100여년 이상의 고택으로 이루어진 거창신씨 집성촌이 있다. 40여 호의 고가들이 꾸밈이 없이 모여 있다. 개울(호음천) 옆 도로를 따라 조금만 가면 커다란 느티나무가 반긴다.

이 마을의 고목 느티나무는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느티나무를 '안정좌(安亭座, 案亭坐)' 나무라고 부른다. 마을 입구의 하천 위쪽에 자리를 잡은 이 느티나무는 마을사람들의 휴식공간이기도 하다.

이 느티나무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황산리를 발전시켜 왔다. 또한 마을 사람들은 큰 일이 있을 때에 소리로 알려주는 이 느티나무를 수호신이 깃든 영물로 인정하였다. 이 느티나무는 세상이 어지러워 변고가 있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기이하게도 소리 내어 울어서 길흉을 예고하였다. 8·15광복과 6·25한국전쟁 때도 울었다고 전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에 이 느티나무에 소원을 빌며 기도를 드렸다. 이 느티나무 둘레에는 출산, 승진, 부자, 건강, 합격의 '소원성취 구역'을 마련하여 놓았다. 여러 가지 기이한 모양으로 특별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 얼굴에 왕관을 씌워 놓은 모양으로 출세와 승진을 상징화하였다. 많은 나뭇가지가 위로 뻗었으며 사랑을 의미하는 모양이 있어 출산과 다산을 의미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부자, 합격, 건강의 소원성취를 위하여 이 느티나무를 찾고 있다. 지역 일꾼들은 풍년을 바라는 소원 빌기를 한다.





이 느티나무는 음력 정월대보름에 마을의 무사평안을 기원하는 뜻에서 제사를 지냈으나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폐지되었다. 정자, 벤치, 안정좌 표지석 등 주변이 잘 정비되어 있다.

전통 한옥이 잘 보존되어 있는 황산리의 '고가마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마을 제7호로 지정되었고, 옛 담장은 2006년 6월 19일 대한민국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259호로 지정되었다.

태그 | 거창군, 고가마을, 안정좌, 거창신씨, 당산목, 느티나무, 보호수



은행나무

경남 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1049
35° 44.698′ N / 128° 02.355′ E

- 지정번호 : 12-00-29
- 지정연월일 : 2003.3.16
- 수고 : 28m
- 관리기관 : 경남도청
- 수령 : 700년
- 흉고둘레 : 6.1m

| 어떻게 살았을까?

거창군은 고견사 일대의 산림휴양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한 노력이 대단하다. 견암폭포의 솔숲과 이어진 계곡의 쉼터를 비롯하여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특색 있는 온천 자원을 활용한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거창군은 고견사의 천년수 은행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흙나르기 행사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고견사까지 등산로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고목의 은행나무 생태복원을 위하여 흙주머니에 담은 흙으로 덮어주며 나무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우두산(牛頭山, 1,046m)은 거창군의 명산이다. 우두산은 의상대사가 참선한 곳으로 알려진 의상봉을 비롯하여 장군봉, 바리봉 등 빼어난 자태를 가진 산이다. 우두산을 즐기기 위해서는 고견사주차장 - 바리봉 - 장군봉 - 지남산 - 의상봉 - 우두산 상봉을 거쳐 고견사(古見寺)로 내려가거나 비계산을 거쳐 내려가는 것이 좋다.

의상봉은 거창군에서 우두산을 간다고 하지 않고 의상봉을 간다고 할 정도로 우두산보다 더 알려진 우두산의 한 봉오리이다.

고견사는 산세가 좋은 의상봉 아래에 자리를 잡은 고찰이다. 667년(신라 문무왕 7년)에 의상대사와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 고견사 뒤에 우뚝 솟은 의상봉은 의상대사가 참선하던 곳이다. 이성계가 고려 왕씨들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해마다 2월과 10월에 수륙재를 지내게 한 사찰이다.

고견사는 최치원이 머무르기도 하였다. 최치원이 심었다는 고목의 은행나무가 있고, 의상대사가 도를 닦을 때 날마다 대사와 상좌가 먹을 만큼 쌀이 나왔다는 '쌀굴'도 있다.

천년수 은행나무는 고견사 일주문을 들어서면 곧바로 볼 수 있다. 수령이 700년 정도이지만, 현지 안내판 수령이 1,000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어쨌건 다른 지역의 은행나무에 비하여 수령에 맞게 거대한 몸체를 자랑한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커다란 줄기가 하늘 높이 곧게 자란 것이 고찰과 함께 신비스러웠다. 줄기는 지표면 높이 5m 이상부터 크게 2갈래져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은행나무는 인가 주변이 아니라 산중턱을 한참이나 오른 후의 사찰에 고목으로 자라는 것이 특이하였다. 해발고도 700m 이상에 심어진 은행나무를 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호수의 은행나무와 함께 주변에 심어진 고목의 아름드리 전나무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전나무도 높게 자랄 뿐만 아니라 줄기가 한 아름 이상이나 되는 것이다.





태그 | 거창군, 고견사, 우두산, 의상봉, 최치원, 천년수, 은행나무, 보호수



감나무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262
35° 16.430′ N / 127° 56.225′ E

- 지정번호 : 12-24-8-2
- 지정연월일 : 1982.11.10
- 수고 : 13m
- 관리기관 : 경남도청
- 수령 : 600년
- 흉고둘레 : 1.8m

| 어떻게 살았을까?

산청군 남사예담촌에 수령은 600년 정도의 감나무가 있다.
고목이다. 명물 산청곶감도 이 감나무로부터 비롯되었다.
전형적인 '반시감' 종류이다. 매년 감 열매를 맺는다.
산청곶감은 반시감, 고종시 등의 품종이 생산되고 있다.
높은 당도와 식감이 부드러워 고종황제 진상품으로 쓰였다.
최근에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선물하기도 하였다.
2006년 지리적 표시등록(산림청 제3호)을 하였다.
이 감나무는 오랜 수령에 비하여 생육이 좋은 편이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에 농촌전통의 테마마을로 지정된 '남사예담촌'이 있다. 고즈넉한 담장 너머로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표면적으로는 옛날의 담을 간직한 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내면적으로는 담장 너머로 선비들의 기상과 예절을 닮아가자는 뜻을 지니고 있다.

지리산 초입에 자리를 잡은 남사예담촌은 안동하회마을과 더불어 경상도의 대표적인 전통한옥마을이다.

이곳에 고목의 감나무가 있다. 1982년 11월 10일 산청군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이 감나무는 하집(1303~1380)의 32대 손이 살고 있는 집의 뒤뜰에 있다. 조선시대 세종 때 영의정을 지낸 하집의 손자인 하연(河演)이 손수 심었다.

이 감나무 앞에 세워져 있는 비석에는 '文孝公敬齋先生手植柿木(문효공경재선생수식시목)'이라 새겨져 있다. 문효공 경재선생이 하연인데, 그가 손수 심었다는 뜻이다. 하연은 일곱 살 때 어머니의 자애로움을 기리기 위하여 이 감나무를 심었다.

문효공 하연이 어린 시절을 보낸 남사리에 심어진 감나무는 오랜 세월의 무게를 감내하기 어려운지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텃밭과 같은 작은 집뜰에서 후계목처럼 키우고 있는 다른 감나무들과 함께 자라고 있다. 그리고 이 감나무는 1986년 후손들이 세운 표지석에 당시 580년생으로 기록하여 놓았으나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이 수령 700년이라 해놓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전하는 이야기도 더러 있다. 이 감나무가 해거리를 하는 해가 아닌데도 감이 거의 달리지 않으면 마을에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날 징조로 보았다. 그래서 감이 적게 달린 해는 마을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미리 대비하였다.

또한 구전에 따르면 이 감나무는 도깨비와 함께 살고 있어서 비바람에 감나무가 심하게 흔들리면 도깨비가 부둥켜안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었다. 강풍이나 태풍이 지나가고 도깨비가 나무를 지켜준 다음에는 집안에 좋은 일이 일어났다.





태그 | 산청군, 남사예담촌, 하연, 산청시배목, 감나무, 보호수



느티나무

경남 하동군 화개면 목압길 104
35° 14.185′ N / 127° 38.987′ E

- 지정번호 : 12-23-3
- 지정연월일 : 1996.8.12
- 수고 : 24m
- 관리기관 : 경남도청
- 수령 : 1,200년
- 흉고둘레 : 6.5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느티나무는 국사암을 가다가 그 입구에 다다랐을 때 오른쪽을 올려보아야 볼 수 있다. 10m 정도의 수직 절벽 위에 위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단을 올라가서 보면 평지에 자라고 있다. 국사암으로 통하는 좁은 산길의 모퉁이에 서 있다.
1,200년을 살고 있는 고목이다.
이 느티나무는 현지의 안내판과 지자체의 관리문서에 나타난 높이(수고) 등의 기록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좀 더 세밀한 측정이 아쉽기만 하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경남 기네스북 형태의 자료가 있다. '경남 새마루'이다. 이 책은 경남이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물, 행정, 문화관광, 자연환경, 사회복지, 산업경제, 기타 등 총 246건을 기록한 것이다.

이 책의 자연환경 분야에서 최고 수령의 보호수로 기록된 고목이 있다. 느티나무이다.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의 국사암 산문 앞에 있는 느티나무이다. 수령이 1,200년 이상으로 기록된 느티나무이다.

2002년에 발간한 '화개면지'에 따르면 이 느티나무는 진감선사 혜소가 절을 지을 때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지팡이를 꽂아 두었더니 살아서 싹이 나고 자란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 느티나무는 절묘하게도 1.5m 정도의 지표 높이에서 2개가 갈라지고 바로 다시 2개씩 갈라져 4개의 밑동줄기가 모두 같은 크기로 한 곳에서 갈라진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큰 줄기는 동서남북 4방향으로 벋어있다.

이 고목은 사천왕수(四天王樹)라 부르고 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나무는 4방향으로 뻗은 줄기가 큰 절의 사천왕(四天王)같이 국사암과 불법을 수호한다고 하여 사천왕수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이 느티나무는 일부분이 여성의 생식기와 비슷하게 생긴 탓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이 느티나무의 줄기 밑동, 즉 줄기가 갈라진 한 곳이 여자의 아랫도리 부분과 유사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밤중에 건장한 청년이 그 부분에 자신의 아랫도리를 계속 비비면서 영험을 빌면 이 느티나무가 음기(淫氣)를 발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화개면지'에 따르면 주민들은 주지스님이 밉고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음기(淫氣)가 발동하도록 꾸민다. 밤에 청년이 여성의 생식기 모양에다 자신의 성기를 비비며 영험을 빌면 사천왕수의 음기가 발동하여 열심히 불공에만 전념하던 주지스님이 갑자기 여자문제 등 불미스런 일이 생겨 물러난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전한다.







태그 | 하동군, 운수리, 쌍계사, 국사암, 진감선사, 사천왕수, 느티나무, 보호수



푸조나무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34
35° 09.172′ N / 127° 41.392′ E

- 지정번호 : 12-23-3-2
- 지정연월일 : 1996.8.12
- 수고 : 25m
- 관리기관 : 경남도청
- 수령 : 500년
- 흉고둘레 : 4.5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푸조나무는 1996년에 보호수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마을이 공동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푸조나무는 지자체의 보호수 상세기록 문서에 팽나무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나무는 팽나무가 아니라 푸조나무이다. 500년 이상을 살고 있는 고목이다.

아무튼 '최참판택'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대대적인 조성사업과 걸맞게 푸조나무 보호수 주변의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는 가족사 소설(전 5부 16권)이다. 구한말에서 8·15광복까지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의 대지주 최씨 가문의 4대에 걸친 비극적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한민족(韓民族)의 개인사, 가족사, 생활사, 풍속사, 역사, 사회사 등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 소설이다. 소설의 무대는 박경리의 고향이 아니다. 박경리가 태어난 곳은 한려수도 통영이다. 작가는 하동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의 대부분을 강원도 원주에서 집필하였다.

따라서 통영과 하동 그리고 원주는 박경리를 매개로 동시에 환기되는 지역이다. 그 중심에는 하동이 있다. 그리고 하동의 악양면 평사리의 '최참판택'이 있다. '토지'의 무대로 잘 알려진 곳이다. 무대는 박경리가 외동딸의 탱화자료를 수집하러 다니는 길에 동행하였다가 소설 공간의 최적지로 평사리를 발견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토지'의 무대로 알려진 평사리 상평마을. 악양 들판을 바라보는 낮은 언덕에 자리를 잡고 있다. 소설 속의 시간적인 배경인 구한말 당시에는 악양 들판과 맞닿는 섬진강까지 배가 드나들었다.

평사리 상평마을의 '최참판택'을 가는 길의 어귀에는 커다란 고목의 푸조나무가 있다. 이 푸조나무는 수령이 500년 정도이다. 1745년(영조 21년) 하동 송림(천연기념물 제445호)을 조성한 조선시대 도호부사 전천상(田天詳)이 평사리의 푸조나무가 서 있는 곳의 쉼터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쉬는 곳'이라 하여 '위민정(慰民亭)'이라 이름을 지어 표지석을 만들었다. 이 표지석은 나무 아래에 놓여 있다.

마을 사람들의 쉼터인 위민정 및 푸조나무를 통하여 270년 전 한 지방 관리의 주민을 위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위민정의 푸조나무는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목이다. 동제를 지내거나 소원을 빌고 가는 신목(神木)이다. 평사리 상평마을은 섣달 그믐날 당산제를 지낸다. 당은 마을 위쪽에 할아버지당산, 마을 아래쪽에 할머니당산이 위치





하여 있다. 신체는 위민정의 커다란 푸조나무이다. 모시는 당산(푸조나무)은 마을 수호신으로 좌정하고 있다.

태그 | 하동군, 평사리, 박경리, 토지, 최참판택, 팽나무, 푸조나무, 보호수



노간주나무

경남 합천군 봉산면 권빈리 산 204
35° 37.917′ N / 128° 03.659′ E

- 지정번호 : 12-10-01
- 지정연월일 : 2010.10
- 수고 : 12m
- 관리기관 : 경남도청
- 수령 : 500년
- 흉고둘레 : 3.1m

| 어떻게 살았을까?

권빈리의 노간주나무는 무덤 옆의 산비탈에 자라고 있다.
생육이 양호한 편이다. 마치 2개의 나무가 붙어서 자라는 형상이며, 몇 줄기(가지)의 갈래 중에 1가지가 고사한 상태이다.
이 노간주나무는 위쪽이 하늘높이 뾰족하게 솟아오른 고유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지만 고사하지 않은 줄기의 상태가 좋은 편이다. 죽은 가지 이외의 부분을 잘 관리하면 오래도록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 노간주나무는 500년 이상을 살고 있는 고목이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중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들판의 밭 가운데나 혹은 길가의 평지에 장사를 지낸다. 봉분의 모양은 위쪽을 뾰족하게 만든다. 그리고 해마다 흙을 한 삽씩 떠다가 그 위에 더한다. 이 때문에 봉분은 갈수록 더 높아지고 뾰족해진다. 사대부의 묘소에는 사방에 담을 쌓고 앞에 문 하나를 단다. 그리고 담장 안에는 노간주나무 등을 심었다.

무덤에 노간주나무를 심은 뜻은 확실히 알지 못한다. 다만 옆으로 퍼지지 않고 호리호리하게 하늘높이 솟아오르는 노간주나무의 생육특성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즉 노간주나무가 하늘높이 솟아올라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노간주나무가 늘 푸른 상록수이기 때문에 영원성을 상징함과 더불어 무덤을 지키는 역할도 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심한 가뭄에도 살아남는 특징도 한몫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무덤 주변에 노간주나무를 심어 놓은 곳을 볼 수 있다. 예전의 늘 푸른 소나무, 전나무 대신에 심어만 놓으면 잘 자라는 노간주나무를 무덤 주위에다 심어서 무덤지기를 맡기는 것 등이다.

합천군 봉산면 권빈리는 산줄기 중턱에 자리하는 산간마을이다. 오도산(吾道山, 1134m) 남쪽에 위치하며 '우리의 도가 빛나라'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마을에서 얕은 산야의 길을 가다보면 동산의 언덕에 무덤이 있고, 무덤 주변에서 고목으로 자라는 노간주나무가 버티고 서 있다.

이곳의 노간주나무는 생장이 아주 느린 특성을 감안하여 수령이 500년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노간주나무는 현재 대한민국의 노간주나무 중에서 가장 오래도록 살아남은 나무로 알려져 있다. 이 노간주나무의 수령은 현재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골지리의 노간주나무 보호수와 비교되는데, 골지리의 노간주나무는 수령이 350년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권빈리의 노간주나무는 대한민국에 자라는 노간주나무 중 가장 나이가 많으므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 관계기관은 이 노간주나무의 우수한 형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개체증식을 통한 후계목 육성과 유전형질을 연구할 계획이다.





태그 | 합천군, 권빈리, 무덤, 최고 수령, 골지리, 노간주나무, 보호수



굴참나무

경남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산 1
35° 09.420′ N / 128° 09.229′ E

- 지정번호 : 2015-12-01
- 지정연월일 : 2015.7.3
- 수고 : 20m
- 관리기관 : 경남도청
- 수령 : 500년
- 흉고둘레 : 4.5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굴참나무는 수령이 500년 이상이다. 사방으로 넓게 퍼진 수형을 자랑하고 있다. 상수리나무로 알고 있었던 보호수이었다가 최근에 굴참나무로 이름을 수정하였다. 참나무과 수종 중 상수리나무와 굴참나무는 잎 모양이나 열매 모양이 너무도 닮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굴참나무는 잎뒷면이 빽빽한 털 때문에 회백색처럼 보이고, 코르크질이 발달한 나무껍질이 두꺼워 상수리나무와 쉽게 구별되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남강의 지류인 영천강으로 흘러내린 퇴적토가 농토를 이루는 곳. 모든 농작물이 아주 잘 되는 비옥토의 고장이 있다. 진주시 문산읍 일대이다. 이곳의 마을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여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주변의 건넌들, 사평들, 쑥밭들 등의 들판에 쌓아둔 볏단이 없어지기 시작하였다. 이곳에 언제부터인지 외지에서 도둑들이 모여들었고 도둑마을이 형성되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도둑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흰 옷을 입힌 허수아비를 만들어 들판 곳곳에 옹기종기 세워 놓았다. 그리고 모닥불을 피워 놓았더니 도둑들이 농작물을 훔쳐가지 않았다.

이러한 전설에 따라 매년 가을에 문산읍 옥산리 일대에서 '허수아비 축제'가 열리기도 하였다. 축제가 열릴 당시에는 옥산리 일대의 들판에는 코스모스 꽃길과 인근 논에 주민, 학생들이 제작한 수백여 점의 허수아비가 설치되어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들판의 허수아비는 코스모스, 메밀 꽃밭, 물들어가는 벼이삭 등과 어울려 가을 들판의 정취를 물씬 풍기게 하였다. 그러나 허수아비 축제는 다른 축제와 시기가 겹치면서 지난해에 사실상 폐지되었다.

허수아비 축제로 잘 알려진 옥산리는 영천강 유역에 위치하며 대부분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 정동소류지가 있고 작은 천이 흐른다. 자연마을로는 정동, 원촌, 신촌, 대호 등이 있다. 이 마을은 조선시대에 정강서원(鼎崗書院)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또한 청동기시대의 고인돌이 있고, 절개와 효성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열효각(정려각)이 있다. '죽림정사'의 작은 절이 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옥산리는 이밖에도 노거수의 굴참나무가 마을의 뒷동산에 자라고 있다. 농로길인지 마을길인지도 분간하기 힘든 대나무숲의 좁은 길을 따라 가면 뒷동산 자락에 우뚝 서 있다.

이 굴참나무는 최근에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2015년의 일이다. 이 보호수는 산기슭에 자라는 것이 아니다.





남강 지류인 영산천 주변 인가 근처에 아름드리의 굴참나무가 남아 있는 것이 너무도 특이하다. 가치가 있어 보인다.

태그 | 진주시, 옥산리, 허수아비 축제, 영천강, 고인돌,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보호수











제주지역 | 서귀포시 / 제주시

96	팽나무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1689 ····· 222
97	후박나무	제주	서귀포시 태평로439번길17 ····· 224
98	녹나무	제주	제주시 관덕로 33 ····· 226
99	팽나무	제주	서귀포시 하원로 45 ····· 228
100	팽나무	제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666 ····· 230





팽나무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1689
33° 15.308′ N / 126° 25.641′ E

- 지정번호 : 13-4
- 지정연월일 : 1982.10.22
- 수고 : 12m
- 관리기관 : 제주도청
- 수령 : 610년
- 흉고둘레 : 3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팽나무는 수령이 610년 이상이다. 줄기 밑동은 잿빛이 아니라 검푸르게 변하였다. 그리고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왔다.
특히 밑동의 커다란 혹부리가 큰 돌 옆에서 계속 자라고 있다. 큰 돌은 팽나무 줄기 밑동에 상당히 잠식되어 가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 팽나무는 우산 형태로 퍼진 수관의 기세가 대단하다. 오랫동안 살고 있는 고목이라 하기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고 단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서귀포시 중문동이다. 중문관광단지는 천혜의 관광지이며, 자연이 빚어낸 절경과 어우러져 관광명소의 개발이 활발한 곳이다. 여미지 식물원, 테디베어박물관, 롯데호텔, 신라호텔, 퍼시픽랜드, 중문해수욕장, 천제연폭포, 컨벤션센터, 주상절리 등이 자라잡고 있다.

중문해수욕장은 흑색, 백색, 적색, 회색 등 특유의 빛깔을 띤 모래가 깔려 있다. 활처럼 길게 굽어있는 모래사장과 검은바위(검은현무암)의 조화가 이채롭다.

이곳의 동쪽 해안은 깎아지른 절벽이 흡사 병풍을 둘러친 듯하여 보기에 좋다. 천제연폭포 주변은 울창한 난대림으로 희귀한 식물의 '솔잎란'이 자생하고, 상록활엽수와 낙엽활엽수가 섞여 자란다. 이 울창한 숲 사이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는 장관을 이루며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중문동은 이밖에도 마을회관으로 가는 길옆에 고목의 팽나무(폭낭)가 자라고 있다. 이것 또한 볼거리의 하나이다. 이 팽나무가 자라는 주변은 '지'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던 곳이라 '지기동산'이라 불렀다. 조그마한 동산 사이로 길이 났지만 이 팽나무는 잘려나가지 않고 살아남았다.

이 팽나무는 오랫동안 자신의 그늘 아래서 마을 대소사를 논의하던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품어 왔다. 제주도의 둥구나무는 대부분 쉼터 구실을 하였다.

또한 이 팽나무는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제공하였고, 사랑하는 마을의 연인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마을의 주민들에게는 한여름에 구슬땀을 식히는 그늘을 주었고, 어르신들에게는 바둑과 장기를 두는 아늑한 공간을 마련하여 주었다. 가을에 익는 열매는 아이들이 즐겨 먹었다.

이 팽나무는 정자목으로 아꼈던 나무인 동시에 풍수적 관점에서 보호하였기에 지금처럼 고목으로 자라났을 것이다. 이 팽나무는 오랜 세월 탓에 치료의 흔적이 여러 곳에서 보이지만 주변에 잔디를 깔고 보호 울타리를 치는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팽나무 아래에는 긴 의자를 여러 개 놓을 정도로 공간이 넉넉하다.

태그 | 서귀포시, 중문동, 관광단지, 폭낭, 정자목, 팽나무, 보호수



후박나무

제주도 서귀포시 태평로439번길 17
33° 14.763′ N / 126° 33.902′ E

- 지정번호 : 13-2-3
- 지정연월일 : 1982.10.22
- 수고 : 10.5m
- 관리기관 : 제주도청
- 수령 : 420년
- 흉고둘레 : 4.6m

| 어떻게 살았을까?

수령 420년 이상이다. 이 후박나무는 전체 모양만으로도 세월의 연륜을 보여준다. 큰 줄기의 위쪽에서 8개의 가지로 갈라졌고, 여기에서 다시 갈라진 가지마다 푸른 이끼가 얹혀졌다. 그만큼 오랜 세월을 살아왔음을 알려주는 증거들이다.
이 후박나무는 오래도록 살고 있지만 생육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가지를 넓게 퍼뜨렸고, 넓은 잎을 무성하게 달고 있다.
줄기 밑동에서부터 나온 작은 가지가 많다. 작은 가지들은 굽이져 얽혀 있다. 늘 푸른 넓은잎나무이므로 언제나 꽉 찬 모습이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나무껍질을 한방약으로 이용하는 넓은 잎의 늘 푸른 나무가 있다. 후박나무이다. 주로 위장병이나 천식을 치료하는 한약재로 이용되었다. 때문에 '후박피' 채취로 수난을 격은 나무이다. 인가 주변의 후박나무는 사람들의 손에 껍질이 벗겨져 없어졌기에 특별히 보호하는 고목을 제외하면 아름드리의 후박나무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서귀포기상대 마당에 커다란 후박나무가 자라고 있다. 이 후박나무는 동쪽 언덕배기에서 바라보면 2그루처럼 보인다. 나무 위로 또 하나의 '어린 나무(실제로는 뾰족이 솟아오른 가지)'가 고개를 내민 것이 목말을 탄 부자지간의 모습이다. 주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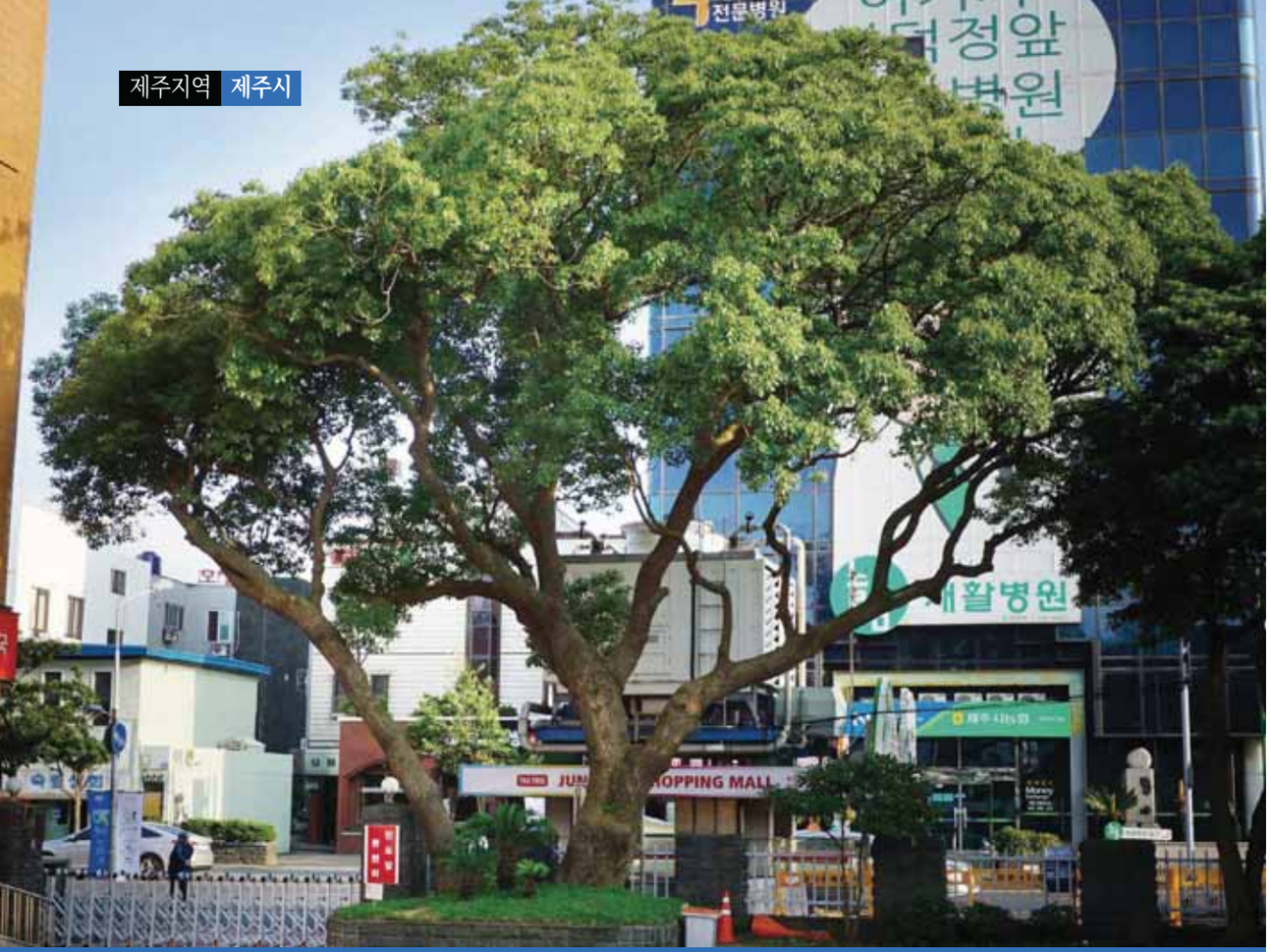
이 후박나무가 지금까지 잘 보존된 이유는 '서귀본향당신'이 강림하는 신목으로 숭배되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나무 서북쪽 30m 지점에 있는 '서귀본향당'에 신이 좌정할 때에 이 후박나무를 이용하였다. 당산목이었던 것이다.

과거에는 매년 4차례 당제를 지낼 때마다 이 후박나무 앞에 제물을 차리고 제를 올렸다. 그러던 것이 1961년 서귀포측후소(현재 서귀포기상대)가 들어선 이후 출입이 통제되면서 이 같은 전통이 사라졌다.

지금은 당제가 축소되어 지내고 있다. 당제를 지낼 때마다 제물을 차리고 제를 올리지는 않지만 간단한 인사로서 과거의 신목에 대한 예를 다하고 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원래 이곳의 후박나무는 2그루이어었는데, 한 나무가 지난 1959년 9월의 태풍 '사라'로 인하여 큰 가지가 찢어지면서 회생이 불가능하여 베어졌다. 지금의 후박나무는 당시의 태풍에 살아남은 것이다.

한편 중부 지방에서 불리는 '후박' 또는 '후박나무'는 목련과에 속하는 '일본목련'이다. 일본목련은 '호오노기'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한자로 쓰면 '후박(厚薄)이 된다. 일본에서 이 나무를 도입하면서 '후박'이라 부른 것이 유래가 되었다.

태그 | 서귀포시, 서귀동, 기상대, 일본목련, 상록활엽수, 당산목, 후박나무, 보호수



녹나무

제주도 제주시 관덕로 33
33° 30.798′ N / 126° 31.346′ E

- 지정번호 : 13-1-6-37
- 지정연월일 : 1982.10.22
- 수고 : 11m
- 관리기관 : 제주도청
- 수령 : 250년
- 흉고둘레 : 2.6m

| 어떻게 살았을까?

제주시의 녹나무는 1982년에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수령 250년 이상이다. 수관은 너비 6m 정도이다. 생육상태가 좋은 편이다. 줄기는 높이 3m 지점에서 크게 2갈래로 갈라지고, 이중 남서쪽 방향에서 다시 4개의 가지가 올라와 있다. 한편 이 녹나무는 오랫동안 살아남아 제주도 근현대사의 온갖 풍파를 지켜보았다. 관덕정 앞 광장은 이재수의 난(1901년), 3·1절 발포사건(1946년) 등이 있던 곳이다. 관덕정 옆의 녹나무는 이러한 역사를 말없이 품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녹나무 관련한 중국의 전설이다. 옛날 어느 절에 큰 뱀이 나타나서 승려들을 해쳤다. 그 절은 뱀 때문에 승려들이 모두 떠나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떠돌이 거지가 폐허의 그 절로 들어갔다. 밤이 되자 추워서 승려들이 버리고 간 나막신을 모아 불을 피우고 잠을 잤다. 거지는 아침에 큰 뱀이 죽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붕에 숨어있던 뱀이 나막신이 타는 연기 냄새를 맡고 죽어 떨어진 것이다. 그 나막신은 향기가 있는 녹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녹나무는 독특한 향을 지니고 있다. 이 독특한 향기가 귀신을 쫓는 힘이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녹나무를 집 울타리 안에 심지 않는다. 이유는 녹나무에서 나는 독특한 향기가 귀신을 쫓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즉 조상의 혼백이 제삿날에도 이 녹나무 때문에 집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심지를 않았다. 그렇다고 녹나무가 귀신만 쫓는 것이 아니다. 예전 제주도 여인들이 바닷물 속에서 물질을 할 때 쓰던 연장이 녹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이 녹나무 손잡이를 깎아 연기를 쐬면 상처가 치유가 되었다.

녹나무는 제주도민의 특성과 기질과 신앙을 상징하는 나무이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녹나무는 힘든 섬 생활을 이기고 살고 있는 제주도민의 인내심과 소박함 그리고 근면함을 보여주고 있다. 녹나무는 새순이 붉은 빛을 띠는데, 이는 제주도민의 희망과 정열 및 무궁한 번영의 기상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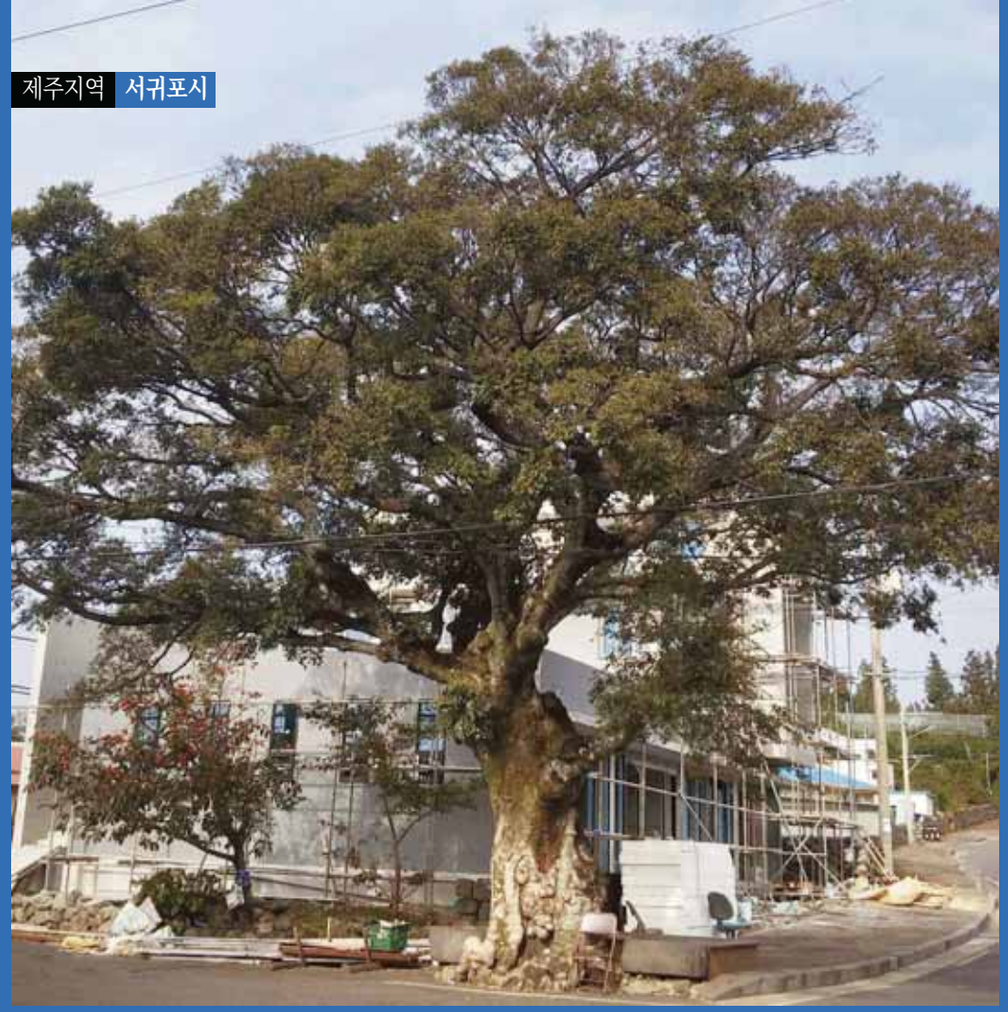
이러한 제주도의 상징목인 녹나무가 제주도의 관아 관덕정(觀德亭) 주변에서 고목으로 자라고 있다. 보다 정확한 위치는 관덕정 인근의 제주우체국 화단이다.

일본 큐슈 사가현 다케오에는 3,000년 묵은 녹나무가 있지만 제주도는 노거수의 녹나무를 보기가 쉽지 않다. 목재로 쓰기 위하여 잘라버리고, 강심제의 한약재로 쓰기 위하여 과도한 벌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태그 | 제주시, 삼도동, 제주우체국, 관덕정, 제주상징목, 한약재, 녹나무, 보호수



팽나무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로 45
33° 15.456′ N / 126° 27.682′ E

- 지정번호 : 13-2-11-8
- 지정연월일 : 1982.10.22
- 수고 : 17m
- 관리기관 : 제주도청
- 수령 : 370년
- 흉고둘레 : 3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팽나무는 수령이 370년 이상이다. 수관은 너비 12m에 이른다. 1982년에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도로포장으로 수분이 침투해야 할 공간이 부족하지만 현재 생육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이 팽나무는 가지를 잘라낸 흔적과 보호를 위한 충전자국이 있다. 줄기 밑동은 곳곳에 크고 작은 혹을 내밀었다.

볼썽사납게 튀어나온 상처투성이의 혹이다. 이는 오랜 세월의 삶이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팽나무는 오랜 세월동안 주민들의 쉼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팽나무는 느티나무와 함께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향토수종이다. 팽나무는 수세가 강건하고 내한성과 내공해성 등이 강하다. 적응능력이 뛰어나 아무데서나 잘 자란다. 또한 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어 강풍과 해풍에도 잘 견디며 내염성이 있다.

서귀포시 하원동에 고목의 팽나무가 있다. 이 팽나무가 있는 곳은 그럴듯한 정자가 없지만 여름철의 햇살과 더위에 몸을 식힐 수 있는 충분한 그늘을 제공하고 있다. 마을의 대표적인 정자목이다.

이 팽나무는 지난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으로 마을길 확장에다 포장사업을 할 때에 베어질 위기에 처하였다가 살아남았다. 당시에 관계기관이 이 팽나무를 베어내고 길을 정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반대하였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그늘을 제공하며 함께 해온 정자목을 베어내는 일이 옳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팽나무는 마을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베어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때문에 마을길은 지금도 이 팽나무가 한 가운데 버티고 서 있는 모양으로 남아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좁은 도로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키로 한 대신에 나무를 선택하였다. 이 팽나무는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온 나무에 대한 주민들의 사랑으로 목숨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 팽나무는 현재 그릇처럼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채워져 보이지 않지만 보호를 위한 충전과 울퉁불퉁한 줄기를 보니 군데군데에 그런 공간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팽나무 줄기사이의 빈 공간에 고인 물을 마시면 만병통치가 된다는 설이 전해진다.

이곳은 마을길이 개선되면서 파이고 잘린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다행히 이 팽나무는 개발구역에서 빠져 옛 정취를 간직하고 있다. 정자목이자 동신목으로 남아 지역민들과 애환을 함께 하고 있다.

이 팽나무는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상처를 입으면서도 여전히 어른들에게는 사랑방과 같은 휴식 공간을 제공하였고, 이이들에게는 더 없는 놀이터를 제공하였다.







태그 | 서귀포시, 하원동, 새마을운동, 향토수종, 정자목, 동신목, 팽나무, 보호수



팽나무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666
33° 27.002′ N / 126° 20.495′ E

- 지정번호 : 13-6
- 지정연월일 : 1982.10.22
- 수고 : 8m
- 관리기관 : 제주도청
- 수령 : 1,000년
- 흉고둘레 : 4.8m

| 어떻게 살았을까?

이 팽나무는 수령이 1,000년 이상이다. 200여 년 전부터 줄기 속이 썩기 시작하였다. 1959년 제주도를 강타한 '사라' 태풍 때는 7m 높이에서 가지가 부러지고 나머지는 기울어져 지금의 누운 모습으로 바뀌었다.

1988년에 부식방지를 위한 시술을 하였다. 줄기는 크기에 비하여 위쪽이 작아서 마치 일부러 분재용으로 가꾼 것처럼 보인다. 마을 사람들은 이 팽나무가 오래도록 살아남아 후손들과 함께 마을을 굳건히 지켜줄 것이라 믿고 있다.

| 어떻게 찾아갈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예전 제주도의 마을은 대부분 그 중심에 쉼터가 있었다. 팡돌(쉼돌)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큰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그 큰 나무는 팽나무가 많았다. 제주도에서 팽나무는 쉼터의 정자목 이외에도 밭의 경계를 표시하거나 물이 귀한 산간 마을에서 물이 있는 곳을 표시하기 위해서 심어놓곤 하였다.

애월읍 상가리는 마을 입구에서 100m 남짓한 마을 안길의 한쪽에 고목의 팽나무가 자라고 있다. 기형으로 자라는 팽나무이다. 이 팽나무는 1982년에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수령이 1,000년이 넘는다. 제주도의 최고령 나무로 보호되고 있다.

이 팽나무는 약간 기울어 자라는 있다. 꽈배기를 튼 줄기는 여지없이 승천하는 용의 형상을 닮았다. 지표에서 2갈래의 뿌리가 올라와 하나의 밑동을 이룬 모양을 하고 있다. 기둥에서 갈라진 8개의 작은 가지가 있다. 가지가 올라오며 얽혀 서로가 의지하여 힘을 모아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 팽나무는 마을의 상징수로 자리를 지켜온 터줏대감이다.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였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기원이 없다. 다만 이 팽나무는 마을이 들어선 700년 이전부터 그 자리에 존재하였다는 구전이 전할 뿐이다. 마을 형성 당시에 이 팽나무를 중심으로 차씨, 주씨, 현씨 등의 성을 가진 사람들이 움막을 짓고 생활하기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변씨가 많이 살고 있다.

커다란 공동으로 변한 줄기 밑동이 이 팽나무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을 잘 말해주고 있다. 제주 4·3사건 당시에는 이 팽나무의 공동에 사람이 숨어 지냈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조선시대 중엽에는 비슷한 수령의 팽나무가 많아 아이들이 땅에 내려오지 않고도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 다닐 수가 있었다. 1950년대에는 나무를 중심으로 20m 간격으로 6그루의 팽나무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팽나무가 많은 곳이라 하여 일대의 이름이 '폭낭(팽나무)거리'이었다. 다른 나무들은 그동안의 태풍에 모두 쓰러졌다.

태그 | 제주시, 상가리, 폭낭, 사라 태풍, 기형목, 정자목, 팽나무, 보호수

참고문헌

[보고서]

내무부. 1967. 노거수 및 자연식물군락지 보호관리요령
내무부. 1972. 보호수지
문화재청. 2003. 마을숲 문화재 자원조사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2008. 주요 수종별 우수 노거수 천연기념물 지정조사
산림청. 1984. 보호수지
산림청. 2008. 전국의 보호수 보전 • 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연구 용역

[단행본(서적)]

강판권. 2010. 역사와 문화로 읽는 나무사전. 글항아리
강판권, 김종원. 2007. 마을숲과 참살이. 계명대학교출판부
경상북도. 2004. 산과 숲 나무에 얽힌 고향 이야기
고규홍. 2003. 이 땅의 큰나무. 눌와
고규홍. 2010. 느티나무. 다산기획
고규홍. 2010. 소나무. 다산기획
고규홍. 2010. 은행나무. 다산기획
고규홍. 2010. 행복한 나무여행. 터치아트
김동근. 2015. 노거수. 문장21
김한하. 2011. 나무 할머니의 옛날이야기(전주시 보호수 스토리텔링). 신아출판사
김학범. 1994. 마을숲. 열화당
대구시. 2015. 대구의 보호수
박병출. 2008. 김해의 노거수 이야기. 작가마을
박상진. 2004. 역사가 새겨진 나무이야기. 김영사
박상진. 2009. 우리 문화재 나무 답사기. 왕의서재
서울시. 2014. 사연이 있는 나무이야기
서정호, 조계중. 2010. 지리산권의 큰 나무. 디자인흐름
송원섭. 2004. 무궁화. 세명서관
송홍선, 이병천, 김명혜, 김수지. 2013.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풀꽃나무. 울진국유림관리소
송홍선. 1996. 풀꽃나무 타령. 문학풍경
송홍선. 1996. 한국의 꽃문화. 문예산책
송홍선. 1996. 한국의 나무문화. 문예산책
송홍선. 1998. 한국농작물백과도감. 풀꽃나무
송홍선. 2003. 제주자생 상록수도감. 풀꽃나무
송홍선. 2004. 인천식물도감. 풀꽃나무
송홍선. 2004. 한반도자생 상록활엽수도감. 풀꽃나무
송홍선. 2009. 식물생태학. 풀꽃나무
순창문화원. 2011. 순창군 보호수 유래 및 설화
양산시지편찬위원회. 2004. 양산시지
울진군지편찬위원회. 2001. 울진군지
이봉섭. 1993. 한국의 명목. 경향신문사출판제작국
이지용. 2011. 우리곁의 노거수. 아이컴
이창복. 2006. 원색 대한식물도감. 향문사
장은재, 김종원. 2007. 노거수 생태와 문화(노거수 100선 생태기행). 월드사이언스
전의식, 오병훈, 송홍선. 2008. 서울나무도감. 풀꽃나무
조병진. 2014. 사람과 더불어 사는 우리 고장의 명목. 씨앗북스
조현제, 이창배. 2010. 우리숲 큰나무(제주도). 산림청 녹색사업단
포천시. 2012. 포천시 보호수 실태
하동군지편찬위원회. 1996. 하동군지

[논문]

강기래. 2012. 보호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남해안 지역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0(2) : 28-36.
나명하. 2007. 남북한 천연기념물 관리정책의 비교연구. 한경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찬열. 2007. 마을숲의 현황과 분류. 국립산림과학원 자료 192 : 4-5.
송홍선. 2000. 삼국사기에 나타난 문화적 식물. 풀꽃나무 1 : 27-35.
심근정, 강신용, 김수봉, 김용수. 1999. 농촌지역 노거수의 변천과정과 보전대책-경남 합천군을 대상으로. 환경과학논집 4(1) : 79-95.
심우경. 1991. 한국 보호수의 상징적 가치와 보호대책. 한국정원학회지 9(1) : 91-104.
우장명, 반기민. 2010. 충북지역 마을숲 관리 실태와 활용방안. 지역정책연구 21(2) : 165-184.
임의제. 2012. 경상남도 남해안 마을숲의 문화경관 특성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0(3) : 29-41.
최재영. 2014. 경주지역 동해안 해변마을 마을숲 및 노거수 잔존형태와 보존대책. 경주문화논총 17 : 199-220.

참고문헌

[인터넷]

국가문화유산포털(http : //www.heritage.go.kr/index.jsp)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http://www.nature.go.kr)
디지털양주문화대전(http://yangju.grandculture.net)
문화재청(http : //www.cha.go.kr)
산림청(http : //www.forest.go.kr)
이야기가 있는 충남의 나무(충남도청 blog.daum.net/e-chungnam)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www.grandculture.net)

[기타]

각 시군 문화원 인터넷사이트
각 시도별 2016년 보호수현황 자료
산림청 정책브리핑. 2006. 보호수 관리규정 및 현황
현장 안내판 설명자료
현장 조사 인터뷰자료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nurse-trees story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처 산림청
발행인 산림청장 신원섭
문의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8819)

연구기관 (사)자연생태교육연구소(031-222-3063)
편집인쇄 비트윈커뮤니케이션(031-907-5418)

정기간행물번호 11-1400000-000732-01
ISBN 978-89-88452-13-493520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이 책의 내용과 사진 저작권에 대한 문의는 산림청 및 (사)자연생태교육연구소로 해주십시오.
이 책의 오류는 독자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